

공공기관 IFRS 도입 영향 및 기대 효과

2013.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지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공동연구진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규안 (송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대길 (삼정회계법인 전무)

서 언

회계는 다양한 경제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 집계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인프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부문에서는 회계를 경영 혹은 사업의 언어 (language of business)라고 부른다.

회계는 실물경제의 거울이므로 회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경제주체들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저해되어 궁극적으로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따금 발생하는 대형 회계부정 사건들의 파급효과를 보면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정교하게, 왜곡 없이, 시기적절하게 기록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회계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회계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회계기준은 회계기능의 준거가 되는 지침으로 회계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우수한 회계기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1년도에 모든 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적용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상당한 비용도 수반되지만 기업들이 산출하는 회계정보의 질이 제고되고 기업의 신인도가 높아지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조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회계수준 제고는 비단 민간부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민간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27개 공기업에 대하여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토록 방침을 정하였으며 나머지 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에 앞서 상당한 준비기간이 있었으며 일부 대형기업들은 자발적인 조기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의 무리없는 정착을 도모하였

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년 여의 짧은 준비기간만 주어졌으므로 정부는 민관합동의 도입자문단을 발족하고 민간의 도입 경험을 살려서 공공부문을 지원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공공부문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에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일반적인 기대 효과 외에 다음과 같은 주요한 이슈들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기준으로 말미암아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즉 그동안 인식하지 않았던 혹은 불완전하게 측정되었던 자산 및 부채의 금액과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이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이다. 경영평가 결과 상당부문 재무제표상 회계정보에 의존하며 이는 종업원과 임원의 성과급으로 연결되므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평가의 영향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셋째,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전기, 가스, 물, 철도 등의 공공요금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현재 공공요금은 재무제표상 회계수치를 활용한 총괄원가보상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회계수치에 큰 변화가 온다면 공공요금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7개 공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최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우선,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공기업 회계수치의 변화와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주요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공공요금 산정 관련 현안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공공기관 관계자와 자문회계법인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록으로 주요 공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에서 고려하였던 구체적인 현안들을 정리함으로써 연구보고서 본문 내용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준정부기관의 도입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도 제공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상당한 양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현실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도입정책의 효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향후 공공부문 회계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개별 공기업 수준에서 매우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은 여타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집필에는 중앙대학교 장지인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가천대 김완희 교수, 숭실대 전규안 교수, 삼정회계법인 정대길 전무가 참여하였다. 집필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험과 동시에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어 해당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구성이라고 판단된다.

저자들은 원내 세미나를 통해서 귀한 조언을 준 문창오·박진희 회계사와 중앙대 정도진 교수, 명지대 박경진 교수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건설적인 논평을 준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재무자료와 설문에 적극 협조하여 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요약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2011년을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을 전면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기업의 경우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준정부기관의 경우 2년 시차를 두고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준정부기관의 예상되는 쟁점사항,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재무제표가 경영평가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기업 재무정보의 생산주체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등의 분야별 분석과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공공기관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수치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전환일의 자산재평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퇴직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수익인식기준의 변경 등이었다. 27개 공기업 중 13개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철도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기업은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퇴직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는 고급여 임직원이 많은 공기업의 경우 부채와 비용이 증가하는 불리한 영향이 나타났다.

가스공사 등은 가스운반선 계약이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토지주택공사와 JDC 등은 부동산 분양매출에 대한 수익인식기준 변경으로 매출 감소와 유동부채 감소 등 재무정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공기업의 특이사항으로 경영평가 상여금의 인식 변경,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변경 등이 발견되었는데, 종전에는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하던 경영평가 상여금을 발생주의에 의거 근무용역 제공시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영평가 상여금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유동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던 공사부담금을 이연수익(부채)으로 처리함에 따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의 자산과 부채가 동액으로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기관이 스스로 선택 적용 혹은 추정하게 되는 자산재평가와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영향을 주었지만, 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회계정책의 도입 효과는 일률적인 방향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한편, 리스분류 변경,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계정 재분류 등은 자산과 부채항목에 동일한 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IFRS 도입으로 변경된 재무제표 금액에 따라 기관의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요금 산정기준인데, 사전적인 우려와 달리 IFRS 도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과 경영평가단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연속성 단절,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무관한 회계기준 변경 영향 등의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회계수치에 의하여 공공요금기준을 산출한 결과 자산재평가 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전 회계기준에 의한 공공요금기준과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등의 요금영향이 미미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변경으로 적정원가는 감소하지만 요금기저의 증가로 그 효과가 상쇄되는 등 회계기준 변경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는 위의 분석들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재확인하여 주었다. IFRS 도입의 장점(기대 효과)으로 공공요금, 자금조달비용 등 구체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제시하기보다는 회계투명성 제고,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정확한 평가 등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공기업 경영평가, 자본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위의 분석과 일관된 결과였다.

IFRS라는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회계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준비기간에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공공기관 IFRS 도입의 1단계인 공기업 도입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혼선 없이 무난히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기관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감사의견도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 정부 주도로 도입자문단이 구성되어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였으며 회계법인은 조기 도입한 민간기업 컨설팅 경험을 적극 공유하였다. 기관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적극적,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재무제표 금액이 직접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입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IFRS 도입에 따라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면서 가급적 종전과의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기관의 동기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회계기준의 도입은 기관의 내부 회계역량 강화와 회계투명성 제고로 연결됨과 동시에 외부 회계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진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회계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회계전문가에 대한 의존보다는 내부 회계전문인력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평가, 공공요금, 배당, 중장기재무계획 등 재무제표 금액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목 차

I.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방법 및 내용	19
3. 연구의 기본 틀	20
II. 공공기관 IFRS 도입 현황 분석	22
1. 공공기관의 IFRS 도입 배경 및 주요 이슈	22
1) 공공기관의 IFRS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2
2) 공공기관 IFRS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24
2. IFRS 도입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26
1)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의 특성을 알아본 연구	27
2)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회계정보 질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	30
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4
4)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6
5) 공기업의 IFRS 도입 관련 연구	38
3. 한국 민간기업의 도입 영향 분석	39
1)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40
2) 개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41
3) 재무제표 표시방법	41

4) 금융업종에 미치는 영향.....	42
5) 일반업종에 미치는 영향.....	43
4. 공공기관 IFRS 공통 사항.....	46
1) 개관.....	46
2) 주요항목별 영향의 유형 구분.....	46
 III. 공공기관의 재무정보 분석.....	51
1. 분석 대상 기관의 개요.....	51
2. 분석 대상 재무제표와 공공기관 유형분류.....	55
3. 공공기관 유형별 재무비율의 검토.....	56
1) 유동비율.....	56
2) 부채비율.....	59
3) 자기자본비율.....	63
4) 매출액순이익률.....	65
4.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부채 변동.....	68
1) 자산변동.....	68
2) 부채변동.....	73
5. 주식 공시의 확대.....	77
1) 개관.....	77
2) 주식공시 증가에 따른 보고서 분량의 변화.....	77
3) 공공기관별 추가 주식사항의 검토.....	79
4) 한국가스공사의 2010년 K-GAAP 주식사항과 2011년 K-IFRS 주식사항의 비교...	81
 IV.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 영향 분석.....	86
1. 개관	86
2. 항목별 영향 분석.....	87

1)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가정 적용에 따른 영향.....	87
2) 연차수당의 조정.....	89
3) 경영평가성과급의 발생주의 회계처리.....	90
4) 유형자산 관련 변동.....	92
5)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변경.....	93
6) 채권평가.....	94
7) 수익인식.....	95
8) 기타.....	96
 V. IFRS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영향.....	98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에 대한 영향.....	98
2.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영향	105
1)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개요.....	105
2) 기관별 영향.....	107
3) 공공요금 총괄원가 차이 요약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 이슈.....	118
 VI. IFRS 도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121
1. 전체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1
1) 설문조사의 설계.....	121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2
 VII.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49
1. 연구의 요약.....	149
2. 연구의 결론	151

참고문헌.....	153
-----------	-----

부 록.....	156
----------	-----

부록 1. 공공기관 IFRS 도입 상황.....	156
----------------------------	-----

부록 2. 개별 공공기관별 IFRS 도입이슈 분석.....	159
----------------------------------	-----

부록 3. 설문지(공기업 경영평가부서 대상).....	212
-------------------------------	-----

부록 4. 설문지(공기업 재무부서 대상).....	216
-----------------------------	-----

부록 5. 설문지(공기업 회계부서 대상).....	220
-----------------------------	-----

부록 6. 설문지(회계법인 대상).....	224
-------------------------	-----

표목차

〈표 II-1〉 IFRS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정리.....	27
〈표 II-2〉 IFRS가 금융업종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42
〈표 II-3〉 IFRS가 일반업종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43
〈표 II-4〉 IFRS 도입에 따라 회계차이 요인	47
〈표 II-5〉 IFRS 전환일 자산재평가 효과.....	49
〈표 III-1〉 분석 대상 기관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	52
〈표 III-2〉 분석 대상 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54
〈표 III-3〉 분석 대상 재무제표	55
〈표 III-4〉 분석 대상 공기업의 유형구분	56
〈표 III-5〉 SOC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유동비율 변화	57
〈표 III-6〉 에너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유동비율 변화.....	58
〈표 III-7〉 기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유동비율 변화	59
〈표 III-8〉 SOC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부채비율 변화.....	60
〈표 III-9〉 에너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부채비율 변화.....	61
〈표 III-10〉 기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부채비율 변화	62
〈표 III-11〉 SOC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자기자본비율 변화.....	64
〈표 III-12〉 에너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자기자본비율 변화.....	64
〈표 III-13〉 기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자기자본비율 변화	65
〈표 III-14〉 SOC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매출액순이익률 변화	66
〈표 III-15〉 에너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매출액순이익률 변화	67
〈표 III-16〉 기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매출액순이익률 변화	68
〈표 III-17〉 SOC 공기업 자산규모 변화	69

〈표 III-18〉 에너지 공기업 자산규모 변화	70
〈표 III-19〉 기타공기업 자산규모 변화	72
〈표 III-20〉 SOC 공기업 부채규모 변화.....	73
〈표 III-21〉 에너지 공기업 부채규모 변화.....	74
〈표 III-22〉 기타 공기업 부채규모 변화	76
〈표 III-23〉 IFRS 도입으로 인한 주식공시량의 변동.....	78
〈표 IV-1〉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영향_퇴직급여	88
〈표 IV-2〉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영향_연차수당.....	89
〈표 IV-3〉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영향_경영평가 성과급.....	91
〈표 IV-4〉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영향_유형자산평가.....	93
〈표 IV-5〉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영향_감가상각	94
〈표 IV-6〉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영향_채권.....	95
〈표 IV-7〉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영향_수익인식.....	95
〈표 IV-8〉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영향_기타.....	96
〈표 V-1〉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공통지표 현황.....	99
〈표 V-2〉 IFRS에 의한 공기업 경영평가 득점영향 분석(2010년도 대상).....	101
〈표 V-3〉 IFRS 도입으로 득점률 상승 또는 하락 기관 분포(2010년도 대상).....	102
〈표 V-4〉 IFRS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 적용방안 요약표.....	103
〈표 V-5〉 공공요금의 종류.....	106
〈표 V-6〉 공공요금 산정기준(2011년)	107
〈표 V-7〉 도시가스료 총괄원가.....	108
〈표 V-8〉 고속도로 통행료 총괄원가.....	110
〈표 V-9〉 광역상수도료 총괄원가.....	113
〈표 V-10〉 전기료 총괄원가.....	114
〈표 V-11〉 철도운임 총괄원가.....	116
〈표 V-12〉 열요금 총괄원가.....	117

〈표 V-13〉 IFRS 도입에 따른 공공요금 총괄원가 영향.....	119
〈표 VI-1〉 설문지 회수 현황	121
〈표 VI-2〉 설문문항의 구성.....	122
〈표 VI-3〉 공기업 IFRS 도입의 장점.....	123
〈표 VI-4〉 공기업 IFRS 도입의 단점	124
〈표 VI-5〉 대체적인 회계처리방안 중 선택기준.....	125
〈표 VI-6〉 IFRS 도입 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	127
〈표 VI-7〉 IFRS 도입의 성공요인.....	128
〈표 VI-8〉 IFRS 도입 시 공기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129
〈표 VI-9〉 IFRS 도입 준비시 정부 또는 경영평가단에 대해 아쉬운 점.....	130
〈표 VI-10〉 IFRS 도입 시 자산재평가를 한 이유.....	131
〈표 VI-11〉 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미친 영향.....	132
〈표 VI-12〉 경영평가지 재무제표 대한 설문.....	133
〈표 VI-13〉 2011년 경영평가방법론에 대한 설문.....	135
〈표 VI-14〉 2012년 경영평가방법론에 대한 설문.....	136
〈표 VI-15〉 IFRS 도입이 국내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136
〈표 VI-16〉 IFRS 도입이 해외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137
〈표 VI-17〉 IFRS 도입 전후 자금조달 이자율 변화	138
〈표 VI-18〉 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140
〈표 VI-19〉 IFRS 도입이 회계부서(회계팀)의 임직원 수에 미친 영향.....	140
〈표 VI-20〉 IFRS 도입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141
〈표 VI-21〉 IFRS 도입용역 수행시 어려운 점.....	141
〈표 VI-22〉 IFRS 도입 후 회계감사시간을 증가시킨 이유.....	142
〈부표 1〉 공공기관 IFRS 도입 진행 상황 점검 제1차(2009년 9월).....	156
〈부표 2〉 공공기관 IFRS 도입 진행 상황 점검 제2차(2010년 4월).....	157
〈부표 3〉 공공기관 IFRS 도입 진행 상황 점검 제3차(2010년 9월).....	158

그림목차

[그림 I -1] 공공기관 IFRS 도입 영향 분석 구조	21
---------------------------------------	----

I.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21세기의 벽두인 2001년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기업인 엔론(Enron)의 대규모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짐
- 그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 채택의 필요성이 대두됨
 - 종전에는 세계 자본시장의 대표주자인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회계기준이 국제적인 회계기준으로 인정받았지만 자국 내에서 회계부정사건이 계속해서 발발하여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EU국가가 주축이 되어 제정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가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의 표준으로 급부상하게 됨
- 민간기업의 회계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서 2007년에 기존의 자국 회계기준을 IFRS로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함
 -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독일 및 서구 여러 나라의 회계제도를 조합한 일본 회계기준을 실질적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던 태동기, 일본 회계기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과 유럽 회계기준을 주도적으로 선별 적용하던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시기에 회계기준의 대부분은 외국 기준과 일치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형 혹은 도입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었음
 - 1997년 말 발발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와

IBRD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였고 특히, 국제적인 회계기준과 한국의 회계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 이러한 요구에 대한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최초 방향은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엔론 등 미국 거대기업들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발발함에 따라 회계기준의 시급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준거대상인 국제적인 회계기준에서 미국회계기준은 상대적으로 권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점진적인 불일치의 해소에서 전면적인 대체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게 됨
-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민간의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의무적으로 IFRS 적용하게 됨

○ 한편 정부¹⁾는 국가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회계 선진화 목적으로 IFRS를 채택하기로 결정함

- 시장형공기업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나머지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됨

○ 새로운 회계기준의 전면적인 도입은 매우 희소한 사건으로 도입 전후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음

-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 준비, 자발적인 조기 도입 기업의 특성,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이 주요 관심사임

○ 2012년 현재 IFRS를 최초로 적용한 2011년도의 재무제표가 공표되어 활용 가능하므로 도입과정의 문제점, 도입 효과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해짐

- 특히, 2010년도의 경우 기존 회계기준(K-GAPP) 적용 재무제표와 IFRS 적용 재무제표²⁾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차이를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짐

1) 공공기관의 회계제도와 관련한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공공기관의 IFRS 도입을 주도함

2) 2011년도 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를 작성 시 비교목적으로 2010년도 재무제표도 동일한 IFRS 기준으로 재작성하여 공표하게 됨

2) 연구의 목적

- 새로운 회계기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한 기업들의 특성
 - IFRS의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질 향상 여부
 - IFRS의 도입 이후 자본비용의 증감 여부
 - IFRS의 도입 이후 시장효율성의 향상 여부
- 민간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자본시장과 직접적인 연계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반응을 살펴보기보다는 공공정책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IFRS 도입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제반 이슈들을 분석하고자 함
 - IFRS 도입으로 인하여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재무정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요금 등 재무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제도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 IFRS 도입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2013년 도입 예정인 준정부기관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및 내용

- 민간기업과 차별화되는 공공기관의 IFRS 도입 배경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함
- 민간기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을 정립
- 26개 공공기관별 도입 이슈를 정리
- 26개 공공기관 2010년 및 2011년 재무제표 정보 분석
 - 2011년에 IFRS를 최초 도입한 26개 공기업에 대하여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의

K-GAPP 재무제표와 IFRS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전환일 시점에서의 회계기준 차이 및 영향을 분석함

- 2011년도 재무제표에 비교목적으로 공시된 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IFRS 재무제표와 전년도에 확정된 K-GAPP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IFRS 적용 1년간의 영향을 분석함

○ IFRS 도입으로 인한 공기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

-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한국전력, 도로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기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IFRS 도입 성공요인 분석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담당자와 회계자문 담당자 심층면담(FGI) 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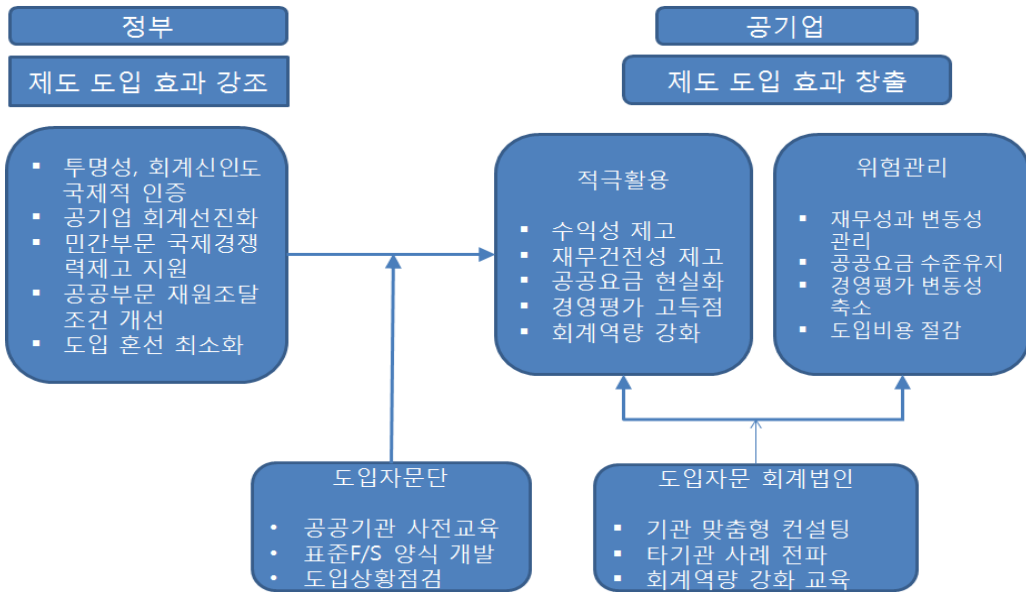
- 5월과 6월 공공기관 IFRS 자문을 담당하였던 두 곳의 회계법인 담당자와 심층면담을 진행
-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8월 중 공공기관과 회계법인에 배포하고 의견을 수합

3. 연구의 기본 틀

○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 구조는 다음의 [그림 I -1]과 같음

- IFRS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정부와 공기업이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입자문단이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각 공기업 별로 민간회계법인을 선정하여 IFRS 도입 자문용역을 수행토록 하였음

[그림 I-1] 공공기관 IFRS 도입 영향 분석 구조



- 정부의 주요 목적은 IFRS 도입 효과를 부각시키고 도입 부담을 최소화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기업에 새로운 회계기준을 정착시키는 것임. 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기업 IFRS의 도입효과를 설명함과 동시에 도입자문단을 구성하여 효율적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정부의 의뢰를 받은 도입자문단은 공공기관 임원 및 회계실무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 공공기관 표준재무제표양식 개발, 도입상황 점검, 이슈 발굴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공기업은 새로운 제도의 의무 도입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주 목적임. 회계기준의 변경을 적극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재무건정성 제고, 공공요금 인상, 경영평가 고득점을 유도하는 재무정보의 산출을 도모할 수 있음.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회계기준의 변경이 경제적 실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 변경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임.
- 기관별 도입자문 회계법인은 기관의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사기관에 도입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공기업 전체의 도입비용을 저감하는 역할을 수행함

Ⅱ. 공공기관 IFRS 도입 현황 분석

1. 공공기관의 IFRS 도입 배경 및 주요 이슈³⁾

1) 공공기관의 IFRS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2009년 8월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배경하에 공공기관에도 IFRS의 도입을 추진하게 됨(장지인(2011))
-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지배구조, 시스템의 정비를 수반하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최근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포함하여 해외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과 해외 자원조달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투자자 및 정보이용자들이 활용가능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IFRS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⁴⁾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도 기본적으로 IFRS에 근거함에 따라 공공기관 회계정

3) 장지인(2011)의 연구 내용을 요약 정리함

4) 해외자원개발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국석유공사의 경우에는 IFRS를 도입함과 동시에 기능통화로 미국달러화를 선택하여 달러표시 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가 되고 있음

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도 IFRS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중 상장기업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IFRS를 의무적용하게 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과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공공기관 간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도입대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공공기관운영기본법」상의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도입대상으로 정하였으며 모든 공기업은 2011년부터, 준정부기관은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 민간기업에 비하여 도입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그룹의 도입자문단, 공기업 실무준비반,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추진하였음⁵⁾
 - 도입자문단은 회계학 교수, 4대 회계법인 대표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이미 도입을 준비 중인 민간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특수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2년 여 활동기간에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의 교육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공공기관 표준계정과목체계 및 양식 개발 등 공공기관 IFRS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공기업 실무준비반은 최초 도입 대상인 공기업의 회계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 애로사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함
 - 유관기관 협의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전체를 망라한 회계실무자 모임으로 IFRS 도입과 관련한 전체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직으로 가동하였음
- 이러한 관·산·학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으로 인하여 모든 적용대상 공기업이 당초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201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게 되었음

5) 공공기관의 도입 진행경과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점검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부록1〉을 참조

2) 공공기관 IFRS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 IFRS의 주요 특징은 ‘원칙중심’, ‘경제적 실질중심’, ‘공정가치평가’, ‘주석공시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음

- 미국 회계기준이 실용성 관점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나열적으로 기술하는 데 비하여 유럽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할 것을 대원칙으로 천명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김. 주재무제표(primary financial statements)로서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택한 것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경제 연계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경제적 실체(one economic entity)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사 고임
- 전통적인 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에 근거하였음. 즉, 해당 자산이 취득된 시점 혹은 부채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최초 취득금액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소멸시점까지 평가의 기저로 삼았음. 그러나 IFRS는 매년 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현재시점에서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에 의하여 재산정될 금액, 즉 공정가치(fair value)로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갱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경제적 실질 반영이라는 원칙하에 개별 기업마다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매년 공정가치평가가 행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된 화폐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알지 못하면 정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주석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공시하게 되어 공시량이 전통적 회계기준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됨

○ IFRS의 도입의 주된 기대효과는 경제적 실질의 반영, 공정가치평가, 주석공시량 증가 등으로 회계정보의 질(qua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이 향상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즉, 자본비용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임. 공공기관도 SOC공기업, 에너지공기업 등은 대규모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므로 자본비용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IFRS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의 차별화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특유한 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실적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지표 중 재무적인 계량지표는 기본적으로 기관이 작성한 재무제표 수치에 근거하게 되므로 회계기준의 변경은 필연적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됨.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영향 요인이 있음
 - IFRS에 따라 주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지표 계산의 근거가 되는 회계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 IFRS에 따라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특정 계정과목의 회계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회계수치와 연속성이 단절됨⁶⁾
 - 상기 두 가지 요인은 해당 기관내의 문제이지만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상이한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⁷⁾
- 정부는 전기, 수도, 가스, 도로, 철도, 우편 등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정책적인 목적에서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은 재무제표에 근거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총괄원가는 원가와 투자보수의 합으로 계산되는 바, IFRS 도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감가상각 회계처리방법 변경,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 등은 원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자산재평가 등 공정가치평가는 투자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투자기저(basis)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회계계정과목 명칭 및 분류체계의 변경 등

6)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지표는 기본적으로 과거 5개년 자료에 근거한 표준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는 방식이므로 산출근거가 되는 과거 5개년 자료 및 실적자료는 산출기준의 일관성(consistency)이 유지되어야 함

7)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별 지표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의 실적에 근거하여 산출하지만 기관의 최종 평가 결과는 타 공공기관과의 상대순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궁극적으로는 타 기관의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됨

은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관리, 내부성과관리 등 내부 경영프로세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와 같은 기대효과 및 영향 중에서 경영평가 결과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관이 제출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장에서 분석하기로 하며, 기타 영향들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함

2. IFRS 도입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도입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⁸⁾
 - 첫 번째, IFRS를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한 기업의 특성을 알아본 연구로 기업규모, 상장기업 여부, 부채비율 등이 IFRS 조기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
 - 두 번째, IFRS 도입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IFRS 도입 시 회계정보 질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와 IFRS 도입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 및 IFRS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로 나눌 수 있음
 - 세 번째,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기업의 IFRS 도입 관련 연구가 있음

8) IFRS 도입과 관련된 연구를 정리한 연구로는 정운오(2012)와 황이석·남혜정(2012a), 황이석·남혜정(2012b) 등이 있음

〈표 II-1〉 IFRS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정리

구분		구체적인 예
(1) IFRS 조기 도입 기업의 특성을 알아본 연구		기업규모, 상장기업 여부, 부채비율 등의 영향
(2) IFRS 도입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	1) IFRS 도입 시 회계정보 질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	이익의 질, 회계정보의 가치 관련성, 보수주의 등에 미치는 영향
	2) IFRS 도입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	증가, 감소 또는 변화가 없다는 연구
	3) IFRS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	시장유동성, 기업가치, 재무분석가의 수 또는 재무분석가 예측치의 분산, 시장반응 등에 미치는 영향
(3) 공기업의 IFRS 도입 관련 연구		공기업에서 IFRS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 IFRS 도입의 영향 등

- 공기업의 경우는 IFRS를 2011년부터 강제적으로 일시에 도입하였으므로 선행연구 중 IFRS 조기 도입 기업의 특성을 알아본 연구는 공기업과는 관련이 없음
- 그러나 IFRS 도입 시 회계정보 질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와 IFRS 도입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 및 IFRS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선행연구는 공기업에도 유사하게 적용 가능한 분야이며 공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공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기존의 일부 연구들은 단편적인 접근방법에 그치고 있으므로 본 연구와 같이 공기업에서 IFRS 도입 후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됨

1) 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 기업의 특성을 알아본 연구

- 어떤 특성을 갖는 기업들이 IFRS를 조기에 도입하였는가를 연구함. 이 연구들은 IFRS를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하는 선택권이 주어진 경우에 어떤 기업들이 IFRS를 조기 도입하였는가를 연구함
-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IFRS 도입의 적극적인 동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 도입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기업의 경우 IFRS 도

입 시 어떠한 회계전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음

○ Gassen and Sellhorn(2006 WP)

- 이 연구는 IFRS 도입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함. 첫째,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는 기업들이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가를 알아봄. 기업 규모가 크고,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international exposure), 소유지분의 분산이 작고, 신규 상장기업일수록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음
- 둘째, IFRS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질(accounting quality)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 IFRS를 도입한 기업의 이익이 더 지속적이고(more persistent), 덜 예측가능하고(less predictable), 더 조건부 보수적(more conditionally conservative earnings)이라는 결과를 얻음
- 셋째, IFRS를 도입한 기업의 bid-ask spread가 70 bp(base point) 감소하고 주가가 더 탄력적(more volatile)이었음

○ 최성호·김인숙·최관(2011, 회계학연구)

- 2009년 14개, 2010년 45개의 조기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한 기업들이 K-IFRS의 적용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게 보이고 싶어 하는지와 한국회계기준(K-GAAP)에서 K-IFRS로 전환 시 발생하는 순이익과 순자산의 조정액이 기업가치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치관련성을 갖는지를 연구함
- K-GAAP 적용 시 ROA(ROE)가 낮을수록 K-GAAP에서 K-IFRS로 전환 시 ROA(ROE)가 유의하게 증가함. 이는 조기 도입 기업들이 K-IFRS 도입으로 ROA(ROE)를 증가시키려는 동기가 있음을 나타냄
- 한편 K-GAAP에서 K-IFRS로 전환 시에 주당순이익의 전환조정액은 추가적인 가치관련성이 있으나 주당순자산의 전환조정액은 유의적인 가치관련성을 보이지 않음. 주당순자산의 전환조정액을 추가적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종업원 급여 관련 부채, 지분법 적용 주식 평가액, 기타 조정액으로 나누어 보아도 어느 항목도 유의적인 가치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음

○ 이우재·오광욱·정석우(2010, 회계저널)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예상되는 혜택이 개별 기업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입비용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소 상장기업 중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비용을 보고한 152개(기업/연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특성을 분석함
- 분석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이 높게 나타남.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가져오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개선효과가 정보비대칭을 줄여주고 자본비용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이러한 효익을 크게 평가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함
- 둘째, 자금조달의 수요가 많은 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함
- 셋째,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규모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들이 해외의 거래처와 투자자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함
-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외국의 회계정보와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보위험을 줄임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얻는 혜택이 크고, 해외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해짐을 시사함. 이러한 결과는 혜택을 많이 입는 기업일수록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함

○ 송인만·양동훈·김인숙(2010, 회계저널)

- 2009년부터 조기 적용한 11개 회사들의 도입 준비 및 적용에 관한 실증사례를 연구
- 조기 도입 기업 공시의 주요 특징은 연결재무제표 의무작성 기업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100% 이상 증가하였고, 재무제표 본문 계정과목의 수는 감소한 반면 주석의 양이 대폭 증가함
- 또한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획일적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저하됨. 재무상태표를 기존의 자산-부채-자본으로 표시하던 것과는 달리 자

산-자본-부채로 표시하거나 유동-비유동 순서가 아닌 비유동-유동으로 표시한 기업들이 상당수임. 손익계산서 측면은 영업이익을 표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음

- K-IFRS 도입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는 연결재무제표 의무작성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는 기업의 변동보다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증가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자산 및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여 자본의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K-IFRS 도입업무는 단순히 회계 관련 부서뿐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의 작업으로 경영진의 강한 의지와 적절한 TF 인원의 구성이 성공적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2)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회계정보 질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

가. IFRS 도입 후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

○ Barth, Landsman, and Lang(2008, JAR)

- 미국 이외의 21개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자국의 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을 대응표본(matching sample)으로 이용하여 분석함. 이익조정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방법론을 이용하였는데, 이 중 세 가지는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와 관련된 것이고, 한 가지는 목표이익(target earnings)의 달성과 관련된 것임. 적절한 손실인식(timely loss recognition)과 관련해서는 큰 손실의 보고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coefficient on large negative net income)를 이용함. 가치관련성(value relevance)에 대해서는 순이익과 순자산가액이 주가를 설명하는 설명력 등을 이용함
- 분석 결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이익조정이 감소하고, 더 적절하게 손실을 인식하고, 회계수치의 가치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의 재무보고의 질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얻음

○ Capkun, Cazavan-Jeny, Jeanjean, and Weiss(2008, WP)

- 1,722개의 유럽의 IFRS 의무도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FRS로의 전환으로 ROA(Return on Assets)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local GAAP하에서 ROA가 낮은 기업의 ROA가 더 많이 증가하였고, 이익조정이 더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 더 많은 증가가 있었음. 자산, 자본, 영업권, 무형자산, 유형자산, 비유동부채,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이 IFRS의 도입으로 이익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또는 완전하게 IFRS를 도입하는 공시(both partial and full IFRS earnings disclosures)는 가치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모든 국가에서 이익항목의 가치관련성이 나타남

○ Ismail, Dunstan, and Zijl(2011, WP)

- 말레이시아의 의무도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IFRS 도입 이후에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함. 연구결과, IFRS 도입 이후에 비정상 발생액의 절대값이 유의하게 낮아지고 이익의 가치관련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IFRS 도입 이후에 이익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Balsari, Ozkan, and Durak(2010, JAMIS)

- 터키의 IFRS 의무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수적 회계처리 정도가 증가함. 보수적 회계처리 정도의 증가현상은 금융업,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소규모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 Barth, Landsman, Young, and Zhuang(2012, WP)

- 유럽에서 2005년의 IFRS 강제도입에 따른 이익관련 조정항목(the adjustments to net income)이 투자자들에게 가치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익관련 조정항목의 가치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와 독일의 비금융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에서 투자자들이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39에 따라 측정된 이익을 국내 기준에 의해 측정된 이익보다 더 가치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

○ Andre and Filip(2012 WP)

- 2005년에 IFRS를 강제로 도입한 16개 유럽국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문법(code law) 국가일수록, 프랑스와 독일법에 근거한 국가일수록, 지배구조와 주주보호 등이 강한 국가일수록, 그리고 자본시장보다 부채시장이 발달된 국가일수록 보수주의(conservatism)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IFRS 도입 이후에는 국가별, 법적 구조별 차이가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IFRS와 차이가 많이 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일수록 보수주의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IFRS 도입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회계기준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음

○ 황이석·남혜정(2012b, WP)

- 황이석·남혜정(2012b)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K-IFRS하에 작성된 회계이익 정보가 미래이익을 예측하는 데 관련이 있는지와 K-IFRS하에 작성된 회계이익과 K-GAAP하에 작성된 회계이익 간의 보수주의에 차이가 있는지, 전환 조정항목이 신용등급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및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전환 조정항목에 대하여 과대평가하는지를 알아봄
- K-GAAP에서 IFRS로의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차이(전환조정)는 미래이익을 예측하는 데 유의적이지만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K-GAAP과 K-IFRS로 작성된 이익의 보수주의(conservatism)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음
- 이익 변화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이익 변화도 신용등급의 변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
- K-GAAP으로 작성된 이익에 대하여 시장이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차이에 대하여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거나 차이조정 정보가 시장에 공시된 시점으로 인해 시장에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나. IFRS 도입 후 회계정보의 질이 감소한다는 연구

○ Ahmed, Neel and Wang(2012, WP)

- 2005년에 IFRS를 강제로 도입한 20개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표본을 구성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IFRS 도입 이후에 이익 유연화가 증가하고, 발생액이 증가하며, 손실인식 적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익목표를 상회하는(meeting or beating earnings targets) 경향은 변하지 않음. 이러한 결과는 IFRS의 도입이 이익의 질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에 상반되는 연구결과임

다. IFRS 도입 후 회계정보의 질에 변화가 없다는 연구

○ Tendeloo and Vanstraelen(2005, EAR)

- 독일의 IFRS 자발적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독일의 local GAAP과 IFRS 간의 이익조정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음
- 독일은 성문법(code law) 국가이며 투자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이므로, 본 논문은 독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 보호가 약한 국가에서는 고품질의 기준(high quality standards) 도입(즉, IFRS의 도입)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Jarva and Lantto(2012, WP)

- 핀란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의 의무도입 시 재무제표의 정보효과와 핀란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재무제표의 정보효과를 비교함. 핀란드는 높은 품질의 보고환경을 갖고 있으며, 핀란드 회계기준이 IFRS와 현저하게 다르고, IFRS의 조기 도입이 허용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비교에 적절함
- 연구결과에 의하면, IFRS를 적용한 이익이 핀란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이익에 비해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IFRS에 근거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이 핀란드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에 비해 가치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IFRS에 의한 이익이 핀

란드 회계기준에 의한 이익보다 한계적(marginally)으로 더 정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성호·김인숙·최관(2011, 회계학연구)

- 2009년 14개, 2010년 45개의 조기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K-GAAP에서 K-IFRS로 전환 시에 주당순이익의 전환조정액은 추가적인 가치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주당순자산의 전환조정액은 유의적인 가치관련성을 보이지 않음. 주당순자산의 전환조정액을 추가적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 지분법 적용 주식 평가액, 기타 조정액으로 나누어 보아도 어느 항목도 유의적인 가치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음

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IFRS의 도입으로 자본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운오(2012)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경감시킨다면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자본비용이 낮아질 것임.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질이 제고된다면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자본비용이 낮아질 것임.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자본비용이 낮아질 것임.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IFRS의 도입으로 자본비용이 낮아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을 것임

가. 자본비용이 감소한다는 연구

○ Daske, Hail, Leuz, and Verdi(2008, JAR)

- 26개 국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자본비용, 시장유동성,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함. 분석 결과에 의하면 IFRS 도입 후 시장유동성이 증가하고, 자본비용이 감소하고, 기업가치(토빈Q)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을 의무도입기업(mandatory adopters), 조기자발도입기업(early voluntary adopters), 후기자발도입기업(late voluntary adopters)으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의무도입 직전연도에 자본비용 감소효과가 나타나며, 후기자발도입기업에서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Li(2010 AR)

-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EU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FRS 강제도입기업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자본비용이 47bp(base point)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러한 결과는 법적 집행력이 강한 국가(strong legal enforcement)에서만 나타남. 이는 고품질의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긍정적인 시장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법적 집행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나. 자본비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 Daske(2006, JBFA)

- 1993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자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독일 기업들의 자본비용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자본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함. 한 가지는 자본비용 측정의 어려움과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또 한 가지는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독일에서는 독일회계기준(HGB), 국제회계기준(IAS/IFRS), 미국회계기준(US-GAAP) 중 임의로 선택하여 회계 보고를 하는 과도기적인 기간이었으므로 회계기준의 다양성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해쳐 자본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다. 자본비용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 Cuijpers and Buijink(2005, EAR)

- EU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local GAAP을 적용한 기업과 non-local GAAP(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와 US GAAP)을 적용한 기업 간에 정보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봄

- Non-local GAAP의 적용과 재무분석가 수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으나, 자본비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재무분석가 예측치의 분산과 주식수익률 변동성(재무분석가와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나타냄)은 non-local GAAP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다만,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본비용을 높인다는 Daske(2006)의 연구는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자본비용을 낮추거나 최소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EU 국가 또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본비용을 낮추는 과정에 대해서 정운오(2012)가 제시한 세 가지 이유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자본비용이 감소하였는가를 구분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연구들에서는 그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음

4)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Leuz(2003 JAR)

- 독일의 신시장(New Market)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 들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 분석 결과,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과 미국회계기준 적용기업 간에 bid-ask spread 차이와 주식회전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이러한 결과는 신시장 기업의 경우에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의 선택이 정보비대칭과 시장유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Daske, Hail, Leuz and Verdi (2008, JAR)

-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FRS 도입 후 시장유동성이 3~6% 증가하였으며, 자본비용이 감소하고, 기업가치(토빈Q)가 증가함. 이러한 효과는 기업이 투명해질 유인이 있는 국가와 법적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만 나타남

○ Cuijpers and Buijink(2005, EAR)

- Non-local GAAP의 적용과 재무분석가의 수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으므로 non-local GAAP 도입 후(자발적 도입기업) 재무분석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재무분석가 예측치의 분산과 주식수익률 변동성(재무분석가와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나타냄)은 non-local GAAP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Horton, Serafeim and Serafeim(2008, WP)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분석가의 예측 정확성과 예측치 변경의 불일치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 재무분석가의 예측 정확성과 예측변동성이 향상됨. 국제회계기준을 강제로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도 비금융기업의 경우에는 예측 정확성과 예측 변동성이 향상됨

○ Armstrong, Barth Jagolinzer and Riedl(2010, AR)

- IFRS 도입과 관련된 16개 events에 대한 시장반응을 분석한 결과, IFRS 도입 전 정보환경의 질이 낮고 정보비대칭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이는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수록 IFRS의 도입으로 인한 정보효익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반면에 성문법(code law) 국가의 기업일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Covrig, DeFond and Hung(2007, JAR)

- IFRS의 자발적인 도입으로 외국자본이 증가하는가를 알아봄. 전 세계 25,000개의 뮤추얼펀드(mutual fun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IFRS를 도입한 기업의 외국인 뮤추얼펀드 지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외국인 뮤추얼펀드 지분의 증가는 정보환경이 열악하고(poorer information environment), 가시성이 낮은(lower visibility) 기업일수록 더 크게 나타남. 이는 IFRS의 조기 도입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더 익숙한 형태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IFRS의 자발적인 도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가편의(home bias)를 감소시키고 자본배분의 효율성(capital allocation efficiency)을 제고한다고 주장함

○ Christensen, Lee and Walker (2009, JAR)

- 영국(UK)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국회계기준과 IFRS에 의한 이익차이항목(earnings reconciliation)에 대한 공시가 정보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봄. IFRS의 도입이 기존의 회계기준에 의한 부채계약(debt covenants)을 위반할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시장반응을 알아봄
- 연구 결과에 의하면 IFRS 차이항목의 공시는 유의적인 시장반응을 가져왔으며, 부채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조기에 공시한 기업일수록 시장반응이 더 크게 나타남

5) 공기업의 IFRS 도입 관련 연구⁹⁾

○ 장지인(2010)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의 특성 및 공공기관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에 대하여 논의함. 공공기관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먼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최고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문성 있는 IFRS 도입 전담반 구성이 필수적이며,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IFRS 전담반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업 직원들의 IFRS에 대한 이해 및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공이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제안함

○ 정성호(2012)

- 2011년에 K-IFRS를 도입한 2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0 회계연도의 K-GAAP과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여 K-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구체적으로는 K-IFRS 도입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9) 참고로 우리나라 이외에도 공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인 국가는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아이슬란드 등으로 알려져 있음. 캐나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캐나다 공공부문(공기업 포함) 회계 관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기로 결정. 이는 2011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회계기준(GAAP)이라는 점에서 회계관리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분석 결과에 의하면 K-IFRS 도입 이후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총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금, 총자본 등이 증가하였으나, 총자본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부채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유동비율과 총자산이익률은 감소하였으나, 일부 공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제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무제표의 항목 중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단순한 차이분석만을 수행함

○ 이창우 등(2011 연구보고서)

- 이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인해 2011년 이후의 각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2011년 경영평가 시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향후 준정부기관(2013년부터 IFRS 적용)의 경영평가 시 IFRS 적용방향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됨. 본 연구는 경영평가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극 수용하되, 경영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하며,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각 기관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차이항목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이 연구는 공기업에서 IFRS의 도입이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으며, IFRS의 도입이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준정부기관에게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음

3. 한국 민간기업의 도입 영향 분석

-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한 상장기업의 경우에 IFRS 도입 시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는 것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공적인 IFRS 도입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절에서는 민간기업의 IFRS 도입 시 이슈와 그 영향에 대하여

알아봄¹⁰⁾

- 기존의 우리나라 회계기준(K-GAAP)에서 IFRS로의 전환이 미치는 영향을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미치는 영향, 금융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업종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알아봄

1)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주된 영향은 연결범위 변동, 유·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경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연결범위 변동효과를 제외하면 크지 않음
- 연결범위 변동과 관련하여 IFRS 도입으로 K-GAAP에서는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산 100억원 미만 소규모기업 등이 다수 추가되고, K-GAAP에서 지분율 30% 초과 최대주주로서 연결 대상에 포함하였던 종속기업의 일부가 실질지배력이 없어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전반적으로는 연결 대상 종속기업 수가 증가한 경우가 많음
 - 자본과 손익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가 대규모 회사인 경우가 많아 동사의 자본 및 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에 소규모기업 등의 연결 대상 추가에 따른 효과보다 실질지배력 없는 30% 초과 최대주주인 종속기업의 제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연결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경영성과는 지분법에 의해 지배회사 지분만큼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지배주주지분의 자본 및 당기순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K-GAAP에서 원가로 평가한 토지 등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공정가치 증가분만큼 자본이 증가함. 합병 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K-GAAP에서는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환입하였으나, IFRS에서는 일시에 환입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10)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2010, 2011)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

-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하여 K-GAAP에서는 기말 현재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가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IFRS에서는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급여인상률, 기대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므로 평균근속기간이 길거나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 퇴직금 계상액 증가 및 자본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원가로 평가하던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거나 아파트 분양매출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하여 수익이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음

2) 개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개별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변동요인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나타난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치평가,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경 등과 유사함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회계처리방법이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음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는 큰 변화가 없음. 이는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치평가 등 기준 차이로 인한 금액적 효과가 적게 나타났고,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현행과 같이 지분법을 적용하기 때문임

3) 재무제표 표시방법

- IFRS에서는 기업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계정과목만을 제시하고 있어 2009년과 2010년에 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 IFRS 적용 후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수는 53% 감소, 포괄손익계산서는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IFRS는 관련 정보를 주석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주석의 페이지 수는 대폭(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석사항이 증가한 것은 K-GAAP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환

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등에 대한 관리정책, 환율 등 변동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민감도 분석 등 투자에 유용한 정보가 추가되었기 때문임

4) 금융업종에 미치는 영향

- 금융감독원에서 IFRS를 도입한 17개 금융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은행, 금융지주사는 IFRS 도입영향이 큰 반면 카드, 캐피탈, 부동산신탁사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 IFRS가 금융업종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재무 제표	업종 (자본 증감률 ¹⁾)	주요 영향 요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평가 ²⁾	내용 요약
연결 (9사)	은행(13.3%↑), 금융지주(13.6%↑) (☀)	신종자본증권 자본분류	☀	신종자본증권을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함에 따라 자본 증가
		대손충당금 설정 변경	☀	감독규정상 최소적립기준에서 발생손실모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여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간주원가)	☀	IFRS 최초 채택 시 자산 및 자본 증가
개별 (8사)	카드(☹) (2.7%↑)	대손충당금 설정 변경	☀	대손충당금 적립액 감소로 자본 증가
		미사용약정 충당부채 설정 변경	☀	감독규정상의 설정방법에서 신용환산을 등에 의한 평가모형 적용으로 충당부채 감소
	캐피탈(☹) (2.9%↓)	대손충당금 설정 변경	☹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로 자본 감소
	부동산신탁(☹) (5.6%↑)	대손충당금 설정 변경	☀	대손충당금 적립액 감소로 자본 증가

주: 1) 자본 증감률 = (IFRS 적용후 자본증감액 ÷ K-GAAP에 의한 자본총액) × 100

2) ☀: 긍정적 영향, ☹: 영향이 별로 없거나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름, ☹: 부정적 영향

자료: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2011.

- 신종자본증권 중 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무배당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채권을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은

8.3%, 금융지주는 7.2%의 자본이 증가함

- 주로 감독규정상 최소적립액을 적립하던 방식에서 IFRS에 의한 발생손실모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여 은행은 5.2%, 금융지주사는 4.6%, 카드사는 3.0%, 부동산신탁은 8.7% 자본이 증가함. 다만, 캐피탈사는 6.5% 자본이 감소함
- 그 외에도 유형자산 및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미사용 약정 관련 충당부채 인식방법 변경 등이 영향을 줌

5) 일반업종에 미치는 영향

- 금융감독원에서 IFRS를 도입한 48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종 특성에 따라 IFRS 도입 영향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에너지, 해운, 항공업종은 영향이 큰 반면에 중소기업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3〉 IFRS가 일반업종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재무 제표	업종 (자본 증감률)	주요 영향 요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내용 요약
연결 (5사)	자동차(☹) (5.6%↓)	연결범위 변동	☂	대규모 종속회사 연결제외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간주원가)	☀	IFRS 최초 채택 시 자본 증가
	에너지(☀) (37.3%↑)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간주원가)	☀	IFRS 최초 채택 시 자본 증가
		수익인식기준 변경	☀	전기판매수익을 검침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변경하여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
개별 (43사)	조선(☹) (2.5%↑)	지분법 투자주식의 원가 법 적용	☂	우량자회사 지분법 취소로 인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유형자산 내용연수 증가	☀	감가상각비 감소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
	전자(0.4%↑), 화학(2.7%↓),	지분법 투자주식의 원가 법 적용	☂	우량자회사 지분법 취소로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표 II-3〉의 계속

재무 제표	업종 (자본 증감률)	주요 영향 요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내용 요약
	금속(2.9%↑) (☹)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간주원가)	☀	IFRS 최초 채택 시 자본 증가
	제약(☹) (2.6%↑)	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에 따른 자본 증가
		퇴직급여채무 회계처리 변경	☹	퇴직급여채무 증가로 자본 및 당기순 이익 감소
	해운(☀) (9.7%↑)	지분법 투자주식의 원가 법 전환	☀	실적이 좋지 않은 자회사 지분법 취소 로 인한 자본 및 당기순이익 증가
		선박 등 내용연수 증가	☀	감가상각비 감소로 자본 및 당기순이 익 증가
	항공(☹) (24.6%↓)	마일리지 회계처리의 변화	☹	마일리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자본 및 당기순이익 감소
		항공기 내용연수 감소	☹	감가상각비 증가로 자본 및 당기순이 익 감소
	통신(☹) (0.5%↑)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간주원가)	☀	IFRS 최초 채택 시 자본 증가
		가입비 수익 이연 인식	☹	수익인식 이연으로 자본 및 당기순이 익 감소
		영업권 상각 중지	☀	영업권 상각비 감소로 자본 및 당기순 이익 증가
	유통(☹) (2.4%↓)	유형자산 내용연수 감소	☹	감가상각비 증가로 자본 및 당기순이 익 감소
	식료(☹) (4.7%↑)	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	정률법에서 정액법 변경에 따른 자본 증가
	중소기업(☹) (1.2%↓)	중요 요인 없음	☹	10사 평균 자본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 는 영향이 1% 정도로 나타났으나, 일 부회사의 경우 포인트 회계처리 변경 에 따라 자본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하 는 등 기업별 편차가 큼

자료: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2011.

-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연결범위의 변동이 주된 이슈가 됨. K-GAAP에서는 30% 초
과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 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으나, IFRS에서는 50% 초과 소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결 대상에서 제외됨. K-GAAP에서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던 자산 100억원 미만 기업과 특수목적기업(SPE) 등이 연결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어 자동차 업종은 9.5% 자본이 감소하고 에너지는 1.4% 자본이 증가함

- 개별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원가법 전환이 주된 이슈가 됨. IFRS에서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을 지분법 대신 원가법으로 평가함에 따라 종속·관계회사의 경영실적이 미반영됨. 이로 인해 조선업은 4.9%, 화학업은 4.6%, 전자업은 1.4% 자본이 감소하고, 해운업은 4.9% 자본이 증가함
-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주된 이슈가 됨. IFRS 전환일(2010년 1월 1일)의 자산재평가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액을 사용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함. 에너지 39.8%, 자동차 4.9%, 화학 3.1%, 금속 3.3%, 통신 3.5% 자본이 증가함
- 수익인식기준의 변경도 중요한 이슈가 됨. 항공은 K-GAAP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시 수령한 대가를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고 보상이 예상되는 마일리지 원가를 보상비와 충당부채로 계상한 반면, IFRS에서는 마일리지 공정가치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이연매출(부채)로 처리함에 따라 수익이 감소함. 통신은 일시에 인식하던 가입비 수익을 가입기간 동안 분할 인식함에 따라 수익이 감소함. 에너지는 전력공급에 따른 수익인식을 검침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수익이 증가함. 이를 통해 항공은 20.6%, 통신은 4.5% 자본이 감소하고 에너지는 2.4% 자본이 증가함
-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이슈가 됨. K-GAAP에서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대부분 정률법을 적용하였으나, IFRS 도입 후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 현상이 됨. 식료는 6.6%, 제약은 3.6% 자본이 증가함
- 유형자산 내용연수의 변경이 이슈가 됨. K-GAAP에서는 대부분 세법상 내용연수를 사용해 왔지만, IFRS에서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여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증가함. 이를 통해 해운 3.0%, 조선 2.8% 자본이 증가함

하고, 항공 3.5%, 유통 0.9% 자본이 감소함

- 그 외에도 영업권 상각의 중지와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경 등이 이슈가 됨
- 2010년 IFRS 조기 적용기업의 2009년 K-GAAP에 의한 현금흐름표와 IFRS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개별 현금흐름표의 경우 기초·기말 현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없었으나 영업·투자·재무 등 각 활동별 현금흐름 간에는 차이가 발생함. 연결 현금흐름표의 경우 IFRS 도입에 따른 연결범위 변동으로 기초·기말 현금액이 변경되었으며, 각 활동별 현금흐름도 개별 현금흐름표보다 크게 변동함

4. 공공기관 IFRS 공통 사항¹¹⁾

1) 개관

- IFRS 도입과 관련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친 항목은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 부분이며, practice 차이로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인식시점 변경(근로 제공 시점)도 많은 기관에서 수정 반영되었음
- 이슈별 선택 대안에 있어서 민간기업이 선택한 대안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 부분은 없으나, 일반 민간기업에 비하여 외부자금 조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자산재평가에 대한 관심이 적었음

2) 주요항목별 영향의 유형 구분

- 공공기관의 경우 IFRS 도입에 따른 금액 변경을 수반하는 주요항목으로는 (1) 유형자산 재평가 (2)감가상각방법 변경 (3)계정재분류 (4)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 (5)

11) 개별 기관별 주요 사항은 〈부록1〉에 정리하였음

연결 및 지분법 대상 범위 변경을 들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이슈와 공통되는 항목이 대부분임

- 주요 항목별 영향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한다면 (1) 순수 GAAP Difference에 기인한 사항 (2) 기관 선택사항(IFRS하에서는 폭넓은 선택 가능 대안이 제공되는 바, 기관의 선택에 기인한 영향 발생 항목), (3) 기타(practice 차이의 수정 등)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순수한 GAAP Difference항목으로 대표적인 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보험수리적기법에 의한 평가와 연결범위 변동 부분을 들 수 있으며, 기관 선택사항으로는 자산 재평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임
- 연월차 수당이나 경영평가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은 종래 K-GAAP하에서 기간 귀속이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공기업들에게 공통되는 practice 차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표 II-4〉 IFRS 도입에 따라 회계차이 요인

회계차이 요인의 유형	해당 항목
순수한 GAAP Difference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 연결범위의 변동
기관 선택항목	자산 재평가
기타	유형자산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연월차수당의 인식시점 변경 경영평가수당의 인식시점 변경 계정재분류

가. 순수한 GAAP Difference

(1) 보험수리적 평가

- 종래 청산 개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에서 IFRS는 미래 예상지급액을 보험수리적가정을 통하여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 할인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모든 공공기관들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산정 방식이 변경됨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급여상승률과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과의 관계이며, 급여상승률이 높을수록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은 증가하게 됨
-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의 퇴직급여 관련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공항공사가 5,172억원, 한국전력공사가 3,629억원, 한국철도공사가 1,640억원 증가하였음
- 이와는 달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206억원 정도 감소함

(2) 연결범위 변동 및 지분법

- 종래 K-GAAP하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연결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IFRS하에서는 예외 없이 연결 대상이 되므로 이와 관련한 변동이 GAAP 차이로 나타나게 됨
- 공공기관의 경우 이러한 영향을 받은 공기업은 자회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그다지 많은 공공기관이 이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상황임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상 원가법이 적용되면서 지분법 이익 1.7조원이 계상되지 않게 됨에 따라 자산이 감소함. 한국석유공사도 비례연결대상회사와 관련하여 자산 4,817억원, 부채 2,841억원이 감소하였음

나. 기관 선택항목

- IFRS하에서는 회계처리의 선택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항목이 유형자산의 간주원가 인정 부분임. 공공기관은 최초 도입시점에서 유형자산을 재평가하고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로 이후 원가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나쁜 민간기업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상당부분 부채비율의 개선효과를 가져온 바 있음

(1) 유형자산 재평가

- 유형자산 재평가는 전환일 시점의 자산을 증가 내지 감소시키며,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의 인식 여부에 따라 부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이후 증감된 자산이 감가상각비의 변경을 가져옴.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무상태표 영향은 다음과 같음

〈표 II-5〉 IFRS 전환일 자산재평가 효과

(단위: 억원)

기관명	자산증감	부채증감	자본증감
한국가스공사	(+)24,774	(+)5,479	(+)19,295
한국남동발전(주)	(+)14,114	(+)2,760	(+)11,354
한국서부발전	(+)8,784		(+)8,784
한국석유공사	(+)5,029	(+)1,106	(+)3,922
한국수자원공사	(+)1,613		(+)1,613
한국전력공사	(+)108,923	(+)24,112	(+)84,811
한국중부발전(주)	(+)8,987	(+)2,017	(+)6,970
한국지역난방공사	(+)4,012	-	(+)4,012
한국토지주택공사	(+)62,514		(+)62,514
한국동서발전(주)	(+)13,377		(+)10,402
한국철도공사	(-)17,588		(-)17,588
한국수력원자력	(+)54,941		(+)54,941

- 유형자산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한국전력공사는 자산이 10.9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3조원, 한국수력원자력은 5.5조원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자산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는 철도차량 재평가 과정에서 1.8조원의 자산 감소가 발생함

다. 기타

(1)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변경

- 실무적으로 세법에 따른 정률법 상각이 정액법 상각으로 변경되고, 실질 내용연수 적용에 따라 내용연수의 증감이 발생함

- 한국공항공사는 기계, 차량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영향으로 자산이 1.8조원 증가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던 광구에 대하여 상각률 기준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자산이 4,591억원 증가하였음

(2) 계정 재분류

- 계정 재분류 항목 중 영향이 가장 큰 항목은 자산 차감으로 회계처리하던 공사부담금을 부채로 계상함으로 인한 영향이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이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6.8조원 증가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자산 차감으로 표시하던 기금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하면서 자산 및 부채가 약 1.6조원 증가하였음
- 계정재분류는 계정과목 간 이동을 의미할 뿐 경제적 실질 및 자산, 부채 장부가액 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연월차수당 및 경영평가 성과급

- 연월차수당의 경우 근로 제공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통상 지급시점에 비용처리하거나 지급이 확정된 시점에 미지급금 처리함으로써 practice상 기간 귀속의 왜곡이 존재하였으며,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IFRS 도입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전 공공기관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Ⅲ. 공공기관의 재무정보 분석

1. 분석 대상 기관의 개요

- 분석 대상이 되는 기관은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한 총 27개 공기업(10개 공기업1과 17개 공기업2)임
- 분석 대상이 되는 27개 기관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자산의 경우 IFRS에 의한 공기업 전체의 평균자산은 16,491,642백만원이고 공기업1의 평균자산은 38,805,372백만원인 반면에 공기업2의 평균자산은 5,008,354백만원으로서 공기업1이 공기업2의 약 7.7배 수준임. 공기업1과 공기업2 모두 K-GAAP에 의하는 경우에 비해 IFRS에 의하는 경우의 평균자산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부채의 경우 IFRS에 의한 공기업 전체의 평균부채는 10,387,152백만원이고 공기업1의 평균부채는 24,479,578백만원인 반면에 공기업2의 평균부채는 2,097,491백만원으로서 공기업1이 공기업2의 약 11.7배 수준임. 공기업1의 평균자산은 공기업2의 평균자산의 7.7배인 반면에 평균부채는 11.7배로서 공기업2에 비해 공기업1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공기업1과 공기업2 모두 K-GAAP에 의하는 경우에 비해 IFRS에 의하는 경우의 평균부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자본의 경우 IFRS에 의한 공기업 전체의 평균자본은 7,126,166백만원이고 공기업1의 평균자본은 14,325,794백만원인 반면에 공기업2의 평균자본은 2,891,091백만원으로서 공기업1이 공기업2의 약 4.9배 수준임. 공기업2에 비해 공기업1이 평균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평균자본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임. 공기업1과 공기업2 모두 K-GAAP에 비해 IFRS를 적용하는 경우의 평균자본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표 Ⅲ-1〉 분석 대상 기관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

(단위: 백만원)

기관명	자산		부채		자본	
	K-GAAP	K-IFRS	K-GAAP	K-IFRS	K-GAAP	K-IFRS
인천국제공항공사	9,485,660	7,677,752	3,187,717	3,225,124	4,621,871	4,452,628
한국가스공사	24,292,411	29,174,136	18,995,531	21,915,892	5,296,880	7,258,244
한국공항공사	2,630,179	2,648,706	232,503	253,448	2,397,676	2,395,258
한국도로공사	47,172,516	47,851,898	22,854,732	23,566,520	24,317,783	24,285,378
한국석유공사	22,347,368	19,892,537	12,343,642	9,561,611	10,003,726	10,330,926
한국수자원공사	18,484,425	18,636,158	7,960,714	8,084,708	10,523,710	10,551,450
한국전력공사	74,398,204	92,299,168	33,351,057	44,189,705	41,047,147	48,109,463
한국지역난방공사	3,339,356	3,823,490	2,250,314	2,423,881	1,089,043	1,399,609
한국철도공사	19,812,279	18,210,321	9,657,975	10,134,638	10,154,304	8,075,683
한국토지주택공사	147,903,088	147,839,550	125,469,224	121,440,248	22,433,864	26,399,302
공기업1 평균	36,986,548	38,805,372	23,630,341	24,479,578	13,188,600	14,325,794
대한석탄공사	713,340	606,462	1,305,832	1,314,574	(592,492)	(708,112)
대한주택보증	5,619,949	5,603,057	1,941,605	887,370	3,678,344	4,379,555
부산항만공사	4,768,641	4,805,977	1,427,284	1,436,720	3,341,357	3,369,258
인천항만공사	2,320,543	2,321,819	242,671	242,837	2,077,872	2,078,982
제주국제개발센터	598,340	595,550	279,580	290,376	318,760	305,175
한국감정원	385,496	395,309	342,003	347,978	43,493	47,332
한국광물자원공사	2,396,313	2,474,302	1,482,970	1,549,754	913,343	924,548
한국남동발전	5,478,992	6,854,139	3,072,862	3,379,133	2,406,130	3,475,006
한국남부발전	5,009,598	5,962,764	2,381,801	2,589,727	2,627,797	3,373,038
한국동서발전	4,519,248	5,686,199	1,769,556	2,040,484	2,749,692	3,645,714
한국마사회	2,373,945	2,383,355	313,621	322,055	2,060,324	2,061,300
한국방송진흥공사	997,400	1,001,838	654,896	661,467	342,504	340,371
한국서부발전	4,498,629	5,369,370	1,931,841	2,130,771	2,566,788	3,238,599
한국수력원자력	30,245,144	34,678,397	15,398,900	15,609,917	14,846,244	19,068,480
한국조폐공사	355,987	374,265	55,005	82,020	300,982	292,246
한국중부발전	5,127,294	6,029,220	2,548,963	2,772,158	2,578,332	3,257,063
관광공사	1,012,503	894,602	301,867	313,297	710,635	581,305
공기업2 평균	4,435,815	5,008,354	2,067,611	2,097,491	2,368,204	2,891,091
공기업 전체평균	16,491,642	17,525,768	10,053,807	10,387,152	6,375,758	7,126,166

- 분석 대상이 되는 27개 기관의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매출액의 경우 IFRS에 의한 공기업 전체의 평균매출액은 5,030,210백만원이고, 공기업 1의 평균 매출액은 9,687,687백만원인 반면에 공기업2의 평균 매출액은 2,290,517백만원으로서 공기업1이 공기업2의 약 4.2배 수준임. K-GAAP에 의하는 경우에 비해 공기업1의 IFRS 평균매출액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기업2의 IFRS 평균 매출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감소하고 있음
- 영업이익의 경우 IFRS에 의한 공기업 전체의 평균영업이익은 291,189백만원이고 공기업1의 평균영업이익은 411,652백만원인 반면에 공기업2의 평균영업이익은 220,328백만원으로서 공기업1이 공기업2의 약 1.9배 수준임. K-GAAP에 의하는 경우에 비해 공기업1의 IFRS 평균영업이익은 대폭 증가(K-GAAP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해 IFRS에 의한 영업이익이 1.5배임)한 반면에 공기업2의 IFRS 평균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
 - 공기업1의 평균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 K-GAAP에 의한 영업이익 215,555백만원에서 IFRS에 의한 영업이익 1,059,924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한국전력의 경우에 K-GAAP에 의한 영업손실 1,787,482백만원에서 IFRS에 의한 영업손실 1,312,517백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 당기순이익의 경우 IFRS에 의한 공기업 전체의 평균당기순이익은 110,040백만원이고 공기업1의 평균당기순이익은 57,768백만원인 반면에 공기업2의 평균당기순이익은 140,788백만원으로서 공기업1이 공기업2의 약 41.0% 수준임. K-GAAP에 의하는 경우에 비해 공기업1의 IFRS 평균당기순이익은 대폭 감소(K-GAAP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해 IFRS에 의한 영업이익이 32.2% 수준임)하였으나 공기업2의 IFRS 평균당기순이익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균영업이익은 공기업1이 공기업2보다 많지만, 평균당기순이익은 공기업2가 공기업1보다 많음
 - 공기업1의 IFRS 평균당기순이익이 적은 것은 한국전력의 경우에 K-GAAP에 의한 당기순손실 64,421백만원에서 IFRS에 의한 당기순손실 1,478,227백만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¹²⁾

〈표 Ⅲ-2〉 분석 대상 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기관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K-GAAP	K-IFRS	K-GAAP	K-IFRS	K-GAAP	K-IFRS
인천국제공항공사	1,286,011	1,324,613	533,245	559,020	324,181	310,580
한국가스공사	22,611,376	22,611,376	831,479	912,984	206,216	250,381
한국공항공사	485,397	488,517	62,270	74,584	57,654	63,304
한국도로공사	3,307,668	7,026,663	979,949	1,055,010	66,366	67,390
한국석유공사	2,533,664	1,722,162	659,410	485,047	211,396	162,936
한국수자원공사	2,144,750	6,399,217	229,439	264,406	142,104	150,780
한국전력공사	39,189,662	39,291,282	(1,787,482)	(1,312,517)	(61,421)	(1,478,227)
한국지역난방공사	1,437,464	1,437,464	135,929	148,794	95,845	107,657
한국철도공사	3,682,509	3,666,038	892,705	869,270	380,760	411,698
한국토지주택공사	11,426,855	12,909,536	215,555	1,059,924	373,326	531,185
공기업1 평균	8,810,536	9,687,687	275,250	411,652	179,643	57,768
대한석탄공사	239,278	190,677	(12,458)	(42,575)	(47,998)	(79,743)
대한주택보증	846,960	767,926	415,132	(119,710)	550,651	(64,745)
부산항만공사	244,442	244,442	126,491	161,948	76,926	69,899
인천항만공사	73,982	73,982	8,452	4,384	2,536	3,566
제주국제개발센터	318,650	326,719	75,457	69,993	41,942	48,097
한국감정원	104,666	104,385	3,308	3,181	2,887	2,676
한국광물자원공사	166,213	211,150	22,055	17,908	23,038	23,339
한국남동발전	4,129,199	4,129,199	400,240	484,977	296,883	302,830
한국남부발전	5,119,348	5,119,348	271,091	312,518	188,092	206,811
한국동서발전	4,447,269	4,447,222	318,490	193,763	241,571	119,475
한국마사회	7,576,780	7,577,750	288,896	333,088	310,164	323,758
한국방송진흥공사	319,447	312,404	17,225	19,676	17,436	18,245
한국서부발전	4,571,790	4,571,790	294,978	275,218	246,265	220,112
한국수력원자력	5,829,582	5,829,582	1,471,659	1,760,199	998,509	1,031,008
한국조폐공사	355,265	355,265	7,067	25,644	3,524	16,771
한국중부발전	4,675,751	4,676,949	216,791	245,369	130,188	151,292
관광공사	414,104	414,104	2,060	824	177,489	197,519
공기업2 평균	2,295,213	2,290,517	230,875	220,328	181,330	140,788
공기업 전체평균	4,708,296	5,030,210	247,310	291,189	180,705	110,040

- 12) 한국전력의 경우 영업손실의 감소는 수익인식기준의 변경(검침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와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연장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기인하며 당기순손실의 대폭 증가는 별도 재무제표에 자회사의 지분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이전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2. 분석 대상 재무제표와 공공기관 유형분류

- 2011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부터 IFRS를 적용하게 된 26개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주요 재무비율 및 재무수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 분석이 가능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2개의 세트임
 - 2009년 12월 31일 K-GAPP 재무상태표와 전환기준일인 2010년도 1월1일 K-IFRS 재무상태표
 - 2010년도 감사보고서에 공시한 K-GAPP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비교목적으로 공시한 K-IFRS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상태표의 수치 및 이들 간의 비율에 대한 영향은 위의 2009년과 2010년도 두 개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함
- 수익, 비용 등 손익계산서의 수치 및 이를 활용한 비율에 대한 영향은 2010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함

〈표 III-3〉 분석 대상 재무제표

	2009년		2010년		2011년	
	K-GAPP	K-IFRS	K-GAPP	K-IFRS	K-GAPP	K-IFRS
재무상태표	작성	작성	작성	작성	미작성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미작성	작성	작성	미작성	작성

- 공기업은 그 설립 목적과 주된 수행 업무에 따라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공기업과 에너지/자원과 관련한 공기업, 그리고 기타 공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각 유형별로 시설투자규모 및 상대적 비중, 재원조달방법, 수익성 등 주요한 재무적 특성이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공기업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표 Ⅲ-4〉 분석 대상 공기업의 유형구분

구분	공기업
SOC(7개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자원 (12개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타(8개사)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에너지 또는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미진하여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3. 공공기관 유형별 재무비율의 검토

- 공공기관 유형별로 주요 재무비율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유동비율

-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의 유동부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관의 단기부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 기업의 경우 20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를 ‘2대 1의 원칙(two to one rule)’이라 함.

- 유동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IFRS 도입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비용인식 시점이 지급시점에서 근로제공 시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동비율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전년도 경영성과에 근거한 성과급이 차년도에 지급되고 그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 하던 것을 근로제공 시점으로 비용인식 시점을 변경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경영평가 결과가 향상되어 지급할 성과급이 증가하는 경우 유동부채가 증가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유동부채가 감소하게 될 것임

- 또한 과거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시 세법과 회계 관행에 따르던 것에서 수 취채권에 대한 손상검토 시 개별적으로 발생 여부를 검토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액에 차이가 나고 궁극적으로 유동자산 금액의 변화가 초래됨

가. SOC 유형

- SOC 유형의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유동비율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III-5〉 SOC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유동비율 변화

(단위: %)

기관명	2009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부산항만공사	109.42	89.74	(-)19.67	(-)17.98	49.15	48.60	(-)0.55	(-)1.13
인천국제공항공사	15.07	12.86	(-)2.20	(-)14.61	31.54	30.39	(-)1.16	(-)3.66
인천항만공사	249.36	240.13	(-)9.23	(-)3.70	279.29	268.83	(-)10.47	(-)3.75
한국공항공사	352.81	303.96	(-)48.85	(-)13.85	308.19	272.20	(-)35.99	(-)11.68
한국도로공사	24.74	25.61	(+)0.87	(+)3.52	4.63	6.76	(+)2.14	(+)46.20
한국철도공사	72.52	76.10	(+)3.58	(+)4.93	78.81	74.70	(-)4.11	(-)5.21
한국토지주택공사	271.50	282.07	(+)10.57	(+)3.89	262.13	283.00	(+)20.87	(+)7.96

-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의 근로제공 시점 비용 인식으로 인하여 약 160억원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유동비율이 크게 악화되었음
- 인천국제공항과 도로공사의 경우 다음에 다룰 부채비율은 100% 미만으로 재정건전 성이 양호하지만 유동비율은 30% 미만으로 매우 낮는데 이는 공항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조달한 사채의 만기가 매년 도래함에 따라 유동성장기부채가 거액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나. 에너지/자원 유형

○ 에너지/자원 유형의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유동비율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Ⅲ-6〉 Energy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유동비율 변화

(단위: %)

기관명	2009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한국가스공사	132.01	128.23	(-)3.78	(-)2.86	140.19	135.61	(-)4.58	(-)3.27
한국광물자원공사	69.56	88.78	(+)19.23	(+)27.64	496.65	595.22	(+)98.57	(+)19.85
한국남동발전	71.72	75.71	(+)3.99	(+)5.57	63.41	102.36	(+)38.94	(+)61.41
한국남부발전	94.03	88.18	(-)5.84	(-)6.22	87.69	90.30	(+)2.61	(+)2.98
한국동서발전	114.39	111.72	(-)2.67	(-)2.34	114.86	141.79	(+)26.93	(+)23.45
한국서부발전	88.15	84.36	(-)3.79	(-)4.30	106.60	134.84	(+)28.24	(+)26.49
한국석유공사	198.07	83.73	(-)114.34	(-)57.73	115.26	34.63	(-)80.63	(-)69.96
한국수력원자력	673.90	558.53	(-)115.37	(-)17.12	904.19	656.97	(-)247.22	(-)27.34
한국수자원공사	105.80	396.26	(+)290.46	(+)274.5	129.93	315.19	(+)185.26	(+)142.58
한국전력공사	53.38	51.81	(-)1.57	(-)2.94	56.62	52.29	(-)4.33	(-)7.64
한국중부발전	110.61	94.96	(-)15.65	(-)14.15	79.29	117.56	(+)38.27	(+)48.27
한국지역난방공사	86.03	82.11	(-)3.92	(-)4.56	80.96	77.92	(-)3.04	(-)3.75

○ 한국석유공사는 민간사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 순액표시로 유동 금융자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비유동 금융부채가 감소면서 유동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수력원자력은 연차수당 및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의 부채계상(1,611억원) 영향으로 유동비율이 악화됨

○ 이에 반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정 재분류 영향으로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2.1조원 수준)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됨

- 에너지/자원 유형 공기업의 경우 SOC 유형에 비하여 유동비율의 증(감)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기관의 특성과 금액적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 SOC나 에너지/자원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유동비율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Ⅲ-7〉 기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유동비율 변화

(단위: %)

기관명	2009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대한석탄공사	21.22	20.59	(-)0.63	(-)2.95	18.99	18.83	(-)0.17	(-)0.89
대한주택보증	유동/비유동 구분이 불분명							
제주국제개발센터	1,419.17	695.70	(-)723.47	(-)50.98	499.42	428.26	(-)71.16	(-)14.25
한국감정원	112.90	113.23	(+)0.32	(+)0.29	111.61	113.00	(+)1.39	(+)1.24
한국마사회	441.50	444.29	(+)2.79	(+)0.63	425.86	430.33	(+)4.47	(+)1.05
한국방송진흥공사	111.72	111.16	(-)0.55	(-)0.50	118.21	117.86	(-)0.35	(-)0.29
한국조폐공사	136.56	91.55	(-)45.02	(-)32.96	276.37	147.57	(-)128.80	(-)46.60
한국관광공사	183.43	176.60	(-)6.83	(-)3.72	363.98	302.63	(-)61.35	(-)16.86

- 제주국제개발센터의 경우 정부출연금 수입의 분류방법 변경으로 자산 차감이 발생하고 토지분양매출의 수익인식 변경으로 매출채권이 감소하고 매입채무는 증가하는 영향 등으로 유동비율이 악화되었는바, 유동부채 금액이 적은 상황이어서 변경 효과가 크게 나타남

2)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며, 타인자본의 의

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관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냄. 100% 이하가 이상적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므로 지불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큼

○ 부채비율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가. SOC 유형

○ SOC 유형의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부채비율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부산항만과 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5개의 공기업이 IFRS 채택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표 Ⅲ-8〉 SOC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부채비율 변화

(단위: %)

기관명	2009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부산항만공사	39.78	39.53	(-)0.25	(-)0.64	42.72	42.64	(-)0.07	(-)0.17
인천국제공항공사	84.89	88.00	(+)3.11	(+)3.67	68.97	72.43	(+)3.46	(+)5.02
인천항만공사	5.17	5.17	(+)0.00	(+)0.04	11.68	11.68	(+)0.00	(+)0.02
한국공항공사	9.90	10.66	(+)0.76	(+)7.70	9.70	10.58	(+)0.88	(+)9.12
한국도로공사	93.69	97.25	(+)3.56	(+)3.80	93.98	97.04	(+)3.06	(+)3.25
한국철도공사	88.82	116.99	(+)28.16	(+)31.71	95.11	125.50	(+)30.38	(+)31.95
한국토지주택공사	524.50	433.64	(-)90.85	(-)17.32	559.28	460.01	(-)99.27	(-)17.75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전환일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 대상인 철도차량의 재평가액이 1조 7천억원 감액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악화되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6조 3,500억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토지 수익인식 기준 변경에 따른 선수금 감소(5.9조원)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됨

나. 에너지/자원 유형

○ 에너지/자원 유형의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부채비율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III-9〉 에너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부채비율 변화

(단위: %)

기관명	2009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한국가스공사	344.35	298.10	(-)46.25	(-)13.43	358.62	301.94	(-)56.67	(-)15.80
한국광물자원공사	120.20	135.74	(+)15.54	(+)12.93	162.37	167.62	(+)5.26	(+)3.24
한국남동발전	137.18	100.99	(-)36.19	(-)26.38	127.71	97.24	(-)30.47	(-)23.86
한국남부발전	86.51	73.12	(-)13.39	(-)15.48	90.64	76.78	(-)13.86	(-)15.29
한국동서발전	75.11	61.95	(-)13.16	(-)17.52	64.35	55.97	(-)8.39	(-)13.03
한국서부발전	90.36	75.64	(-)14.72	(-)16.29	75.26	65.79	(-)9.47	(-)12.58
한국석유공사	101.45	64.89	(-)36.56	(-)36.04	123.39	92.55	(-)30.84	(-)24.99
한국수력원자력	96.89	76.04	(-)20.86	(-)21.52	103.72	81.86	(-)21.86	(-)21.08
한국수자원공사	29.14	30.03	(+)0.89	(+)3.05	75.65	76.62	(+)0.98	(+)1.29
한국전력공사	70.33	79.13	(+)8.80	(+)12.51	81.25	91.85	(+)10.60	(+)13.05
한국중부발전	118.98	100.32	(-)18.66	(-)15.68	98.86	85.11	(-)13.75	(-)13.91
한국지역난방공사	233.71	177.96	(-)55.74	(-)23.85	206.63	173.18	(-)33.45	(-)16.19

○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자산재평가를 통한 간주원가의 적용에 따른 잉여금 증가가 부채비율 개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석유공사도 전환일에 토지에 대해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부채비율 대폭 향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종전 기준에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민간사에 대여하는 차입금과 관련한 대여금을 총액으로 표시하던 것을, IFRS에서는 해당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순액으로 표시한 것임

- 자산과 부채가 대폭 감소하고 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액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2.5조 원 및 2.4조원이었음

- 이외에도 석유공사는 기능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변경함에 따른 자본의 증가효과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700억원과 950억원씩 발생하였음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 부채비율의 개선 폭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10 회계연도부터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던 공사부담금을 이연수익(부채)로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장부상 부채가 940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구축물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산재평가로 무려 2조 4,800억 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¹³⁾ 가스운반선의 용선료가 과거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변경됨에 따라 2조 5천억원의 금융리스부채가 증가하여 부채비율의 개선 효과가 희석되었음

다. 기타

○ SOC나 에너지/자원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부채비율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Ⅲ-10〉 기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부채비율 변화

(단위: %)

기관명	2009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대한석탄공사	(230.10)	(192.94)	(+)37.16	(-)16.15	(220.40)	(185.64)	(+)34.75	(-)15.77
대한주택보증	69.36	27.41	(-)41.95	(-)60.48	52.78	20.26	(-)32.52	(-)61.61
제주국제개발센터	64.68	79.26	(+)14.58	(+)22.54	87.71	95.15	(+)7.44	(+)8.48
한국감정원	867.94	780.33	(-)87.61	(-)10.09	786.35	735.19	(-)51.16	(-)6.51
한국마사회	18.68	18.96	(+)0.28	(+)1.50	15.22	15.62	(+)0.40	(+)2.64
한국방송진흥공사	196.97	201.27	(+)4.30	(+)2.18	191.21	194.34	(+)3.13	(+)1.64
한국조폐공사	25.65	37.82	(+)12.17	(+)47.45	18.28	28.07	(+)9.79	(+)53.57
한국관광공사	68.54	92.90	(+)24.36	(+)35.54	42.48	53.90	(+)11.42	(+)26.88

13) 자산재평가 전 장부가액은 4조 6,800억원으로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52.4%의 장부가액 증가를 이루었음.

-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보증부채 설정 대상 및 방법의 변경으로 보증부채가 7,253억원 감소함
- 이에 반하여 한국조폐공사는 연차수당, 성과급에 대한 근로제공연도 귀속 영향(261억원)으로 부채가 증가
- 한국관광공사는 종속기업 주식 관련 지분법 이익 미인식에 따른 자본감소(1,504억원)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악화됨
- 한국감정원의 경우, 부채비율이 70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시설공단과의 보상 수탁계약에 따른 보상비 예수금 3천억원 등 거액의 비금융부채에 의한 것으로 이는 토지 보상이 진행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배분될 금액으로 기관의 재무건전성과는 무관한 것임
- 경영평가 성과급의 비용인식 시점 변경으로 1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지만, 용역 제공 수익인식 기준 변경으로 자본이 83억원 증가하고, 소송충당부채 중 부채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470억원을 기타법정적립금으로 분류 변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3)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상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음

- 자기자본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text{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 \times 100$$

-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는 자산금액과 동시에 자본금액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채비율과는 달리 자기자본비율에는 영향이 없음

가. SOC 유형

○ SOC 유형의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자기자본비율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Ⅲ-11〉 SOC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자기자본비율 변화

(단위: %)

기관명	2009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부산항만공사	71.54	71.67	(+)0.13	(+)0.18	70.07	70.11	(+)0.04	(+)0.05
인천국제공항공사	54.09	53.19	(-)0.90	(-)1.66	59.18	57.99	(-)1.19	(-)2.01
인천항만공사	95.09	95.08	(-)0.00	(-)0.00	89.54	89.54	(-)0.00	(-)0.00
한국공항공사	90.99	90.37	(-)0.63	(-)0.69	91.16	90.43	(-)0.73	(-)0.80
한국도로공사	51.63	50.70	(-)0.93	(-)1.81	51.55	50.75	(-)0.80	(-)1.55
한국철도공사	52.96	46.09	(-)6.87	(-)12.98	51.25	44.35	(-)6.91	(-)13.47
한국토지주택공사	16.01	18.74	(+)2.73	(+)17.02	15.17	17.86	(+)2.69	(+)17.73

나. 에너지/자원 유형

○ 에너지/자원 유형의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자기자본비율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Ⅲ-12〉 에너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자기자본비율 변화

(단위: %)

기관명	2009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한국가스공사	22.50	25.12	(+)2.61	(+)11.62	21.80	24.88	(+)3.07	(+)14.10
한국광물자원공사	45.41	42.42	(-)2.99	(-)6.59	38.11	37.37	(-)0.75	(-)1.96
한국남동발전	42.16	49.75	(+)7.59	(+)18.01	43.92	50.70	(+)6.78	(+)15.45
한국남부발전	53.62	57.76	(+)4.15	(+)7.73	52.46	56.57	(+)4.11	(+)7.84
한국동서발전	57.11	61.75	(+)4.64	(+)8.13	60.84	64.12	(+)3.27	(+)5.38
한국서부발전	52.53	56.93	(+)4.40	(+)8.38	57.06	60.32	(+)3.26	(+)5.71
한국석유공사	49.64	60.65	(+)11.01	(+)22.17	44.76	51.93	(+)7.17	(+)16.01

〈표 III-12〉의 계속

(단위: %)

기관명	2009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한국수력원자력	50.79	56.81	(+)6.02	(+)11.85	49.09	54.99	(+)5.90	(+)12.02
한국수자원공사	77.44	76.91	(-)0.53	(-)0.68	56.93	56.62	(-)0.31	(-)0.55
한국전력공사	58.71	55.83	(-)2.88	(-)4.91	55.17	52.12	(-)3.05	(-)5.53
한국중부발전	45.67	49.92	(+)4.25	(+)9.31	50.29	54.02	(+)3.73	(+)7.43
한국지역난방공사	29.97	35.98	(+)6.01	(+)20.05	32.61	36.61	(+)3.99	(+)12.24

다. 기타

○ SOC나 에너지/자원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자기자본비율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III-13〉 기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자기자본비율 변화

(단위: %)

기관명	2009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대한석탄공사	(76.86)	(107.60)	(-)30.74	(+)39.99	(83.06)	(116.76)	(-)33.70	(+)40.58
대한주택보증	59.05	83.42	(+)24.37	(+)41.28	65.45	78.16	(+)12.71	(+)19.42
제주국제개발센터	60.72	55.78	(-)4.94	(-)8.13	53.27	51.24	(-)2.03	(-)3.81
한국감정원	10.33	11.36	(+)1.03	(+)9.95	11.28	11.97	(+)0.69	(+)6.13
한국마사회	84.26	84.06	(-)0.20	(-)0.24	86.79	86.49	(-)0.30	(-)0.35
한국방송진흥공사	33.67	33.19	(-)0.48	(-)1.43	34.34	33.97	(-)0.37	(-)1.06
한국조폐공사	79.59	72.56	(-)7.03	(-)8.83	84.55	78.09	(-)6.46	(-)7.64
한국관광공사	59.33	51.84	(-)7.49	(-)12.63	70.19	64.98	(-)5.21	(-)7.42

4) 매출액순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매출액순이익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text{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가. SOC 유형

○ SOC 유형의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매출액순이익률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Ⅲ-14〉 SOC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매출액순이익률 변화

(단위: %)

기관명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부산항만공사	31.47	28.60	(-)2.87	(-)9.13
인천국제공항공사	25.21	23.45	(-)1.76	(-)6.99
인천항만공사	3.43	4.82	(+)1.39	(+)40.65
한국공항공사	11.88	12.96	(+)1.08	(+)9.10
한국도로공사	2.01	0.96	(-)1.05	(-)52.20
한국철도공사	10.34	11.23	(+)0.89	(+)8.61
한국토지주택공사	3.27	4.11	(+)0.85	(+)25.94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관련 매출(3조 5,639억원)이 포함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매출액순이익률이 악화됨

나. 에너지/자원 유형

○ 에너지/자원 유형의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매출액순이익률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III-15〉 에너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매출액순이익률 변화

(단위: %)

기관명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한국가스공사	0.91	1.11	(+)0.20	(+)21.42
한국광물자원공사	13.86	11.05	(-)2.81	(-)20.25
한국남동발전	7.19	7.33	(+)0.14	(+)2.00
한국남부발전	3.67	4.04	(+)0.37	(+)9.95
한국동서발전	5.43	2.69	(-)2.75	(-)50.54
한국서부발전	5.39	4.81	(-)0.57	(-)10.62
한국석유공사	8.34	9.46	(+)1.12	(+)13.40
한국수력원자력	17.13	17.69	(+)0.56	(+)3.25
한국수자원공사	6.63	2.36	(-)4.27	(-)64.44
한국전력공사	(0.16)	(3.76)	(-)3.61	(+)2300.47
한국중부발전	2.78	3.23	(+)0.45	(+)16.18
한국지역난방공사	6.67	7.49	(+)0.82	(+)12.32

- 한국전력공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게 되어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이
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이 1조 4,319억원 더 증가하여 매출액순이익률이
악화됨

다. 기타

- SOC나 에너지/자원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공기업들의 IFRS 도입 전후의 매
출액순이익률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Ⅲ-16〉 기타 공기업의 IFRS 도입 전후 매출액순이익률 변화

(단위: %)

기관명	2010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대한석탄공사	(39.95)	(41.82)	(-)1.87	(+)4.69
대한주택보증	65.01	(8.43)	(-)73.45	(-)112.97
제주국제개발센터	13.16	14.72	(+)1.56	(+)11.84
한국감정원	2.76	2.56	(-)0.19	(-)7.05
한국마사회	4.09	4.27	(+)0.18	(+)4.37
한국방송진흥공사	5.46	5.84	(+)0.38	(+)7.00
한국조폐공사	0.99	4.72	(+)3.73	(+)375.96
한국관광공사	42.86	47.70	(+)4.84	(+)11.28

-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보증손실충당부채의 환입액의 제거(3,711억원) 및 책임준비금 전입(1,085억원)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적자 전환되면서 매출액순이익률이 크게 악화됨
- 한국조폐공사는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의 내용연수 연장에 따른 상각비 절감(163억원)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증가하여 매출액순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원가법 적용으로 233억원의 이익이 더 인식되면서 매출액순이익률이 개선됨

4.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부채 변동

1) 자산변동

가. SOC 유형

- SOC 유형의 공기업들의 2009년, 2010년 말 기준 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음

〈표 III-17〉 SOC 공기업 자산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09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부산항만공사	4,574,999	(-)13,196	(+)53,905	4,615,708
인천국제공항공사	8,040,556	(-)26,827	(-)121,199	7,892,530
인천항만공사	2,184,112	(-)1,265	(+)1,512	2,184,360
한국공항공사	2,568,163	(-)4,037	(+)17,397	2,581,523
한국도로공사	45,155,475	(+)94,448	(+)693,239	45,943,162
한국철도공사	18,610,968	(+)328,089	(-)2,020,703	16,918,354
한국토지주택공사	130,071,004	(-)6,999,789	(+)8,292,402	131,363,616
기관명	2010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부산항만공사	4,768,641	(-)677	(+)38,013	4,805,977
인천국제공항공사	7,809,588	(-)3,885	(-)127,951	7,677,752
인천항만공사	2,320,543	(-)1,545	(+)2,821	2,321,819
한국공항공사	2,630,179	(-)2,003	(+)20,529	2,648,706
한국도로공사	47,172,516	(+)83,292	(+)596,090	47,851,898
한국철도공사	19,812,279	(+)179,300	(-)1,781,258	18,210,321
한국토지주택공사	147,903,088	(-)5,846,652	(+)5,783,114	147,839,550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의 재평가 과정에서 1조 7,588억원의 재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비유동자산이 감소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수익 인식기준이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유동자산이 7조원 정도 감소하였고,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비유동자산이 6.2조원 증가하였음

나. 에너지/자원 유형

- 에너지/자원 유형의 공기업들의 2009년, 2010년 말 기준 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음

〈표 Ⅲ-18〉 에너지 공기업 자산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09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한국가스공사	22,933,499	(+)25,297	(+)4,952,596	27,911,392
한국광물자원공사	1,649,847	(+)93,281	(+)21,558	1,764,686
한국남동발전	5,167,213	(+)36,431	(+)1,321,200	6,524,844
한국남부발전	4,678,678	(-)34,876	(+)968,319	5,612,120
한국동서발전	4,482,234	(-)9,654	(+)1,303,820	5,776,400
한국서부발전	4,481,641	(-)38,265	(+)932,074	5,375,449
한국석유공사	16,966,279	(-)3,134,142	(+)987,477	14,819,614
한국수력원자력	27,447,563	(+)31,980	(+)4,301,512	31,781,055
한국수자원공사	13,277,070	(+)1,683,715	(-)1,518,382	13,442,403
한국전력공사	69,985,451	(+)809,462	(+)18,175,883	88,970,796
한국중부발전	5,462,157	(-)145,121	(+)988,574	6,305,609
한국지역난방공사	2,902,686	(-)9,726	(+)363,693	3,256,652
기관명	2010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한국가스공사	24,292,411	(+)28,637	(+)4,853,089	29,174,136
한국광물자원공사	2,396,313	(+)121,573	(-)43,584	2,474,302
한국남동발전	5,478,992	(+)737,005	(+)638,142	6,854,139
한국남부발전	5,009,598	(+)56,828	(+)896,339	5,962,764
한국동서발전	4,519,248	(+)426,709	(+)740,242	5,686,199
한국서부발전	4,498,629	(+)524,240	(+)346,502	5,369,370
한국석유공사	22,347,368	(-)3,558,684	(+)1,103,853	19,892,537
한국수력원자력	30,245,144	(-)196,922	(+)4,630,175	34,678,397
한국수자원공사	18,484,425	(+)2,114,948	(-)1,963,215	18,636,158
한국전력공사	74,398,204	(+)917,001	(+)16,983,963	92,299,168
한국중부발전	5,127,294	(+)781,461	(+)120,465	6,029,220
한국지역난방공사	3,339,356	(-)6,253	(+)490,387	3,823,490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민간사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을 순액표시하면서 금융자산이 2조 4,287억원 감소하였음
- 한국가스공사는 배관 및 탱크에 대한 자산재평가 및 내용연수 연장에 따른 감가상각비 절감 효과로 2조 4,936억원의 유형자산이 증가하였으며, LNG수송선의 금융리스 전환으로 2조 3,132억원의 자산이 추가 계상됨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자산재평가로 10조 8,624억원, 공사부담금의 이연 인식에 따라 6조 8,303억원, 전력수급계약(PPA)의 리스 처리로 인하여 1조 1,201억원의 자산이 증가함
-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자산재평가 및 관련 이연법인세효과로 4조 4,565억원의 비유동자산이 증가함. 또한,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자산재평가 및 내용연수 변경을 통하여 비유동자산이 증가함
- 전환일에 이러한 재평가를 통한 간주원가를 적용한 기관의 경우 2009년 비유동자산의 증가가 감가상각 등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소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IFRS 전환에 따른 자산 증가가 대부분 토지 재평가를 통한 간주원가 적용(1,613억원)에 기인하나 계정 재분류 영향으로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2010년 기준 2.1조원 수준)함. 즉, 종전 기준에서 매출예정 시점에 따라 미성공사(재고자산)과 장기미성공사(투자자산)로 분류하던 분양토지에 대해서 모두 미성공사(재고자산)로 계정을 통합함

다. 기타

- SOC나 에너지/자원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공기업들의 2009년, 2010년 말 기준 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음

〈표 Ⅲ-19〉 기타 공기업 자산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09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대한석탄공사	740,675	(-)4,905	(-)104,360	631,409
대한주택보증	5,319,520	유동/비유동 구분 안됨		-
제주국제개발센터	455,055	(-)15,665	(+)22,528	461,918
한국감정원	400,125	(+)17,931	(-)7,484	410,572
한국마사회	2,314,196	(-)1,711	(-)4,439	2,308,047
한국방송진흥공사	973,331	(+)5,423	(-)673	978,081
한국조폐공사	374,519	(-)1,827	(+)8,644	381,336
한국관광공사	959,211	(+)43,007	(-)189,018	813,200
기관명	2010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대한석탄공사	713,340	(+)560	(-)107,438	606,462
대한주택보증	5,619,949	유동/비유동 구분 안됨		5,603,057
제주국제개발센터	598,340	(-)60,959	(+)58,170	595,550
한국감정원	385,496	(+)19,766	(-)9,952	395,309
한국마사회	2,373,945	(+)9,775	(-)366	2,383,355
한국방송진흥공사	997,400	(+)5,888	(-)1,450	1,001,838
한국조폐공사	355,987	(-)2,547	(+)20,825	374,265
한국관광공사	1,012,503	(+)7,739	(-)125,640	894,602

- 제주국제개발센터는 토지분양 매출의 경우 진행 기준에서 인도 기준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2009년 말과 2010년 말에 매출채권이 각각 50억원과 73억원 감소함. 또한 2009년 말과 2010년 말에 각각 재고자산 99억원과 53억원이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되어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비유동자산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한국감정원은 용역제공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 변경으로 유동자산이 증가함
- 한국마사회의 경우 2010년 말 100억원의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을 지정하고 이를 비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 기록함

- 한국조폐공사의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연장 변경으로 2010년 말 160억원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증가함
-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종속기업 주식 제거로 약 1,504억원이 감소하면서 비유동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부채변동

가. SOC 유형

- SOC 유형의 공기업들의 2009년, 2011년 말 기준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음

〈표 III-20〉 SOC 공기업 부채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09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부산항만공사	1,302,069	(+)3,008	(+)2,568	1,307,645
인천국제공항공사	3,691,700	(+)12,085	(-)9,374	3,694,410
인천항만공사	107,339	(+)299	(-)248	107,390
한국공항공사	231,268	(+)16,306	(+)1,082	248,655
한국도로공사	21,841,755	(+)258,424	(+)550,848	22,651,027
한국철도공사	8,754,665	(+)339,616	(+)27,075	9,121,356
한국토지주택공사	109,242,832	(-)3,617,179	(+)1,121,600	106,747,253
기관명	2010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부산항만공사	1,427,284	(+)2,913	(+)6,523	1,436,720
인천국제공항공사	3,187,717	(+)9,664	(+)27,743	3,225,124
인천항만공사	242,671	(+)155	(+)12	242,837
한국공항공사	232,503	(+)16,102	(+)4,843	253,448
한국도로공사	22,854,732	(+)230,631	(+)481,157	23,566,520
한국철도공사	9,657,975	(+)351,383	(+)125,280	10,134,638
한국토지주택공사	125,469,224	(-)4,629,493	(+)600,517	121,440,248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리스임대주택 계정이 폐지되고 자산차감항목인 기금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이 부채계상되면서 1조 6,894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 변경으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이 6.2조원 감소하면서 이와 대응되는 선수금 5.9조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부채가 감소함

나. 에너지/자원 유형

- 에너지/자원 유형의 공기업들의 2009년, 2010년말 기준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음

〈표 Ⅲ-21〉 에너지 공기업 부채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09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한국가스공사	17,772,344	(+)214,260	(+)2,913,664	20,900,268
한국광물자원공사	900,582	(+)29,075	(+)86,446	1,016,103
한국남동발전	2,988,632	(+)4,814	(+)285,049	3,278,495
한국남부발전	2,170,102	(+)8,105	(+)192,161	2,370,369
한국동서발전	1,922,604	(+)7,750	(+)279,284	2,209,639
한국서부발전	2,127,309	(-)2,403	(+)190,086	2,314,992
한국석유공사	8,544,305	(-)376,411	(-)2,335,916	5,831,977
한국수력원자력	13,507,169	(+)130,092	(+)90,184	13,727,445
한국수자원공사	2,995,639	(+)78,519	(+)29,954	3,104,112
한국전력공사	28,897,595	(+)1,806,985	(+)8,597,781	39,302,360
한국중부발전	2,967,740	(+)10,752	(+)179,305	3,157,797
한국지역난방공사	2,032,852	(+)17,005	(+)35,175	2,085,033
기관명	2010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한국가스공사	18,995,531	(+)226,287	(+)2,694,073	21,915,892
한국광물자원공사	1,482,970	(+)6,721	(+)60,062	1,549,754
한국남동발전	3,072,862	(+)254,942	(+)51,330	3,379,133
한국남부발전	2,381,801	(+)32,468	(+)175,457	2,589,727

〈표 III-21〉의 계속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0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한국동서발전	1,769,556	(+)152,553	(+)118,375	2,040,484
한국서부발전	1,931,841	(+)228,610	(-)29,679	2,130,771
한국석유공사	12,343,642	(-)199,548	(-)2,582,483	9,561,611
한국수력원자력	15,398,900	(+)159,261	(+)51,755	15,609,917
한국수자원공사	7,960,714	(+)80,804	(+)43,189	8,084,708
한국전력공사	33,351,057	(+)2,459,565	(+)8,379,083	44,189,705
한국중부발전	2,548,963	(+)276,652	(-)53,457	2,772,158
한국지역난방공사	2,250,314	(+)17,669	(+)155,899	2,423,881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LNG 수송선의 금융리스 전환에 따라 금융리스부채가 2조 3,001억원 계상되었고,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가 5,429억원 계상됨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2조 3,897억원, 공사부담금의 이연수익계상 6조 8,303억원의 영향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함
- 이와는 달리,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민간사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을 순액표시하면서 금융부채가 2조 4,287억원 감소함

다. 기타

- SOC나 에너지/자원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공기업들의 2009년, 2010년 말 기준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음

〈표 Ⅲ-22〉 기타 공기업 부채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09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대한석탄공사	1,309,995	(+)4,151	(-)3,339	1,310,807
대한주택보증	2,178,600	-	-	1,223,501
제주국제개발센터	178,730	(+)25,616	(-)103	204,242
한국감정원	358,787	(+)14,929	(-)9,782	363,933
한국마사회	364,331	(-)1,695	(+)5,306	367,941
한국방송진흥공사	645,578	(+)8,047	(-)198	653,428
한국조폐공사	76,451	(+)27,954	(+)236	104,641
한국관광공사	390,086	(+)31,763	(-)30,208	391,642
기관명	2010			
	K-GAAP	유동	비유동	K-IFRS
대한석탄공사	1,305,832	(+)10,716	(-)1,974	1,314,574
대한주택보증	1,941,605	-	-	887,370
제주국제개발센터	279,580	(+)2,958	(+)7,837	290,376
한국감정원	342,003	(+)13,786	(-)7,812	347,978
한국마사회	313,621	(+)248	(+)8,186	322,055
한국방송진흥공사	654,896	(+)6,901	(-)330	661,467
한국조폐공사	55,005	(+)26,094	(+)920	82,020
한국관광공사	301,868	(+)28,444	(-)17,015	313,297

-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보증부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부채가 7,253 억원 감소함
- 한국조폐공사의 유동부채 증가는 연차보상금, 정기보수, 경영평가 성과급 등 종업원 급여 미지급비용의 기간인식 변경에 기인함

5. 주식 공시의 확대

1) 개관

- 일반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IFRS의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할 주식사항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각 공공기관별로 주식사항의 증가에 따라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분량이 크게 증가하였는 바, 보고서 분량은 평균적으로 약 127% 증가하였음
- 실제 IFRS 도입에 따라, 각 기관별로 추가적인 공시가 이루어진 주식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추가된 주식항목이 주로 어떤 항목과 연관되는지를 확인
- 예시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2010년 과거 K-GAAP상의 주식사항과 2011년 K-IFRS에 따른 주식사항을 직접 비교하여 봄으로써 IFRS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

2) 주식공시 증가에 따른 보고서 분량의 변화

- IFRS 도입에 따라 연결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보고서 분량은 약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증가비율이 높지 않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다면 2배 가까이 보고서 분량의 증가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음. IFRS 도입이 공공기관의 보다 충실한 주식 공시를 도모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재무정보 이용자가 더 많은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상 주식공시량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Ⅲ-23〉 IFRS 도입으로 인한 주식공시량의 변동

(단위: 페이지, %)

기관명	2010년 K-GAAP	2011년 K-IFRS	증가	증가비율
부산항만공사	32	66	34	106.25
인천국제공항공사	43	87	44	102.32
인천항만공사	23	82	59	256.52
한국공항공사	30	68	38	126.67
한국도로공사	51	93	42	82.35
한국철도공사	50	120	70	140.00
한국토지주택공사	54	78	24	44.44
한국가스공사	95	141	46	48.42
한국광물자원공사	43	84	41	95.35
한국남동발전	40	75	35	87.50
한국남부발전	34	109	75	220.59
한국동서발전	43	114	71	165.12
한국서부발전	46	99	53	115.22
한국석유공사	44	89	45	102.27
한국수력원자력	58	113	55	94.83
한국수자원공사	40	86	46	115.00
한국전력공사	70	128	58	82.86
한국중부발전	54	107	53	98.15
한국지역난방공사	27	71	44	162.96
대한주택보증	28	62	34	121.43
제주국제개발센터	32	55	23	71.88
한국감정원	21	60	39	185.71
한국마사회	23	68	45	195.65
한국방송진흥공사	20	63	43	215.00
한국조폐공사	23	54	31	134.78
한국관광공사	34	80	46	135.29

3) 공공기관별 추가 주석사항의 검토

- 추가 주석사항은 금융상품 공시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어 있는 IFRS의 특성상 공통적으로 위험관리 및 범주별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이 주석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간략한 표시에 따라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항목의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부분이 보고서 분량의 증가를 가져왔음. 또한, 도입 첫해에 나타나는 K-IFRS으로의 전환 효과 공시도 상당한 분량의 보고서 증가에 영향을 미침
- SOC 공기업의 도로공사, 에너지 공기업의 가스공사, 기타 공기업의 마사회의 주석공시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한국도로공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기타 금융자산
- 비금융자산
-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지배기업
- 투자부동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비금융부채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기타 자본구성요소
- 수익
- 판매비와 관리비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기타이익 및 손실
- 금융수익
- 금융원가
- 매각예정자산
- 비용의 성격적 분류
- 범주별 금융상품
- 위험관리

나. 한국가스공사

- 중요한 회계추정의 가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기타 금융자산
- 비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부채
- 이연수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판매비와 관리비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기타이익 및 손실
- 금융수익
- 금융원가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범주별 금융상품
- 위험관리
- 지출관련약정

다. 한국마사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금융자산 내역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 비금융자산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비금융부채
- 판매관리비 내역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의 차이
- 위험관리

- 기획재정부에서 표준적 주석양식을 제시하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그에 따라 주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추가된 주석사항이 공통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음
- IFRS 도입의 영향으로 추가되는 주석 중 대표적인 것은 (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2) 매출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연령분석 및 신용위험 (3)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인한 퇴직급여 관련 공시 (4)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의 차이 (5) 비용의 성격별 분류 (6) 범주별 금융상품 및 범주별 금융상품 순손익 (7) 위험관리 주석을 들 수 있으며, 매각 예정 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의 경우도 신규 도입되는 내용의 주석에 해당함
- 기타 추가되는 주석사항은 재무제표의 단순화 표시에 따라 각 재무제표의 항목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내용의 주석들(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판매비와 관리비)이 대부분을 차지함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주석사항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수도시설 건설 중인 자산, 댐 건설 중인 자산, 아라뱃길 건설 중인 자산, 지방상수도 건설 중인 자산 및 4대강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사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건설단계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였다는 내용이 추가 공시되었으며,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특별히 기관 특성 반영 주석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표준주석양식을 제시하고 공공기관들이 이에 기초하여 주석을 작성한 데 기인함

4) 한국가스공사의 2010년 K-GAAP 주석사항과 2011년 K-IFRS 주석사항의 비교

- 한국가스공사의 2010년 K-GAAP 주석사항과 2011년 K-IFRS 주석사항의 비교를 통하여 주석사항 증가 및 신규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

가. 별도재무제표

No.	2010년 K-GAAP 주식사항	2011년 K-IFRS 주식사항	추가 여부
1	공사의 개요	당사의 개요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재무제표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 정책	
3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v
4	유가증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v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과 담보제공 금융자산	
6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	
7	천연가스요금 연동제에 의한 채권·채무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8	유형자산	파생상품	
9	금융비용자본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v
10	보험가입자산등	매도가능 금융자산	v
11	무형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v
12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재고자산	
13	사채	기타 금융자산	v
14	장기차입금	비금융자산	v
15	퇴직급여충당부채	종속기업	
16	리스선박 및 리스부채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지배 기업	
17	외화자산 및 부채	유형자산	
18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19	파생상품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v
20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매입채무 및 기타부채	v
21	자본조정	차입금 및 사채	
2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융리스부채	
23	이익잉여금	퇴직급여제도	v
24	법인세비용	이연수익	v
25	주당순이익	비금융부채	
26	배당금	납입자본	

No.	2010년 K-GAAP 주석사항	2011년 K-IFRS 주석사항	추가 여부
27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과 배당금	
28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v
29	재무제표의 사실상의 확정일	기타자본구성요소	
30	부가가치 관련자료	수익	
31	최종 중간기간의 경영성과	판매비와 관리비	v
32	매출액 등의 계절적 변동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v
3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기타이익 및 손실	v
34		금융수익	v
35		금융원가	v
36		계속영업과 관련된 법인세	
37		계속영업이익	
38		비용의 성격별 분류	v
39		주당이익	
40		범주별 금융상품	v
41		위험관리	v
42		특수관계자 거래	
43		비현금거래	
44		지출관련 약정	v
45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나. 연결재무제표

No.	2010년 K-GAAP 주식사항	2011년 K-IFRS 주식사항	추가여부
1	일반적 사항	지배회사의 개요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재무제표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3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v
4	유가증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v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부문정보	
6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과 담보제공 금융자산	
7	연결실체 내 회사 간의 주요거래 등	현금 및 현금성자산	
8	천연가스요금연동제에 의한 채권.채무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9	유형자산 등	파생상품	
10	금융비용자본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v
11	보험가입자산등	매도가능 금융자산	v
12	무형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v
13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재고자산	
14	사채	기타금융자산	v
15	장기차입금	비금융자산	v
16	퇴직급여충당부채	종속기업	
17	리스선박 및 리스부채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지배기업	
18	외화자산 및 부채	유형자산	
19	채권.채무 현재가치 평가	건설계약	
20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21	파생상품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v
22	자본금	매입채무 및 기타부채	v
23	연결자본잉여금	차입금 및 사채	
24	연결자본조정	금융리스부채	
25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퇴직급여제도	v
26	연결이익잉여금	충당부채	
27	주요공사와 용역현황	이연수익	v
28	법인세비용	비금융부채	v

No.	2010년 K-GAAP 주석사항	2011년 K-IFRS 주석사항	추가여부
29	주당순이익	납입자본	
30	배당금	이익잉여금과 배당금	
31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2	현금흐름표	기타자본구성요소	
33	부가가치관련자료	수익	
34	기업의 환경정책 등	판매비와 관리비	v
3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v
36		기타이익 및 손실	v
37		금융수익	v
38		금융원가	v
39		계속영업과 관련된 법인세	
40		계속영업이익	
41		비용의 성격별 분류	v
42		주당이익	
43		범주별 금융상품	v
44		위험관리	v
45		특수관계자 거래	
46		비현금거래	
47		지출관련 약정	v
48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V.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 영향 분석

1. 개관

-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IFRS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준정부기관들이 이미 IFRS 구축작업을 진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상황임
- 현 상황에서 준정부기관의 도입 준비상황 및 주요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바, 도입 대상인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 및 재무적 예상 영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집계된 자료를 분석함
- 전환일이 2011년 말(2012년 1월 1일)이며, 2012년 손익부터 전환의 대상이 되므로, 2011년 손익에 대한 영향은 각 기관들이 분석하지 못한 상황인바, 해당 수치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2011년 말 기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IFRS 도입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
- IFRS 도입에 따라 준정부기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된 항목은 (1)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가정 적용에 따른 영향 (2) 연차수당의 조정 (3) 경영평가 성과급의 발생주의 처리 (4) 최초 도입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액의 간주원가 인식 (5)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특히, 정률법 적용 대상 자산의 정액법 변경) (6) 대손충당금 설정 내지 현재가치 평가 등 채권 평가를 들 수 있음
- 공통 영향 항목이 각 기관별로 2011년 말 기준 K-GAAP 자산 대비 어느 정도의 금액 및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외에 각 기관별로 특별한 영향을 미친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2. 항목별 영향 분석

1)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가정 적용에 따른 영향

- 종래의 퇴직급여는 기말 시점에 모든 종업원이 퇴사할 경우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청산 방식이었음
- 이러한 산정 방식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어서 급여 상승이 큰 A라는 기업과 사업구조가 안정화되고 성장이 둔화되어 있어 실제 급여 상승폭이 크지 않은 B라는 기업이 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종업원 퇴사를 가정할 경우 동일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A기업과 B기업의 퇴직급여 관련 부채가 동일하게 계상됨
-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인원이 기말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 퇴사시점에서의 회사 부담은 급여 상승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A라는 기업이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임
- 이에 IFRS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통하여 미래에 기업이 부담할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 할인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GAP difference가 발생함
- 제조 등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의 변화가 IFRS 도입에 따른 주요한 변경사항이 됨
-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가정 적용이 준정부기관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부채의 증감으로 나타나게 되며, 기관별 영향 정도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금액효과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부호를 표기하였으며, 총자산은 2011년 K-GAAP 적용 기준 금액

〈표 IV-1〉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 영향: 퇴직급여

(단위: 억원, %)

기관분류	기관명	금액효과	총자산	영향비율
기금 관리형	국민연금공단	(3)	6,124	-0.05
	국민체육진흥공단	(151)	24,426	-0.6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4)	22,583	-0.02
	한국자산관리공사	(15)	38,581	-0.04
	한국주택금융공사	-	57,943	0.00
위탁 집행형	KOTRA	-	1,076	0.00
	교통안전공단	-	2,793	0.00
	국립공원관리공단	(22)	239	-9.21
	국민건강보험공단	(75)	96,608	-0.08
	도로교통공단	(35)	2,356	-1.49
	한국가스안전공사	51	2,645	1.93
	한국거래소	(56)	25,058	-0.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	11,688	-0.19
	한국농어촌공사	50	71,131	0.07
	한국전기안전공사	(59)	1,755	-3.36
	한국철도시설공단	20	206,546	0.01
	한국환경공단	-	24,564	0.00
중소형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109	0.00
	에너지관리공단	(3)	49,415	-0.01
	여수광양항만공사	-	25,014	0.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1,871	0.5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	172	-5.81
	한국고용정보원	1	418	0.24
	한국광해관리공단	2	11,105	0.0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00	111,475	0.9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256	0.00
	한국산업단지공단	-	19,992	0.00
	한국언론진흥재단	(15)	1,987	-0.7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91	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3,706	0.00
	한국세라믹기술원	-	629	0.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798	0.00

- 대부분의 경우 부채의 증가로 자기자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부채의 감소 효과가 큰데 아직 정확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산정이 아닌 기관 제시 추정치에 불과함

2) 연차수당의 조정

- 연차수당의 경우 종래 K-GAAP하에서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하거나 연차지급 시점 직전 해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음. 즉, 당기 근로 제공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 IFRS 도입에 즈음하여 이러한 practice상의 오류를 수정, 당기 연차수당분을 미지급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게 됨
- 당기 연차수당의 반영이 준정부기관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됨

〈표 IV-2〉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영향: 연차수당

(단위: 억원, %)

기관분류	기관명	금액효과	총자산	영향비율
기금 관리형	국민연금공단	-	6,124	0.00
	국민체육진흥공단	(32)	24,426	-0.13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22,583	0.00
	한국자산관리공사	-	38,581	0.00
	한국주택금융공사	-	57,943	0.00
위탁 집행형	KOTRA	(15)	1,076	-1.39
	교통안전공단	(28)	2,793	-1.00
	국립공원관리공단	-	239	0.00
	국민건강보험공단	(442)	96,608	-0.46
	도로교통공단	(40)	2,356	-1.70

〈표 IV-2〉의 계속

(단위: 억원)

기관분류	기관명	금액효과	총자산	영향비율
	한국가스안전공사	(32)	2,645	-1.21
	한국거래소	(46)	25,058	-0.1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8)	11,688	-0.07
	한국농어촌공사	(98)	71,131	-0.14
	한국전기안전공사	(21)	1,755	-1.20
	한국철도시설공단	(42)	206,546	-0.02
	한국환경공단	(31)	24,564	-0.13
중소형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109	0.00
	에너지관리공단	(4)	49,415	-0.01
	여수광양항만공사	(2)	25,014	-0.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871	0.0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172	-1.16
	한국고용정보원	(4)	418	-0.96
	한국광해관리공단	-	11,105	0.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15)	111,475	-1.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3,256	-0.34
	한국산업단지공단	(11)	19,992	-0.06
	한국언론진흥재단	(2)	1,987	-0.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91	-3.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3,706	-0.08
	한국세라믹기술원	(3)	629	-0.4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1,798	-0.02

○ 일부 기관의 경우 연차수당 관련 조정액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바, 금액 자체가 미미하거나 구축 과정에서 누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경영평가성과급의 발생주의 회계처리

○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도 종래 K-GAAP하에서는 주로 현금주의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차수당과 동일하게 근로제공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미래 지급 예상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계상하여야 할 것인바, 과거의 평균지급액을 사용하거나 차년도 경영평가 결과 예측에 기초한 금액을 계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경영평가 성과급의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됨

〈표 IV-3〉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 영향: 경영평가 성과급

(단위: 억원, %)

기관분류	기관명	금액효과	총자산	영향비율
기금 관리형	국민연금공단	-	6,124	0.00
	국민체육진흥공단	-	24,426	0.00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22,583	0.00
	한국자산관리공사	-	38,581	0.00
	한국주택금융공사	-	57,943	0.00
위탁 집행형	kotra	(111)	1,076	-10.32
	교통안전공단	(41)	2,793	-1.47
	국립공원관리공단	-	239	0.00
	국민건강보험공단	(172)	96,608	-0.18
	도로교통공단	(20)	2,356	-0.85
	한국가스안전공사	(30)	2,645	-1.13
	한국거래소	-	25,058	0.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11,688	0.00
	한국농어촌공사	(769)	71,131	-1.08
	한국전기안전공사	-	1,755	0.00
	한국철도시설공단	(54)	206,546	-0.03
	한국환경공단	(45)	24,564	-0.18
중소형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9)	109	-17.43
	에너지관리공단	(14)	49,415	-0.03
	여수광양항만공사	-	25,014	0.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871	0.0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4)	172	-2.33

〈표 IV-3〉의 계속

(단위: 억원, %)

기관분류	기관명	금액효과	총자산	영향비율
	한국고용정보원	(8)	418	-1.91
	한국광해관리공단	(11)	11,105	-0.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11,475	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256	0.00
	한국산업단지공단	(20)	19,992	-0.10
	한국언론진흥재단	(5)	1,987	-0.2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91	-2.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3,706	-0.13
	한국세라믹기술원	-	629	0.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1,798	-0.11

-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도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일부 기관의 경우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유형자산 관련 변동

- IFRS는 도입 최초 시점에서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한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선택 조항을 두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등은 당해 조항을 선택하여 토지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자산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개선한 바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경우 재평가 관련 발생비용의 부담, 실제 부채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에 기인하여 이러한 간주원가 채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준정부기관 중 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이외의 유형자산 관련 변동이 존재하는 기관 및 그 금액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IV-4〉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 영향: 유형자산평가

(단위: 억원, %)

기관분류	기관명	금액효과	총자산	영향비율
위탁집행형	한국철도시설공단	638	206,546	0.31
중소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65)	111,475	-0.42
	한국세라믹기술원	489	629	77.74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에 따른 유형자산 증가액이 반영된 것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장서가 유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IFRS 도입 시점에서 이를 유형자산에서 제외하면서 금액효과가 음수(-)로 나타났음
-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경우 토지재평가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으로 자산이 증가하였음

5)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변경

- IFRS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 맞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 실무적으로는 세법상 내용연수를 주로 이용하여 왔음
- 또한, 감가상각방법의 경우에도 특별한 기술적 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자산이 아니라면 대부분 내용연수 기간 중 평균적으로 수익창출에 공헌한다고 보는 정액법이 보다 합리적인바, 과거 정률법이 적용되어 왔던 유형자산에 대하여 그러한 상각방법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영향이 있는 준정부기관 및 그 금액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IV-5〉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 영향: 감가상각

(단위: 억원, %)

기관분류	기관명	금액효과	총자산	영향비율
기금관리형	국민연금공단	106	6,124	1.73
	국민체육진흥공단	149	24,426	0.61
	한국자산관리공사	41	38,581	0.11
위탁집행형	KOTRA	18	1,076	1.67
	도로교통공단	97	2,356	4.12
	한국가스안전공사	16	2,645	0.60
	한국농어촌공사	(4,182)	71,131	-5.88
중소형	에너지관리공단	5	49,415	0.01
	여수광양항만공사	4	25,014	0.0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698	111,475	6.01
	한국산업단지공단	9	19,992	0.0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3,706	0.0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1,798	-0.04

- 국민연금공단 및 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함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공사법시행령 제26조의 2(감가상각 특례)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지 않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K-IFRS 제1016호 적용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서 자산이 크게 감소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일부 유형자산의 상각내용연수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고 이러한 효과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자산이 크게 증가함

6) 채권평가

- 채권평가와 관련하여 IFRS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및 설정방법 등에 변화가 있으며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에 대하여 현재가치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채권평가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는 준정부기관 및 그 금액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IV-6〉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 영향: 채권

(단위: 억원, %)

기관분류	기관명	금액효과	총자산	영향비율
기금관리형	한국자산관리공사	40	38,581	0.10
위탁집행형	국민건강보험공단	(1,257)	96,608	-1.30
	한국전기안전공사	(2)	1,755	-0.11
	한국철도시설공단	(63)	206,546	-0.03
중소형	여수광양항만공사	(378)	25,014	-1.5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1,871	0.0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4)	111,475	-0.09
	한국언론진흥재단	(9)	1,987	-0.47
	한국세라믹기술원	(4)	629	-0.64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미수보험료, 기타징수금, 미수금 등 채권범위 및 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자산이 감소하였음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장기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에 의하여 자산이 감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집합 대상 채권의 범위가 변경되면서 대손충당금이 추가 설정되어 자산이 감소함

7) 수익인식

○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이 있는 준정부기관 및 금액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IV-7〉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 영향: 수익인식

(단위: 억원, %)

기관분류	기관명	금액효과	총자산	영향비율
기금관리형	한국자산관리공사	9	38,581	0.02
중소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512	111,475	3.15
	한국산업단지공단	(562)	19,992	-2.81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국유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이 189억원 감소하고 기수령한 관리보수 선수금 계상분 198억원이 감소하여 자본에 미치는 효과가 9억원으로 나타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과제매출의 진행률 인식방법 변경에 따라 매출채권이 크게 증가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분양사업의 수익인식방법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증가(1,479억원) 및 분양미수금의 감소(617억원)가 발생

8) 기타

- 지금까지 언급한 항목 이외에 IFRS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 큰 준정부기관 및 그 금액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IV-8〉 준정부기관의 IFRS 도입 예상 영향: 기타

(단위: 억원, %)

기관분류	기관명	금액효과	총자산	영향비율
기금관리형	국민연금공단	(40)	6,124	-0.65
	국민체육진흥공단	1,056	24,426	4.32
	한국주택금융공사	(3,376)	57,943	-5.83
위탁집행형	KOTRA	286	1,076	26.58
	국민건강보험공단	(54,644)	96,608	-56.56
	한국농어촌공사	1,063	71,131	1.49
중소형	여수광양항만공사	(4,837)	25,014	-19.34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손실 및 환경개선 부담금(준비금)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계상됨에 따라 부채가 크게 감소하였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동화신탁자산

및 부채의 인식이 각각 5조 6천억원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 연결대상 자회사(신탁)의 취득원가 회계처리로 자산이 4,369억원 감소하였음. 또한, 지급보증부채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으로 자산과 부채가 각각 2,527억원, 1,998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상의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관련 이연법인세가 변동하여 자본이 1,141억원 증가함

- KOTRA의 경우 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자산차감하지 않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보험사건(의료행위)은 발생하였으나, 미청구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보험급여충당부채가 5조 4,577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현재가치 평가 등으로 인한 순자본 변동이 63억원 존재함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타 변동은 농업기반시설 상각 등에 따른 변동과 관련한 이연법인세 변동이 대부분을 차지함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설립 당시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5,902억원 인식하여 자산이 감소하였고,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효과가 1,065억원 발생함

V. IFRS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영향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득점에 대한 영향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및 임직원의 상여금을 결정하고 평가 결과가 매우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는 제도임
 - 2012년 현재 107개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에 근거를 둔 경영평가의 대상임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하여 기관장의 인사와 임직원의 실질급여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임
 - IFRS의 도입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지표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 수치에 상당한 변동을 초래하는바, 이러한 변동이 평가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도입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든 기관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 IFRS의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2010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하였으나 비교목적으로 2010년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므로 2010년을 대상으로 IFRS 도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2010년도에 대하여 기존의 우리나라 회계기준(K-GAAP)에 의한 재무자료에 의해 평가받은 득점(실제로 평가받은 득점)과 2010년도에 IFRS를 적용하였다고 가정한 경우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득점을 비교분석함
 - 2010년도 경영실적에 대해서 기관에서는 K-GAAP에 의한 재무자료를 관리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고 IFRS에 의한 재무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므로 아래의 분석은 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 득점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참고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IFRS 도입의 실질적인 영향은 2011년도 경영평가실적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관에 이미 폐기된 K-GAPP 적용 재무제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활용가능한 2010년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경영평가에 미치는 예상 영향을 분석하기로 함

○ 2010년도에 공기업 경영평가의 대상이 된 기관은 총 21개 기관임(10개 공기업1, 11개 공기업2). 21개 기관이 전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3개 기관은 일부분의 자료만 제출하여 비교분석이 어려우므로 18개 기관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함. 또한 IFRS의 도입은 기관의 공통지표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공통지표(가중치 총 23점)를 대상으로 분석함

○ 분석 대상인 공통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V-1〉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 공통지표 현황

지표명	산식	가중치
노동생산성	부가가치/종사인원	5
자본생산성	부가가치/총자산	5
계량인건비	인건비/매출액	3
계량관리업무비	관리업무비/매출액	4
총인건비 인상률	전년 대비 인상률 vs 정부고시 인상률	4
재무예산성과	총자산회전율, 금융비용, 부채비율 중 택1	2

○ 공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0.541점이 하락하고, 공통지표의 득점률은 2.959점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공기업1은 0.847점이 하락하고 득점률은 4.736점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공기업2는 0.158점이 하락하고 득점률은 0.737점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어 득점률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IFRS 도입 시 득점률의 일부 하락은 대부분 공기업1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공기업1의 득점변화가 공기업2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 것은 2010년에 IFRS를 적용하

였다고 가정하면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하게 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인데, 해당 기관의 경우에도 만약 실제로 IFRS를 도입하였다면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임¹⁴⁾

- 해당 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공기업1의 득점이 0.447점 하락하고 공통지표의 득점률이 2.817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므로 공기업1의 경우에도 득점 하락 폭이 크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본보고서의 이후 부분에서 다룰 공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IFRS의 도입이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과 일관되는 결과임

○ IFRS의 도입으로 득점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관과 하락한 기관 모두 공기업1에 해당함. IFRS의 도입으로 득점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B기관은 2.338점이 상승하고 공통지표의 득점률이 12.203점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반면에 IFRS의 도입으로 득점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G기관은 4.326점이 하락하고 공통지표의 득점률이 20.758점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B기관의 경우는 IFRS 도입으로 부가가치가 많이 증가한 반면에 평균인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노동생산성에서 1.865점 상승한 것이 득점 상승의 주된 이유임. G기관은 IFRS 적용 시 인건비 발생액이 4.5억원 증가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하게 되어 4점이 감점된 것이 득점 하락의 주된 이유임. G기관의 경우 2010년에 실제로 IFRS를 도입하였다면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하도록 관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G기관의 득점 하락률은 0.326점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공기업2의 경우는 득점이 가장 많이 상승한 O기관은 1.997점이 상승하고, 가장 많이 하락한 N기관은 1.498점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O기관은 IFRS 도입으로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이 376억원 증가하고 총자산이

14)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고시한 인건비 인상률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위반 시 가중치 4점에서 0점을 득점하게 되어 전체 경영평가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모든 기관이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 따라서 2010년에 실제로 IFRS를 적용하였다고 하면 위의 위반기관도 해당 기준에 맞추어 인상을 관리할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546억원 감소(비유동자산 감소)하여 자본생산성이 1.872점 상승한 것이 득점 상승의 주된 이유임. N기관은 IFRS 도입으로 진행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사업수익이 감소하고, 비용계상연도 변경에 따라 임원급여와 성과연봉이 증가하여 부가가치는 하락한 반면에 수익인식기준의 변경에 따라 자산(외상매출금)이 증가하여 자본생산성이 1.421점 하락한 것이 득점 하락의 주된 이유임

- 득점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관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지만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득점률이 하락하였으며, 득점이 상승 또는 하락한 기관 간에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공기업의 상승 또는 하락이 관련 공기업의 공통적인 특징 때문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V-2〉 IFRS에 의한 공기업 경영평가 득점영향 분석(2010년도 대상)

번호	기관명	가중치	(가) K-GAAP에 의한 득점		(나) K-IFRS에 의한 득점		(다) 차이 (=(나)-(가))	
			득점	득점률	득점	득점률	득점	득점률
공기업 1								
1	A공사	23	14,269	62,039	13,963	60,709	-0.306	-2,145
2	B공사	23	19,159	83,300	21,497	93,465	2,338	12,203
3	C공사	23	22,577	98,161	22,912	99,617	0.335	1,484
4	D공사	23	20,610	89,609	20,323	88,361	-0.287	-1,393
5	E공사	23	17,774	77,278	16,000	69,565	-1.774	-9,981
6	F공사	23	20,452	88,922	19,985	86,891	-0.467	-2,283
7	G공사	23	20,840	90,609	16,514	71,800	-4.326	-20,758
8	H공사	23	12,238	53,209	11,521	50,091	-0.717	-5,859
9	I공사	23	17,635	76,674	14,277	62,074	-3.358	-19,042
10	J공사	23	21,544	93,670	21,632	94,052	0.088	0,408
공기업1 (10개 기관) 평균			18,710	81,347	17,862	77,663	-0.847	-4,736
공기업 2								
11	K공사	23	20,758	90,252	19,310	83,959	-1.448	-6,973
12	L공사	23	17,434	75,800	17,121	74,439	-0.313	-1,795
13	M공사	23	17,542	76,270	17,978	78,165	0.436	2,485

〈표 V-2〉의 계속

번호	기관명	가중치	(가) K-GAAP에 의한 득점		(나) K-IFRS에 의한 득점		(다) 차이 (=(나)-(가))	
			득점	득점률	득점	득점률	득점	득점률
14	N공사	23	18,860	82,000	17,365	75,500	-1,495	-7,927
15	O공사	23	19,395	84,326	21,392	93,009	1,997	10,296
16	P공사	23	22,270	96,826	22,42	97,478	0,150	0,674
17	Q공사	23	22,493	97,796	21,928	95,339	-0,565	-2,512
18	R공사	23	21,401	93,048	21,371	92,917	-0,030	-0,140
공기업2 (8개) 평균			20,019	87,040	19,861	86,351	-0,158	-0,737
공기업 전체 (18개) 평균			19,292	83,877	18,751	81,524	-0,541	-2,959

주: 2010년도의 평가대상 공기업 21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일부분의 자료만 제출하여 비교분석이 어려우므로 18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공기업1 중에서 득점이 상승한 기관이 3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7개임. 공기업2 중에서는 득점이 상승한 기관이 3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5개임. 공기업1과 공기업2 모두 득점률이 하락한 기관이 상승한 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V-3〉 IFRS 도입으로 득점률 상승 또는 하락 기관 분포(2010년도 대상)

	공기업1	공기업2	전체
득점률 상승기관	3개	3개	6개
득점률 하락기관	7개	5개	12개
전체	10개	8개	18개

- IFRS의 도입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사전에 경영평가단과 공공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고 준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경영평가단은 기본적으로 IFRS의 도입으로 인해서 경영평가 결과가 왜곡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인식하에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기관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관의 득점에 유리한 방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경영

평가 평점기준의 속성상 특정 연도에 유리한 결과는 다음 연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¹⁵⁾ 협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경영평가단과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음

○ 사전 협의의 주요 이슈는 평가대상 재무제표 선택과 계량평가방법의 보정이었음

- IFRS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재무제표를 평가대상 재무제표로 선택함. 다만, 중속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해야 하므로 지분법손익을 당기순이익에 추가토록 하였음
- 즉, 평가대상 재무제표는 이전 K-GAPP의 별도재무제표와 동일한 것으로 재구성하였음
- 계량평가방법의 보정과 관련하여 2011년도평가 시 기준치인 전년도 실적치는 IFRS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작성된 2010년 재무제표 실적치를 사용하되 목표 설정구간을 결정하게 되는 과거 5개년 실적 표준편차는 모두 K-GAAP에 의한 재무수치를 활용토록 하였음

○ 경영평가단과 기관이 사전에 협의한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음(『IFRS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연구 용역 T/F)

〈표 V-4〉 IFRS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 적용방안 요약표

구 분	이슈명	대상기관	경영평가 적용방안
1. 평가틀	적용 재무제표	모든 기관	IFRS 별도재무제표 + 지분법평가
	평가방법 - 목표치의 설정	모든 기관	목표부여(편차) - K-GAAP 재무제표에 따른 과거 5개년 편차를 사용
2. 공통지표 - 기관 공통 사항	(1) IFRS 도입 시 전환일(2010.1.1) 시점으로 유형자산을 재평가	가스공사, 한전 등 다수 기관	IFRS에 따라 평가
	(2)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던 항목을 금융리스로 변경	가스공사, 한전 등 일부 기관	IFRS에 따라 평가

15) 지표별 평점은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실적을 비교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특정 연도에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 다음 연도에는 기준값의 상승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됨

〈표 V-4〉의 계속

구 분	이슈명	대상기관	경영평가 적용방안
	(3) 금융상품 등의 현재가치 평가 확대	모든 기관	IFRS에 따라 평가
	(4) 자산차감으로 표시하던 공사부담금을 이연부채로 계상	한전, 지역난방	이연부채 계상에 따른 영향 제거
	(5)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에 따른 매출 및 매출원가 인식	수자원, 도로공사	민간투자사업 영향 제거
	(6)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전진 적용	조폐공사	총자산 기준치에 가산
	(7) 영업이익의 정의	모든 기관	기존 K-GAAP과 동일하게 정의 단, 경영평가성과급은 영업 이익에서 제외
3. 인건비 관련 사항	(1)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의 발생주의 평가	모든 기관	기존과 동일하게 현금주의로 총인건비 인상을 평가
	(2) 종업원 저리대여금 현재가치 평가	일부 기관	기존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을 평가
4. 공통지표 - 개별 기관별 이슈	(1) 정부보조금 이연부채 계상	광물	기재부 결산지침을 K-GAAP에서처럼 수정 예정이므로, 그에 따라 평가
	(2) 정부보조금 자산차감 계상	JDC	IFRS에 따라 평가
	(3) 용지 분양수익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	JDC	분양선수금의 영향을 총자산과 부채 산정 시 제외
	(4) 자회사에 대한 금융보증채무 부채 인식	JDC	금융보증채무 회계처리로 인한 자산, 부채 영향을 제외하고 평가
	(5) 수익인식기준이 검침기준에서 발생주의로 변경	한전	IFRS에 따라 평가
	(6) 총인건비인상률 위배 기관의 연차수당	석탄공사	연차수당은 현금주의로 평가
	(7) 자회사에 대한 성공불용자 이자 비용	석유공사	회계처리 확정 후 추후 검토
5. 주요사업 지표 - 개별 기관 이슈	(1) 기능통화 도입에 따른 해외개발 사업 투자액 환산	석유공사	투자 당시의 미화로 환산
	(2) 영업보증금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부대사업수익 및 비용의 산정	도로공사	현재가치 평가 영향 제외

○ 위와 같은 사전 조정작업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음과 같은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공공기관 경영성과는 통제 가능성의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개별재무제표를 대상하는 것이 적합할지 아니면 총체적인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연결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한 검토
- 공공기관 중에서 기금을 포함한 금융형 공기업의 경우에 여타 공공기관과 상이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
-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관과 미실시 기관과의 회계정보 비교가능성 확보 방안 모색

2.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영향

○ 공공요금은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IFRS 도입으로 인하여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원가자료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1)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개요

○ 공공요금이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강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 및 요금을 결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함. 법적으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주무부장관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말함

○ 공공요금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통상 결정 형태에 따라 중앙부처가 결정하는 중앙공공요금과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으로 구분됨

〈표 V-5〉 공공요금의 종류

결정형태	세부 요금
중앙 공공요금	전기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통신료, 유료방송료, 국제항공료, 도시가스료(도매), 상수도료(광역, 댐용수), 시내통화료, 이동전화통화료, 인터넷접속,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TV 등
지방 공공요금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소매), 고등학교납입금, 문화시설입장료, 정화조청소료, 공연예술관람료, 지하철료, 상수도료(지방),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산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이에 근거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됨.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는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총괄원가 = 적정원가(비용) + 적정투자보수(이윤)
-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 - 영업외수익
-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투자보수율

- 개별 산정기준에서는 해당 요금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원가에 포함 혹은 불포함되는 대상의 세부 규정,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불포함되는 자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공공요금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비자원 및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통해서 전기, 열차,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대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다음은 2011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공표된 해당 요금의 원가정보임

- 아래 공표된 정보는 산출근거인 재무제표의 작성방식은 제출하는 기관마다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가스공사는 K-GAPP 기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총괄원가를 제출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K-IFRS 기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광역상수도료 총괄원가를 제출하고 있음
- 2011년도의 경우 K-IFRS에 의하여 외부감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K-GAPP에 근거한 원가정보를 공개한 이유는 두 기준 중 총괄원가가 크게 산출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표 대상 공공요금 중에서 총수입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보다 강력히 제기하기 위하여 총괄원가가 크게 산출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할 동기가 있을 수 있음

〈표 V-6〉 공공요금 산정기준(2011년)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료	광역상수도료	도로통행료	우편료
I. 총괄원가	470,114	23,503	343,859	11,780	35,717	12,287
1. 적정원가	432,747	20,231	336,892	9,669	20,758	11,149
2. 적정투자보수	37,367	3,272	6,967	2,111	14,959	1,138
① 요금기저	631,205	69,203	131,529	46,399	374,285	31,426
② 적정투자보수율	5.92%	4.73%	5.30%	4.55%	4.00%	3.62%
II. 총수입	411,000	19,941	299,051	10,001	29,989	10,898
1. 수요량	455,070	216	42,097	3,507	1,321	4,345
(단위)	(GWh)	(1억인km)	(백만m³)	(백만m³)	(백만대)	(백만통)
2. 적용단가	90.32	92.3	710.39	285.2	기본요금 862 주행요금 40.5	251
(단위)	(원/kWh)	(원/인km)	(원/m³)	(원/m³)	(원/km)	(원/통)

자료: 한국소비자원 (<http://www.smartconsumer.go.kr>)

2) 기관별 영향

- 공개 대상인 전기, 열차,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대 공공요금 기관 중 자료 입수가 가능했던 전기,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고속통행료, 철도운임 그리고 추가로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에 대하여 IFRS 도입으로 인한 총괄원가 영향 분석을 실시함.

가.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의 2011년도 결산서를 대상으로 K-IFRS 도입의 효과를 자산재평가 해당 부분을 반영할 경우와 반영하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 분석

(1) 총괄원가

〈표 V-7〉 도시가스료 총괄원가

(단위: 억원)

항 목	K-GAAP 기준	K-IFRS기준		차이금액		차이 원인
		재평가 미반영	재평가 반영	재평가 미반영	재평가 반영	
1. 적정원가(①+②+③-④)	336,892	334,546	337,081	(2,346)	189	
① 영업비용	336,021	333,634	335,319	(2,387)	(702)	
㉠ 재료비	322,011	322,011	322,011			
㉡ 인건비	2,004	2,004	2,004			
㉢ 판매비와관리비	1,937	1,937	1,937			
- 간접부서의 경비	1,507	1,507	1,507			
- 연구관련 경비	393	393	393			
- 판매촉진비 등	37	37	37			
㉣ 기타 경비	10,069	7,682	9,367	(2,387)	(702)	
- 감가상각비	5,935	3,548	5,233	(2,387)	(702)	
재평가효과 내용연수 변경효과	-	-	1,685	0	1,685	주 ¹⁾
- 지급수수료	1,511	1,511	1,511	-	-	
- 수선유지비등 기타	2,623	2,623	2,623	-	-	
② 영업외비용	207	207	207	-	-	
③ 법인세비용	2,211	2,252	3,102	41	891	주 ²⁾
④ 영업외수익	1,547	1,547	1,547	-	-	
2. 적정투자보수(①×②)	6,967	7,094	9,758	127	2,791	
① 요금기저	131,529	133,917	168,925	2,388	37,396	주 ³⁾
② 적정투자보수율	5.30%	5.30%	5.78%	-	0.48%	주 ⁴⁾
총괄원가(1+2)	343,859	341,640	346,839	(2,219)	2,980	

주: 1) 감가상각비

- 내용연수 변경 효과: 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
- 재평가효과: 재평가 효과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효과

2) 법인세 비용

요금기저 증가분(내용연수 증가 및 재평가로 자산 증가) $\times$ 가중평균자본비용 $\times$ 법인세적용률*
 * $[1/(1-\text{법인세율}(24.2\%))] - 1 = 31.93\%$

3) 요금기저

- 재평가 미반영(현재 기준)
 내용연수 증가에 따른 상각비 감소(2,388억원)로 요금기저 증가
- 재평가 반영(요금산정기준 개정)
 재평가차익(36,693억원) 및 상각비 감소(702억원)로 요금기저 증가

4) 적정투자보수율

재평가차익(36,693억원)의 요금 반영(총자산에서 미차감)으로 인한 자본비율 증가
 ※ 재평가 미반영 시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투보율 불변

○ 투자보수율 계산근거

- ① 세후타인자본비용: 세후 공사 실적 금리 = 5.00%
- ② 자기자본비용: CAPM으로 계산 = 8.42%
- ③ 자본구성비: 총자산 및 총자본에서 가감항목을 가감하여 요금상 자본구성비 산출
 - K-GAAP 기준: 32.52%
 - K-IFRS 기준 재평가 미반영: 32.52%
 - K-IFRS 기준 재평가 반영: 42.87% (자산증가, 자본증가)
- ④ 투자보수율(WACC)
 세후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자본구성비로 가중평균

(2) 분석 결과

○ 감가상각비

- 한국가스공사의 주요 유형자산 중 배관에 대한 내용연수를 12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한 결과 감가상각비가 크게 감소함
- 자산재평가의 효과를 요금산정에 반영하게 될 경우 자산재평가로 인한 유형자산 증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추가적으로 반영됨
- 내용연수 증가에 따른 효과만 반영할 경우 총괄원가 기준으로 2011년 기준 금액이 2,387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자산재평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702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 법인세비용

- 내용연수 증가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감소되며 감소분만큼의 요금기저 증가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 비용을 고려함
- 자산재평가의 효과가 반영될 경우 요금기저는 크게 증가하여 법인세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함
- 자산재평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와 고려할 경우 법인세비용에 대한 효과는 각각 41억원과 891억원임

○ 요금기저 및 적정투자보수율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증가 및 자산재평가 효과를 반영할 경우의 요금기저 증가효과는 분기 기준으로 각각 2,388억원과 37,396억원임
- 투자보수율에서는 자산재평가의 효과를 반영할 경우 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보임(5.30% → 5.78%)

나. 한국도로공사

- 통행요금 총괄원가는 K-GAAP기준에서 K-IFRS기준으로 전환 직전연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비교함(자산재평가는 임의사항으로 미시행)

(1) 총괄원가 내역

〈표 V-8〉 고속도로 통행료 총괄원가

(단위: 억원)

항 목	K-GAAP 기준	K-IFRS 기준	차이금액	차이원인
1. 적정원가(①+②+③-④)	21,909	22,053	144	
① 영업비용	19,967	19,888	-79	
㉠ 유료도로관리권상각비	8,826	9,183	357	주 ¹⁾
㉡ 인건비	3,037	2,873	-164	주 ²⁾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39	819	-20	

〈표 V-8〉의 계속

(단위: 억원)

항 목	K-GAAP 기준	K-IFRS 기준	차이금액	차이원인
- 판매비	28	28	0	
- 일반관리비	811	791	-20	주 ³⁾
④ 기타 경비	7,265	7,013	-252	
- 감가상각비	885	648	-237	주 ⁴⁾
- 전력수도료	367	367	0	
- 도로보수비 등	6,013	5,998	-14	주 ⁵⁾
② 영업외비용	426	499	73	주 ⁶⁾
③ 법인세비용	2,380	2,334	-46	주 ⁷⁾
④ 영업외수익	864	669	-196	주 ⁸⁾
2. 적정투자보수(①×②)	13,925	13,930	5	
① 요금기저	355,405	355,563	157	주 ⁹⁾
② 적정투자보수율	3.92%	3.92%	0	
총괄원가(1+2)	35,834	35,983	149	

주: 1) ABS 발행 유료도로관리권을 차입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ABS 상환액이 유료도로관리권 상각비로 계상되어 상각비 증가함

* ABS(Asset-backed Securities) : 자산유동화증권

2)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평가 감소로 인건비 감소

3), 4) 자산내용연수 연장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

6), 8)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재무제표 소급 작성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이익 감소

7) 세전손익 증감에 따른 변동 효과

9) 자산내용연수 연장에 따라 자산 장부가액 증가로 요금기저 증가

(2) 분석 결과

○ 유료도로관리권상각비

- K-IFRS 적용 시 ABS 발행 유료도로관리권은 차입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ABS 상환액이 유료도로관리권 상각비로 계상되어 상각비가 357억원 증가함

○ 인건비

- K-IFRS 적용 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평가 감소로 인건비가 164억원 감소함

○ 감가상각비

- K-IFRS 적용 시 자산내용연수 연장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237억원 감소함

○ 법인세비용

- 세전손익 감소로 인하여 46억원 감소함

○ 요금기저

- 자산내용연수 연장에 따라 장부가액이 증가하여 요금기저가 157억원 증가함

○ 총괄원가

- K-IFRS 적용 시 유료도로관리권상각비는 증가하나 인건비 및 기타경비의 감소로 영업비용이 감소하며 전기오류수정이익의 감소로 인한 영업외수익의 감소로 적정원가가 144억원 증가함
- K-IFRS 적용 시 자산내용연수 연장에 따라 요금기저가 157억원 증가하여 적정투자보수비가 5억원 증가함
- K-IFRS 적용 시 총괄원가는 149억원 증가함

다.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원가는 2011년 실적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회계기준의 변경(GAAP → IFRS)로 인한 자산, 부채 등의 재평가는 영향이 없거나 효과가 미미하여 제외

- 적정투자보수율은 4.5%를 적용

(1) 총괄원가 내역

〈표 V-9〉 광역상수도로 총괄원가

(단위: 억원)

항 목	K-GAAP 기준	K-IFRS기준		차이금액		차이 원인
		재평가 미반영	재평가 반영	재평가 미반영	재평가 반영	
1. 적정원가(①+②+③+④-⑤)	9,624	9,669	9,669	45	45	
① 영업비용	8,594	8,627	8,627			
㉠ 인건비	1,190	1,223	1,223	33	33	퇴직급여
㉡ 경 비	7,404	7,404	7,404			
- 전력비	840	840	840			
- 재료비	1,656	1,656	1,656			
- 감가상각비	3,862	3,862	3,862			
- 지급수수료	176	176	176			
- 수선유지비	512	512	512			
- 기타경비	358	358	358			
② 판매와 일반관리비	495	507	507	12	12	퇴직급여
③ 법인세비용	535	535	535			
④ 영업외 비용	-	-	-			
⑤ 영업외 수익	-	-	-			
2. 적정투자보수(①×②)	2,111	2,111	2,111			
① 요금기저	46,399	46,399	46,399			
② 적정투자보수율	4.5%	4.5%	4.5%			
총괄원가(1+2)	11,735	11,780	11,780	45	45	

(2) 분석 결과

○ 인건비

- 퇴직급여는 기존에는 전 종업원 기말 일시퇴직을 가정으로 추산하였으나 K-IFRS 적용 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종업원의 미래 퇴직금을 추정하여 산정하여 45억 원의 차이가 발생

○ 감가상각비: 변동 없음

- 자산재평가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제외
- 복합자산으로 구성된 무형자산인 수도시설관리권에 대해서 자산을 세분류하여 내 용연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자산세분류에 대한 금액산정에 한계가 있어 종전과 동일하게 수도시설 관리권 전체에 대하여 상각

○ 기타 비용, 영업외 수익(비용):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며 광역상수도는 해당사항 없음

라. 한국전력

- 한국전력의 전력요금 원가는 2010년 실적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적정투자보수율은 회사가 제시한 6.11%를 적용

(1) 총괄원가 내역(2010년)

〈표 V-10〉 전기료 총괄원가

(단위: 억원)

항 목	K-GAAP 기준	K-IFRS 기준		차 이	차이원인
		재평가 제외	재평가 포함		
1. 적정원가	381,318	365,325	383,140	1,822	
○ 조정영업비용	369,436	353,109	366,080	-3,356	
- 영업비용	401,673	369,909	369,909	-31,764	
- 발전사세전손익	-27,587	-	-	27,587	
- 송배전이용요금	-28	-28	-28	0	
- 재평가감가상각비	-800	-12,971		800	
- 영업외손익	-2,278	-2,257	-2,257	21	
- 공급잡익	-1,544	-1,544	-1,544	0	
○ 법인세비용	11,882	12,216	17,060	5,178	
2. 적정투자보수	37,218	38,262	53,436	16,218	
○ 요금기저	609,138	626,226	874,563	265,425	
○ 자산재평가액	(34,737)	(248,337)		(-34,737)	
○ 적정투보율	6.11%	6.11%	6.11%	0	
총괄원가 = 1+2	418,536	403,587	436,576	18,480	

(2) 분석 결과

○ 구입전력비

- K-GAAP상 구입전력비는 매출원가로 전액 비용처리 하였으나 K-IFRS 적용 시 금융 리스로 회계처리됨에 따라 이자비용 등으로 계상

○ 인건비

- K-GAAP상 상여 및 연월차는 급여지급 시점에서 인식하였으나 K-IFRS 적용 시 근로 제공 시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함

○ 퇴직급여

- K-GAAP상 전 종업원 기말 일시퇴직을 가정으로 추산하였으나 K-IFRS 적용 시 보험 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종업원의 미래퇴직금을 추정하여 산정함에 따라 증가함

○ 감가상각비

- K-IFRS 적용 시 자산재평가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증가함

○ 대손상각비

- K-GAAP상 예상손실에 근거하여 인식하였으나 K-IFRS 적용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인식하였음

○ 요금기저

- 자산재평가 실시 및 K-GAAP상 자산차감 형식인 공사부담금이 K-IFRS 적용 시 부채 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요금기저가 증가함

마. 한국철도공사

(1) 총괄원가내역(2011년)

〈표 V-11〉 철도운임 총괄원가

(단위: 억원)

구 분	K-GAAP	IFRS		차 이		비고
		재평가 반영	재평가 미반영	재평가 반영	재평가 미반영	
1. 적정원가	33,565	33,905	33,557	340	△8	
① 인건비	13,437	13,644	13,644	207	207	주 ¹⁾
②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394	1,212	1,212	△182	△182	
③ 간접부서의 경비	1,166	1,179	1,179	13	13	주 ²⁾
④ 연구관련 경비	30	30	30	-	-	
⑤ 판매촉진비 등	198	3	3	△195	△195	주 ³⁾
③ 기타경비	18,734	19,049	18,701	315	△33	
④ 감가상각비	3,357	3,704	3,357	347	-	주 ⁴⁾
⑤ 동력비	4,139	4,139	4,139	-	-	
⑥ 선로사용료	5,710	5,710	5,710	-	-	
⑦ 기타	5,528	5,496	5,496	△32	△32	
2. 적정투자보수	5,207	4,786	5,207	△421	-	
① 운임기저	117,641	108,134	117,645	△9,507	4	주 ⁵⁾
② 적정투자보수율	4.43%	4.43%	4.43%	-	-	
총괄원가	38,773	38,691	38,765	△82	△8	

주: 1), 2) 퇴직급여 차이

3) 마일리지비용 → 마일리지수익 인식

4) 자산재평가에 의한 감가상각비 차이

5) 자산재평가 차이

6) 산출가정 : K-GAAP과 IFRS 차이금액을 자산 유형별로 배부하여 추정한 자료임

바. 한국지역난방공사

○ 총괄원가는 2011년 결산실적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K-IFRS 도입 시 적정투자보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구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일 기준으로 적용

(1) 총괄원가 내역

〈표 V-12〉 열요금 총괄원가

(단위: 억원)

항 목	K-GAAP 기준	K-IFRS기준		차이금액		차이 원인
		재평가 미반영	재평가 반영	재평가 미반영	재평가 반영	
1. 적정원가	9,465	9,433	9,471	(32)	6	
* 감가상각비(①+②) (이연수익인식분 포함)	879	846	846	(32)	(32)	
① 감가상각비	879	919	919	41	41	주 ¹⁾
② 이연수익 인식분	-	(73)	(73)	(73)	(73)	주 ²⁾
2. 적정투자보수	468	469	590	1	122	
* 요금기저	9,736	9,753	12,252	16	2,516	
* 요금기저 포함 토지 (기초기말 평균)	2,222	2,222	4,722	-	2,500	주 ³⁾
* 공사부담금 요금기저 차감액(①,② 평균)	9,050	9,034	9,034	(16)	(16)	주 ⁴⁾
① 기초 공사부담금 요금기저 차감액	9,034	9,034	9,034	-	-	
② 기말 공사부담금 요금기저 차감액	9,067	9,035	9,035	(32)	(32)	
3. 총괄원가(1+2)	9,933	9,902	10,061	(31)	128	

주: 1) 감가상각비 차이금액

- 공사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전진법을 적용하여 2009년말 이전에 취득한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K-GAAP기준을 적용하고 2010년 이후 취득한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연수익법으로 인식
- 한국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여 계상하는 당기 공사부담금 상계액은 2011년 까지 취득한 전체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계상
-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당기 공사부담금 상계액은 2009년 이전까지 취득한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에 반영하고, 2010년 이후에 취득한 공사부담금은 감가상각비 계정에서 상계하지 않고 이연수익법에 따라 기타수익으로 인식(주2 참조)
- 상기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감가상각비에서 차감되는 K-IFRS 기준의 공사부담금 상계액은 K-GAAP 기준의 공사부담금 상계액보다 더 작은(41억원) 금액으로 반영되고, 감가상각비는 동 금액만큼 증가

2) 공사부담금 이연수익 차이금액

- K-IFRS의 공사부담금을 이연수익법(전진 적용)으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 2010년 이후 취득한

공사부담금은 대해서는 최초 부과 시, 공사부담금 부채로 인식하고 매년 추정 잔존 내용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타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상계 처리

- 3) 요금기저 차이금액 중 토지 재평가에 따른 열사업 관련 증가금액은 약 2,500억원임
- 4) 공사부담금 감가상각비를 상계 처리하거나, 또는 공사부담금 이연수익을 인식할 경우, 공사부담금 잔액이 감소하며, 공사부담금을 차감 후 산정하게 되는 요금기저는 동 금액만큼 증가

(2) 분석 결과

○ 공사부담금

- 공사부담금 회계처리방법을 자산차감방식(K-GAAP)에서 이연수익법(K-IFRS) 변경 (전진법을 적용하여 2010년 이전 취득분은 자산차감방식 적용)
-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취득한 공사부담금은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지 않고 수익으로 인식하며 공사부담금 부채 잔액 감소
- 따라서, 2010년 이후 취득한 공사부담금 상계액만큼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나, 기타수익 상계액까지 포함하여 원가에 반영할 경우, 열요금 적정원가는 오히려 감소

○ 무형자산

- K-IFRS에서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 상각을 하지 않도록 규정
- 따라서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시설이용권에 대해 상각을 중단하여 중단부분만큼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지만 금액적으로 크지 않아서 분석 내용에서 생략하였음

○ 자산재평가

- 공사는 비상각 대상 자산인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평가로 인하여 적정원가에는 영향이 없으나 재평가 반영 시 요금기저에 영향을 미침

3) 공공요금 총괄원가 차이 요약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 이슈

- 조사 대상 기관의 IFRS 도입으로 인한 총괄원가의 변경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V-13〉 IFRS도입에 따른 공공요금 총괄원가 영향

(단위: 억원, %)

항 목	K-GAAP 기준	K-IFRS 기준		차이금액		차이비율	
		재평가 미반영	재평가 반영	재평가 미반영	재평가 반영	재평가 미반영	재평가 반영
도시가스	343,859	341,640	346,839	-2,219	2,980	0.65	0.87
고속도로	35,834	35,983	n/a	149	n/a	0.42	n/a
광역상수도	11,735	11,780	11,780	45	45	0.38	0.38
전기	418,536	403,587	436,576	-14,949	18,040	3.57	4.31
철도	38,773	38,765	38,691	-8	-82	-0.02	-0.21
지역난방	9,933	9,902	10,061	-31	128	0.31	1.29
계	858,670	841,657	843,947	-17,013	-14,723	-1.98	-1.71

- IFRS 도입으로 인한 총괄원가의 변경은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공기업들은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현재 정부의 요금산정에 따라 자산재평가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 한국전력,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총괄원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재평가 효과를 반영할 경우 요금기저가 상승함에 따라 총괄원가는 모든 경우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철도공사는 예외적으로 자산재평가로 철도차량의 장부가액이 감액되므로 총괄원가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IFRS 도입으로 총괄원가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방법 변경, 내용연수 증가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증가로 적정원가에 산입되는 매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총괄원가는 줄어들지만, 대신에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커지고 요금기저가 증가하여 총괄원가가 상승되므로 해당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됨
 -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대부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이루어졌으나 방법 변경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의 기간배분액 결정과 관련되므로 총괄원가의 절대적 수준에 영향은 없음
 -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급증하고 이는 적정원가

에 포함되는 매년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요금기저도 증가시키므로 총괄 원가의 상승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기타 종업원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보험수리적 평가를 적용함에 따라 인건비의 변동이 예상되지만 증감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며 또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총괄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IFRS 도입이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현상은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IFRS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행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회계정책을 결정한 결과로 판단됨
 - 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게 기관은 IFRS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산재평가 효과의 반영 여부만이 요금 산정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자산재평가 효과를 요금 산정기준에 포함할 것인지는 정부의 공공요금 규제 방향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본 보고서의 논의 범위를 벗어남
 - 다만, IFRS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회계계정과목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요금산정 기준과 해당 변경내용을 조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별 요금산정에서 적정원가의 포함, 불포함 여부에 대한 상세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체성 및 일관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공공요금의 계산체계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종속회사의 비용을 모두 총괄원가에 반영함에 따라 범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VI. IFRS 도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1. 전체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IFRS 도입과 관련하여 공기업의 담당자(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와 공기업의 IFRS 도입을 자문한 담당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함. 이를 통해 공기업의 IFRS 도입을 평가하고,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준정부기관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설문지는 부록으로 제시하였음

1) 설문조사의 설계

- 우리나라 공기업의 IFRS 도입과 관련하여 공기업의 담당자와 공기업의 IFRS 도입을 자문한 담당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본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됨. 설문조사는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의 도움을 받아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및 회계부서 담당자와 회계법인에게 발송하여 이메일로 회수함
- 본 설문조사는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한 27개 공기업과 공기업의 IFRS 도입용역을 자문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21개(공기업 81개(27개 기관 × 3개 부서) + 공기업 IFRS 도입자문 회계법인 40개)의 설문지가 회수됨

〈표 VI-1〉 설문지 회수 현황

(단위: 개)

공기업				회계법인	전체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기업 전체		
27	27	27	81	40	121

- 설문문항은 설문 대상별로 다르게 구성됨. 모든 설문 대상에 대하여 공통의 질문 5개를 하며, 추가로 공기업의 경우에는 4개의 공통문항을 질문함.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와 재무부서 및 회계부서에 대해 각각 3개, 2개, 3개의 개별 문항을 질문하고,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개의 개별 문항을 질문함. 마지막으로 주관식으로 제안할 사항을 적도록 함.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와 재무부서, 회계부서, 회계법인의 설문문항은 각각 13개, 12개, 13개, 8개로 구성됨

〈표 VI-2〉 설문문항의 구성

(단위: 개)

구분	공기업			회계법인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통	5			
공기업공통	4			
개별	3	2	3	2
주관식	1			
합계	13	12	13	8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공기업과 회계법인의 공통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모든 설문 대상에서 “공기업 관련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라는 응답이 50% 내외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여”라는 응답이 많음
- 이러한 응답 결과는 4집단(공기업 내의 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와 회계법인) 간의 응답에 차이가 없으며, 2집단(공기업과 회계법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도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

〈표 VI-3〉 공기업 IFRS 도입의 장점

설문문항: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공기업				회계법인	전체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기업 전체		
① 공기업 관련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	13 (48.15)	15 (55.56)	18 (66.67)	46 (56.79)	20 (51.28)	66 (55.00)
② 자본조달시 유리(해외자본조달 비용의 감소 포함)	2 (7.41)	4 (1.81)	3 (11.1)	9 (11.11)	6 (15.38)	15 (12.50)
③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여	12 (44.4)	8 (29.63)	6 (22.22)	26 (32.10)	12 (30.77)	38 (31.6)
④ 공공요금, 배당 등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에 기여	0 (0)	0 (0)	0 (0)	0 (0)	1 (2.56)	1 (0.83)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7 (100)	27 (100)	27 (100)	81 (100)	39 (100)	120 (100)
차이검정	Kruskal-Wallis test ¹⁾		Chi-Square=2.7554 (p값=0.4309)			
	Wilcoxon Two-Sample Test ²⁾		Z=0.5012 (p값=0.6163)			

주: () 안은 비율임(%)

1) 4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회계법인)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2) 2집단(공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단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 부서와 재무부서는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저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공기업의 회계부서와 회계법인에서는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이는 실제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회계부서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의 복잡성이 증가한 것을 가장 크게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응답 결과는 4집단(공기업 내의 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와 회계법인) 간의 응답에 차이가 없으며, 2집단(공기업과 회계법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도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

- 재무부서의 기타의 응답으로 “외부기관의 자료 요청 시 과거 데이터와 계정양식이 다른 이유로 혼란이 가중되며(비교가능성 저하),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증가되었으나, 자회사의 협조 미비 등으로 결산 및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시 어려움이 많음”이 있음. 회계법인의 기타의 응답으로 “국내 공기업 특성(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기관의 업무 대행업무가 많음)을 국제회계기준이 나타내기 어려움”,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특수사항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려움” 등이 있음

〈표 VI-4〉 공기업 IFRS 도입의 단점

설문문항: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공기업				회계법인	전체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기업 전체		
① 과도한 초기도입 비용	0 (0)	0 (0)	1 (3.70)	1 (1.25)	3 (7.50)	4 (3.33)
②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	8 (29.63)	8 (3.77)	14 (51.85)	30 (37.50)	22 (55.00)	52 (43.33)
③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저하	18 (66.67)	15 (57.6)	10 (37.04)	43 (53.7)	7 (17.50)	50 (41.67)
④ 공기업 상호간 비교가능성 저하	1 (3.7)	2 (7.69)	2 (7.41)	5 (6.25)	6 (15.0)	11 (9.17)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0 (0)	1 (3.85)	0 (0)	1 (1.25)	2 (5.00)	3 (2.50)
합계	27 (100)	26 (100)	27 (100)	80 (100)	40 (100)	120 (100)
차이검정	Kruskal-Wallis test ¹⁾		Chi-Square=6.0529 (p값=0.1091)			
	Wilcoxon Two-Sample Test ²⁾		Z=-1.5771 (p값=0.1148)			

주: () 안은 비율임(%)

1) 4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회계법인)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2) 2집단(공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 공기업에서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여러 회계처리방법의 대안이 있을 때 공기업의 의사결정의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기업에서는 부서와 관계 없이 “IFRS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의 선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회계법인에서는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의 선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유리한 방법의 선택”이라는 응답이 그다음으로 많음. 공기업에서는 IFRS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반면에 회계법인에서는 그와는 다르게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의 선택이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응답은 흥미로운 결과임

- 이러한 응답 결과는 4집단(공기업 내의 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와 회계법인)간의 응답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2집단(공기업과 회계법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도 집단 간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음.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유일한 경우에 해당함

〈표 VI-5〉 대체적인 회계처리방안 중 선택기준

설문문항: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여러 회계처리방법의 대안이 있을 때, 공기업의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요?

구분	공기업				회계법인	전체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기업 전체		
① IFRS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의 선택	17 (62.96)	21 (77.78)	20 (74.07)	58 (71.60)	8 (20.00)	66 (54.55)
② 경영평가에 유리한 방법의 선택	2 (7.41)	1 (3.70)	1 (3.70)	4 (4.94)	9 (22.50)	13 (10.74)
③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의 선택	7 (25.93)	4 (14.81)	5 (18.52)	16 (19.75)	12 (30.00)	28 (23.14)
④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유리한 방법의 선택	1 (3.70)	1 (3.70)	1 (3.70)	3 (3.70)	10 (25.00)	13 (10.74)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0 (0)	0 (0)	0 (0)	0 (0)	1 (1.25)	1 (0.83)
합계	27 (100)	27 (100)	27 (100)	81 (100)	40 (100)	121 (100)
차이검정	Kruskal-Wallis test ¹⁾		Chi-Square=28.7369 (p값=0.001)			
	Wilcoxon Two-Sample Test ²⁾		Z=5.2691 (p값=0.001)			

주: () 안은 비율임(%)

- 1) 4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회계법인)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 2) 2집단(공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 공기업에서 IFRS 도입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기업의 전 부서와 회계법인 모두 “감가상각 관련(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이슈”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익인식 관련 이슈”, “자산재평가 관련 이슈” 등이 많음.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 관련 법률과 IFRS의 불일치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음
- 이러한 응답 결과는 4집단(공기업내의 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와 회계법인)간의 응답에 차이가 없었으며, 2집단(공기업과 회계법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도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음
- 본 문항과 관련해서는 특히 기타의 응답이 많음. 경영평가부서의 기타의 응답으로는 “재무제표 표시방법(영업이익, 금융손익 등)”, “기능통화 USD 도입 결정”, “연결/조인트벤처/관계기업 구분 및 관련 회계처리” 등이 있음. 재무부서의 기타의 응답으로는 “재무제표 표시방법(영업이익, 금융손익 등)”, “ABS 관련 회계처리”,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무형자산(영업권) 상각의 인정”, “연결/조인트벤처/관계기업 구분 및 관련 회계처리” 등이 있음. 회계부서의 기타의 응답으로는 “재무제표 표시방법(영업이익, 금융손익 등)”, “정부대행용자 사업의 차입금, 대여금 인식 방법 및 기능통화(USD)의 결정”, “구성요소별 감가상각처리 문제”, “공기업 성과급 선반영 문제”, “공사비부담금 회계처리 변경 및 수익인식방법 등”, “무형자산(영업권) 상각의 인정”, “연결/조인트벤처/관계기업 구분 및 관련 회계처리” 등이 있음. 회계법인의 기타응답으로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기부채납한 자산(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등이 있음

〈표 VI-6〉 IFRS 도입 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

설문문항: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구분	공기업				회계법인	전체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기업 전체		
① 감가상각 관련(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이슈	10 (38.46)	10 (37.0)	7 (28.00)	27 (34.62)	17 (43.59)	44 (37.6)
② 수익인식 관련 이슈	6 (23.08)	6 (22.22)	6 (24.00)	18 (23.08)	3 (7.69)	21 (17.95)
③ 자산재평가 관련 이슈	6 (23.08)	5 (18.52)	6 (24.00)	17 (21.79)	3 (7.69)	20 (17.09)
④ 해당 공기업 관련 법률과 IFRS의 불일치 문제	1 (3.85)	0 (0)	1 (4.00)	2 (2.56)	12 (30.77)	14 (11.97)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3 (11.54)	6 (22.22)	5 (20.00)	14 (17.95)	4 (10.26)	18 (15.38)
합계	26 (100)	27 (100)	25 (100)	78 (100)	39 (100)	117 (100)
차이검정	Kruskal-Wallis test ¹⁾		Chi-Square=0.8063 (p값=0.8480)			
	Wilcoxon Two-Sample Test ²⁾		Z=0.0989 (p값=0.9212)			

주: () 안은 비율임(%)

1) 4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회계법인)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2) 2집단(공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성공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기업의 전 부서와 회계법인 모두 “공기업 내부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경영진의 의지 포함)”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IFRS 관련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확보”, “IFRS 도입 자문 회계법인과의 긴밀한 협조” 등이 많음

○ 이러한 응답 결과는 4집단(공기업내의 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와 회계법인) 간의 응답에 차이가 없었으며, 2집단(공기업과 회계법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도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

○ 본 문항과 관련한 기타의 응답으로는 공기업 경영평가부서에서 “정부 방침에 따른 기

관의 준수 의지”가 있음

〈표 VI-7〉 IFRS 도입의 성공요인

설문문항: 공기업 IFRS 도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공기업				회계법인	전체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기업 전체		
① 공기업 내부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경영진의 의지 포함)	10 (37.04)	18 (66.67)	12 (44.44)	40 (49.38)	22 (56.41)	62 (51.67)
② IFRS 관련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확보	7 (25.93)	5 (18.52)	9 (33.33)	21 (25.93)	8 (20.51)	29 (24.17)
③ IFRS 도입 자문 회계법인과의 긴밀한 협조	8 (29.63)	4 (14.81)	5 (18.52)	17 (20.99)	5 (12.82)	22 (18.33)
④ 정부의 지원	1 (3.70)	0 (0)	1 (3.70)	2 (2.47)	4 (10.26)	6 (5.00)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1 (3.70)	0 (0)	0 (0)	1 (1.23)	0 (0)	1 (0.83)
합계	27 (100)	27 (100)	27 (100)	81 (100)	39 (100)	120 (100)
차이검정	Kruskal-Wallis test ¹⁾					
	Chi-Square=5.7620 (p값=0.1238)					
차이검정	Wilcoxon Two-Sample Test ²⁾					
	Z=-0.4367 (p값=0.6624)					

주: () 안은 비율임(%)

1) 4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회계법인)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2) 2집단(공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나. 공기업의 공통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 공기업에서 IFRS 도입 시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에서는 “IFRS 도입에 대한 회사 내부의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과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재무부서와 회계부서에서는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특히 회계부서의 경우에는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함

-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공기업 내 3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간에 차이가 없음
- 본 문항과 관련한 기타의 응답으로는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으로 결산시 한 촉박”, “기능통화를 USD로 도입함에 따라 이를 시스템으로 구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기존 K-GAAP 자료와의 비교가 모호” 등이 있음

〈표 VI-8〉 IFRS 도입시 공기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설문문항: IFRS의 도입시 귀사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구분	공기업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기업 전체
① IFRS 도입에 대한 귀사 내부의 이해 부족	11 (40.74)	11 (40.74)	7 (25.93)	29 (35.80)
② IFRS 도입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IFRS 자문용역비 부담 등)	1 (3.70)	2 (7.41)	2 (7.41)	5 (6.17)
③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	11 (40.74)	12 (44.44)	15 (55.56)	38 (46.91)
④ IFRS 도입 자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담당 회계법인의 의견 불일치	2 (7.41)	1 (3.70)	2 (7.41)	5 (6.17)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2 (7.41)	1 (3.70)	1 (3.70)	4 (4.94)
합계	27 (100)	27 (100)	27 (100)	81 (100)
차이검정	Kruskal-Wallis test ¹⁾		Chi-Square=1.2302 (p값=0.5406)	

주: () 안은 비율임(%)

1) 공기업 내 3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 공기업에서 IFRS 도입 준비 시 정부 또는 경영평가단에 대해 아쉬운 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에서는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불확실성(평가 관련 방침 확정의 지연 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재무부서와 회계부서에서는 “IFRS에 대한 준비 부족(재무제표 양식의 늦은 확정 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특히 경영평가부서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불확실성(평가 관련 방침 확정의 지연 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경영평가부서가 업무를 하면서 경영평가 관련 불

확실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공기업 내 3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간에 차이가 없음
- 본 문항과 관련한 기타의 응답으로는 “수익인식기준 변경에 따른(토지매출 인도기준 인식) 기관별 영향에 대한(연도별 수익변동폭 확대) 고려 필요”가 있음

〈표 VI-9〉 IFRS 도입 준비 시 정부 또는 경영평가단에 대해 아쉬운 점

설문문항: IFRS 도입 준비 시 정부 또는 경영평가단에 아쉬웠던 점은?

구분	공기업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기업 전체
① IFRS에 대한 준비 부족(재무제표 양식의 늦은 확정 등)	9 (33.33)	18 (66.67)	15 (57.69)	42 (52.50)
②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불확실성(평가 관 련 방침 확정의 지연 등)	17 (62.96)	7 (25.93)	7 (26.92)	31 (38.75)
③ 공공요금, 배당정책 등에 대한 정부정책 불확실성	0 (0)	1 (3.70)	0 (0)	1 (1.25)
④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의 미비	0 (0)	1 (3.70)	4 (15.38)	5 (6.25)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1 (3.70)	0 (0)	0 (0)	1 (1.25)
합계	27 (100)	27 (100)	27 (100)	81 (100)
차이검정	Kruskal-Wallis test ¹⁾ Chi-Square=4.3192 (p값=0.1154)			

주: () 안은 비율임(%)

1) 공기업 내 3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 27개 공기업 중에서 IFRS 도입 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13개이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와 재무부서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회계부서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라는 응답과 “기타” 의견이 가장 많음

-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공기업 내 3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간에 차이가 없음
- 본 문항과 관련해서는 기타 응답이 많음. 대부분 “간주원가 적용을 위해서”, “IFRS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라는 3가지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VI-10〉 IFRS 도입 시 자산재평가를 한 이유

설문문항: 자산재평가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	공기업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기업 전체
①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5 (38.46)	7 (53.85)	5 (38.46)	17 (43.59)
② 경영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0 (0)	0 (0)	0 (0)	0 (0)
③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0 (0)	0 (0)	0 (0)	0 (0)
④ IFRS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4 (30.77)	4 (30.77)	3 (23.08)	11 (28.21)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4 30.77	2 (15.38)	5 (38.46)	11 (28.21)
합계	13 (100)	13 (100)	13 (100)	39 (100)
차이검정	Kruskal-Wallis test ¹⁾		Chi-Square=1.4331 (p값=0.4884)	

주: () 안은 비율임(%)

1) 공기업 내 3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 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기업의 모든 부서에서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음. 영향을 주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 74.07%로서 공기업의 구성원들은 IFRS의 도입이 경영평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경영평가에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경영평가부서에서는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기관이 6개 존재함

-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공기업 내 3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간에 차이가 없음
- 본 문항과 관련된 기타의 응답으로는 “생산성 지표 등 산정 시 자회사 실적은 당기순 이익으로만 평가되어 본사와 자회사실적의 평가기준 상이”, “평가용 재무제표 작성으로 실적산정 시한 촉박”, “IFRS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적 측면에서는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잠재적 현황을 상세히 정보이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나, 정부 경영평가 측면에서는 K-GAAP 기준으로 재작성 업무(지분법 평가작업 등)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따라 K-GAAP과 IFRS 간의 과거자료 활용도가 저하되면, 향후 평가와 관련 정확성 있는 재무실적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피드백 가치 활용도가 저하되었음.”이라는 응답이 있음.

〈표 VI-11〉 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미친 영향

설문문항: 귀사의 경우에는 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공기업			
	경영평가 부서	재무 부서	회계 부서	공기업 전체
①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4 (14.81)	5 (18.52)	3 (11.11)	12 (14.81)
②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6 (22.22)	0 (0)	1 (3.70)	7 (8.64)
③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12 (44.44)	13 (48.15)	15 (55.56)	40 (49.38)
④ 잘 모르겠다.	3 (11.11)	9 (33.33)	8 (29.63)	20 (24.69)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2 (7.41)	0 (0)	0 (0)	2 (2.47)
합계	27 (100)	27 (100)	27 (100)	81 (100)
차이검정	Kruskal-Wallis test ¹⁾			Chi-Square= 2.3409 (p값=0.3102)

주: () 안은 비율임(%)

1) 공기업 내 3집단(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간의 차이검증 결과임

다. 공기업 경영평가부서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 경영평가 시 IFRS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평가한 것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공기업(20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이 적절하였다”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으며, “적절하지 않았다(연결재무제표의 이용이 적절하였다)”는 응답은 15%임. 따라서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경영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공공기관 IFRS 도입자문단의 연구보고서(2010)에 의하면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선호도가 52.6%(10개 기관)이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선호도가 42.1%(8개 기관)임.¹⁶⁾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80%로 높게 나옴

〈표 VI-12〉 경영평가시 재무제표 대한 설문

설문문항: 2011년에 대한 평가 시 연결재무제표 대신에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분	공기업
	경영평가부서
①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이 적절하였다.	16 (80.00)
② 적절하지 않았다(연결재무제표의 이용이 적절하였다).	3 (15.00)
③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1 (5.00)
합계	20 (100)

주: () 안은 비율임(%)

16) 참고로 공공기관 IFRS 도입자문단의 연구보고서(2010)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설문: 현재의 경영평가는 개별재무제표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됩니다. 2011년 이후 경영평가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총 19개 기관이 응답함)
 ① 별도재무제표(현행 개별재무제표) (10)
 ② 연결재무제표 (8)
 ③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1)

- 2011년도에 대한 경영평가 시 목표부여(편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치는 전년도 IFRS 금액을 이용하고 편차는 K-GAAP에 의한 금액을 이용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적절하였다”라는 응답이 85.19%로 가장 많으며,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41%로 소수를 차지함. 따라서 2011년도의 경영평가방법론에 대해서는 공기업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문항과 관련된 기타의 응답으로는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나, 상이한 회계체제하에서의 편차를 혼용하는 방법 자체는 근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무리하게 편차방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IFRS 도입 직후 2년간은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후 3개년 편차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편차 적용기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됨”, “주요 비용항목에 대해 IFRS 전환 시 변동률을 적용하여 IFRS용 편차 추정” 등의 의견이 있음
- 참고로 공공기관 IFRS 도입자문단의 연구보고서(2010)에 의하면 “목표부여(편차) 대신에 목표부여 등 다른 평가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 응답의 55.5%(10개 기관)를 차지했었음.¹⁷⁾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목표부여(편차)를 이용하면서 기준치는 전년도 IFRS 금액을 이용하고 편차는 K-GAAP에 의하여 평가한 것에 대하여 공기업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17) 참고로 공공기관 IFRS 도입자문단의 연구보고서(2010)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설문: 현재 계량지표의 표준적인 평가방법은 목표부여(편차)방식이므로 과거 5년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IFRS의 도입으로 과거 자료와의 단절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총 18개 기관이 응답함)

- ① 2011년 이후에도 K-GAAP(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즉, 향후 수년간 K-GAAP과 IFRS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2)
- ② 2011년 이후에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적용해 과거 5년치 재무제표를 IFRS에 의해 만드는 방법 (1)
- ③ 기준치는 IFRS를 이용하되, 편차 계산시에는 공시된 재무제표(K-GAAP와 IFRS가 혼재되어 있음)를 이용하는 방법 (2)
- ④ 목표부여(편차) 대신에 목표부여 등 다른 평가방법을 이용하는 방법 (10)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3)

〈표 VI-13〉 2011년 경영평가방법론에 대한 설문

설문문항: 2011년에 대한 평가 시 목표부여(편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치는 전년도 IFRS 금액을 이용하고 편차는 K-GAAP에 의한 금액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분	공기업
	경영평가부서
① 적절하였다.	23 (85.19)
② 적절하지 않았다.	2 (7.41)
③ 기타(적절한 대안을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2 (7.41)
합계	27 (100)

주: () 안은 비율임(%)

- 2012년도에 대한 경영평가지 목표부여(편차)를 이용하는 경우, IFRS에 의한 편차가 없으므로 2011년도 평가 시 이용하였던 K-GAAP에 의한 편차(2006년부터 2010년의 자료 이용)를 다시 한 번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73.08%로 가장 많으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5.38%를 차지함
- 본 문항과 관련된 기타의 응답으로는 “2011년도에 K-GAAP 편차 사용에 대하여는 이용가능한 정보 부족 상황에서 전년도(2006~2010)까지의 편차를 나름 활용하여 차선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2012년도 평가시에는 K-GAAP 5년(2006~2010) 편차 활용은 적시성 측면과 신뢰성 차원에서 기관의 실적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함. 대안으로 IFRS 활용지표에 대하여는 1~2년간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목표부여(최대목표 110%, 최저목표 90%) 방식을 적용하고 추후부터 IFRS 편차가 누적된 후 다시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회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편차는 2007~2011년(2010년도 K-GAAP) 자료를 이용하되 2011년도의 회계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준치를 2010~2011년도(IFRS) 평균치를 사용함”, “2012년까지만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하고, 2013년 평가 시 3개년 편차방식부터 편차 적용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주요 비용항목에 대해 IFRS 전환 시 변동률을 적용하여 IFRS용 편차 추정” 등이 있음

〈표 VI-14〉 2012년 경영평가방법론에 대한 설문

설문문항: 2012년도에 대한 평가 시 목표부여(편차)를 이용하는 경우, IFRS에 의한 편차가 없으므로 2011년도 평가 시 이용하였던 K-GAAP에 의한 편차(2006년부터 2010년의 자료 이용)를 다시 한 번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분	공기업
	경영평가부서
① 적절하다.	19 (73.08)
② 적절하지 않다.	4 (15.38)
③ 기타(적절한 대안을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3 (11.54)
합계	26 (10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라. 공기업 재무부서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 IFRS 도입이 국내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21개 공기업 (77.78%)이 “국내 자금조달 시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6개 기관은 IFRS 도입 후에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IFRS의 도입은 국내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VI-15〉 IFRS 도입이 국내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설문문항: IFRS 도입 후 귀사에서는 국내 자금조달 시(부채차입, 유상증자 등) 영향이 있었는지요?

구분	공기업
	재무부서
① 국내 자금조달 시 유리하였다.(자본비용의 감소 등)	0 (0)
② 국내 자금조달 시 불리하였다.(자본비용의 증가 등)	0 (0)
③ 국내 자금조달 시 영향이 없었다.	21 (77.78)
④ IFRS 도입 후에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다.	6 (22.22)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0 (0)
합계	27(100)

주: () 안은 비율임(%)

- IFRS 도입이 해외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14개 공기업 (51.85%)이 “해외 자금조달 시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3개 기관은 IFRS 도입 후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IFRS의 도입은 국내 자금조달과 마찬가지로 해외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으로는 IFRS 도입 후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IFRS의 도입이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많은 기간을 두고 분석될 필요가 있음

〈표 VI-16〉 IFRS 도입이 해외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설문문항: IFRS 도입 후 귀사에서는 해외 자금조달 시(부채차입, 유상증자 등) 영향이 있었는지요?

구분	공기업
	재무부서
① 해외 자금조달시 유리하였다.(자본비용의 감소 등)	0 (0)
② 해외 자금조달시 불리하였다.(자본비용의 증가 등)	0 (0)
③ 해외 자금조달시 영향이 없었다.	14 (51.85)
④ IFRS 도입 후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다.	13 (48.15)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0 (0)
합계	27 (100)

주: () 안은 비율임(%)

-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기업의 협조를 받아 IFRS 도입 전후의 외부 자금조달 금리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I-17〉 IFRS 도입 전후 자금조달 이자율 변화

기관명	해외사채발행이자율		국내사채발행이자율		기타자금조달이자율	
	IFRS 도입전	IFRS 도입후	IFRS 도입전	IFRS 도입후	IFRS 도입전	IFRS 도입후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여수광양항만공사			4.60%	4.00%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 금리	시장 금리	시장 금리	시장 금리
인천항만공사			4.88%	4.10%		
제주국제개발센터			기준금리+ 0.3%	기준금리+ 0.15%		
한국가스공사	3.40%	3.27%	4.90%	4.23%	2.63%	3.09%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4.125%		4.65%	4.43%	4.60%	
한국남동발전	6.00%	3.625%	4.15%	4.12%		
한국남부발전	5.375%		4.62%	3.18%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5.25%	2.50%	5.60%	4.05%	1.00%	
한국마사회						
한국방송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5.50%	3.125%	4.57%	3.97%	LIBOR3M+ 0.89%	LIBOR3M+ 0.94%
한국석유공사	2.875%	3.125%	5.22%			
한국수력원자력	3.125%	4.75%	3.08%	3.08%	1.50%	1.50%
한국수자원공사			4.89%	4.46%		
한국전력공사	3.073%		4.67%	4.32%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5.375%		5.42%	3.85%		
한국지역난방공사	4.55%	3.96%	4.97%	4.11%		
한국철도공사	5.375%	2.90%	4.66%	4.29%		
한국토지주택공사	4.10%	3.90%	3.99%	3.92%	3m CD +0.4%	3m CD +0.4%
한국관광공사						

- 해외 사채발행 이자율의 경우에 일부 기관이 이자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IFRS 도입의 영향이기보다는 차입금액의 규모나 차입조건이 다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IFRS 도입에 따라 해외사채의 유의미한 이자율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또한, 해외사채 발행이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기관은 그다지 많지 않아 비교되는 발행시점의 경영환경이 각각 다른 실정이고, 실제 도입 이후에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해외사채 발행이 없어 비교가 불가능한 기관도 상당수 존재하였음
 - IFRS 도입 이후 국내 사채 발행이자율이 도입 이전보다 조금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이것이 IFRS 도입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시중금리 자체가 도입 전 후에 낮아져 나타난 현상으로 IFRS 도입과 이자율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외부 자금조달의 경우 IFRS 전후로 큰 변동이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의 경우에는 평균가산금리가 오히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IFRS 도입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비교대상 차입 시점의 환경이나 차입자금의 규모 및 기타조건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IFRS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나 해외 차입에 있어서 재무제표 Conversion 비용의 절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기준에 기초한 재무정보 제공이라는 신뢰감 형성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입 전후 시점의 수치 단순비교만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마. 공기업 회계부서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 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감가상각비”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부채”, “수익(매출액 등)” 순임
- 본 문항과 관련된 기타의 응답으로는 “간주원가 적용 및 리스자산 반영으로 자산규모 증가”, “기능통화 도입으로 인해 환산대상 통화가 바뀜(KRW→USD로 기능통화 변경)”, “에특용자사업의 자산, 부채 순액 인식으로 인해 자산규모 감소, 회계처리 복잡성은 증가”,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산 및 부채 증가, 감가상각비” 등이 있음

〈표 VI-18〉 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설문문항: IFRS 도입으로 귀사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부분은?

구분	공기업
	회계부서
① 수익(매출액 등)	3 (11.54)
② 감가상각비	15 (57.69)
③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0 (0)
④ 부채	5 (19.23)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3 (11.54)
합계	26 (100)

주: () 안은 비율임(%)

- IFRS 도입이 회계부서(회계팀)의 임직원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변동이 없는 기관이 19개(70.37%)이고 증가한 기관이 8개(29.63%)임. 증가한 8개 기관의 평균 증가인원은 1.88명임

〈표 VI-19〉 IFRS 도입이 회계부서(회계팀)의 임직원 수에 미친 영향

설문문항: IFRS 도입으로 귀사의 회계부서(회계팀)의 임직원 수에 변동이 있었는지요?
(증가 또는 감소의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된 인원수를 적어주세요.)

구분	공기업
	회계부서
① 변동 없음 ()	19 (70.37)
② 증가 () 과거 (명)에서 현재 (명)으로 증가	8 (29.63) (평균증가인원: 1.88명)
③ 감소 () 과거 (명)에서 현재 (명)으로 감소	0 (0)
합계	27 (100)

주: () 안은 비율임(%)

- IFRS 도입이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익의 질에 변화가 없었다”는 기관이 12개(44.44%)이고,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기관이 6개(22.22%)이며, “이익의 질이 하락하였다”는 기관이 3개(11.11%)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IFRS의 도입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VI-20〉 IFRS 도입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설문문항: IFRS 도입으로 귀사의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참고] IFRS의 도입으로 이익조정이 감소하고 이익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이 높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면 이익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봄)

구분	공기업
	회계부서
①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다.	6 (22,22)
② 이익의 질이 하락하였다.	3 (11,11)
③ 이익의 질에 변화가 없었다.	12 (44,44)
④ 잘 모르겠다.	6 (22,22)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0 (0)
합계	27 (100)

주: () 안은 비율임(%)

바. 회계법인에 대한 설문 분석결과

- 회계법인에서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공기업 내부의 회계전문인력 부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14개(37.84%)로 가장 많고, “원칙중심인 IFRS 기준 자체의 모호성”이라는 응답이 12개(32.43%)로 두 번째로 많음

〈표 VI-21〉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어려운 점

설문문항: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공기업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구분	회계법인
① IFRS 도입에 대한 공기업 구성원의 이해 부족	3 (16,22)
② 공기업 내부의 회계전문인력 부족	14 (37,84)
③ IFRS 도입이 경영평가, 공공요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기업의 우려	5 (13,51)
④ 원칙중심인 IFRS 기준 자체의 모호성	12 (32,43)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0 (0)
합계	37 (100)

주: () 안은 비율임(%)

- 회계법인에서 IFRS 도입 후 회계감사 시간을 증가시킨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IFRS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18개(47.37%)로 가장 많고, “공시할 주식 양의 증가”라는 응답이 14개(36.84%)로 두 번째로 많음
- 본 문항과 관련된 기타의 응답으로는 “GAAP 차이의 적정성 검토시간 증가, 최초 도입에 따른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확대 및 주식공시량의 증가”, “IFRS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감사인이 제반업무(전환효과산출, 신규주식의 산출 등) 모두 수행함”, “최초 도입에 따른 감사대상의 재무제표의 확대 및 주식공시량의 증가, IFRS에 대한 피감업체의 이해 부족” 등이 있음

〈표 VI-22〉 IFRS 도입 후 회계감사 시간을 증가시킨 이유

설문문항: 2012년초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민간기업에 대한 감사를 포함) 시 감사시간을 증가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회계법인
①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IFRS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18 (47.37)
② IFRS 기준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경험 부족	2 (5.26)
③ 공시할 주식 양의 증가	14 (36.84)
④ 원칙중심인 IFRS의 모호성으로 인한 회계감사 대상 기업과의 의견 불일치 해소 문제	0 (0)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0 (0)
합계	38 (100)

주: () 안은 비율임(%)

사. 기타사항

- 본절에서는 IFRS 도입을 경험한 후에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준정부기관 등을 위하여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제시함

(가) 공기업 경영평가부서

- 경영평가부서에서는 IFRS에 대한 기관 내부의 이해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관련부서에

서 필수적으로 IFRS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할 것과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회계부서 및 외부감사 회계법인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함. 또한 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의 복잡성이 증가하므로 관련 인력의 확충 및 전산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IFRS를 기도입하여 평가받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실사 준비 노하우를 배울 것을 제안함

(나) 공기업 재무부서

- 재무부서에서는 감가상각비 등 회계처리의 변경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할 것과 IFRS 도입으로 기관별로 재무제표 양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서는 통일된 양식으로 재무제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처리가 가중됨에 대한 지적과 회계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제안이 있음

(다) 공기업 회계부서

- 회계부서에서는 기관의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함을 지적함. 또한 IFRS 도입에 따른 회계정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고 회계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며, K-IFRS에서 영업이익 관련 기준이 변경된 것을 공기업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함

(라) 회계법인

-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주관식 설문문항에 대한 의견이 많음. 그러나 설문문항은 (1) IFRS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2) 공기업 내부의 이해와 협조 (3) 정부와 경영평가단의 노력 및 (4)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로 요약될 수 있음
- IFRS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순환근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기업 내에서 IFRS 전문가의 양성을 제안함. 공기업 내부의 이해와 협조와 관련해서는 IFRS 도입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회사의 업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함. 또한 정부와 경영평가단이 IFRS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이나 세부지침 등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하고, IFRS의 도입이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아.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한 27개 공기업과 공기업의 IFRS 도입을 자문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21개(공기업 81개(27개 기관×3개 부서) + 공기업 IFRS 도입자문 회계법인 40개)의 설문지가 회수됨
- 공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공통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장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기업 관련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라는 응답이 50% 내외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여”라는 응답이 많음
 -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단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와 재무부서는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저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실제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회계부서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함
 - 공기업에서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여러 회계처리방법의 대안이 있을 때 공기업의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설문에서 공기업에서는 부서와 관계 없이 “IFRS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의 선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회계법인에서는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의 선택”이라는 응답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유리한 방법의 선택”이라는 응답 순으로 많음. 그리고 이는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 유일하게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남
 - 공기업에서 IFRS 도입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 공기업의 전 부서와 회계법인 모두 “감가상각 관련(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이슈”라는 응답과 “수익인식 관련 이슈”, “자산재평가 관련 이슈” 순으로 많음
 -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성공요인에 대한 설문에서 공기업의 전 부서와 회계법인 모두 “공기업 내부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경영진의 의지 포함)”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IFRS 관련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확보”, “IFRS 도입 자문 회계법

인과의 긴밀한 협조” 순으로 많음

- 공기업에서 IFRS 도입 시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에서는 “IFRS 도입에 대한 회사 내부의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과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재무부서와 회계부서에서는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특히 회계부서의 경우에는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함

○ 공기업에 대한 공통질문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기업에서 IFRS 도입 시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에서는 “IFRS 도입에 대한 회사 내부의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과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재무부서와 회계부서에서는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특히 회계부서의 경우에는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함. 공기업 내부의 회계전문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응답을 함
- 공기업에서 IFRS 도입 준비 시 정부 또는 경영평가단에 대해 아쉬운 점에 대하여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에서는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불확실성(평가 관련 방침 확정의 지연 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재무부서와 회계부서에서는 “IFRS에 대한 준비 부족(재무제표 양식의 늦은 확정 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13개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와 재무부서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회계부서에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공기업의 모든 부서에서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음. 두 응답의 합은 전체 74.07%로서 공기업의 구성원들은 IFRS의 도입이 경영평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경영평가에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공기업의 경영평가부서에 대해서 경영평가 시 IFRS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평가한 것에 대한 설문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이 적절하였다”라는 응답이 80%

로 가장 많음. 이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경영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2011년도에 대한 경영평가 시 목표부여(편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치는 전년도 IFRS 금액을 이용하고 편차는 K-GAAP에 의한 금액을 이용한 것에 대한 설문에 대해 “적절하였다”라는 응답이 85.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11년도의 경영평가방법론에 대해서 공기업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재무부서는 IFRS 도입이 국내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 대해 21개 공기업(77.78%)이 “국내 자금조달 시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답하였고, 6개 기관은 IFRS 도입 후에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IFRS의 도입은 국내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IFRS 도입이 해외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14개 공기업(51.85%)이 “해외 자금조달 시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답하였고, 13개 기관은 IFRS 도입 후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IFRS의 도입은 국내 자금조달과 마찬가지로 해외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회계부서에 대해 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감가상각비”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부채”, “수익(매출액 등)” 순임. 또한 IFRS 도입이 회계부서(회계팀)의 임직원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변동이 없는 기관이 19개(70.37%)이고 증가한 기관이 8개(29.63%)임. 증가한 8개 기관의 평균 증가인원은 1.88명임
-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공기업 내부의 회계전문인력 부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14개(37.84%)로 가장 많고, “원칙중심인 IFRS 기준 자체의 모호성”이라는 응답이 12개(32.43%)로 두 번째로 많음. 또한 IFRS 도입 후 회계감사 시간을 증가시킨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IFRS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18개(47.37%)로 가장 많고, “공시할 주식 양의 증가”라는 응답이 14개(36.84%)로 두 번째로 많음.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은 공기업 내의 회계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재무제표 작성과정(특히

주석 작성과정)에 공인회계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회계감사 시간이 증가하여 충실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지적한 경우가 많음. 재무제표 작성과정에 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독립성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향후에 공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이외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함

- 공기업과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IFRS 도입 시 “공기업 내부구성원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며, 아울러 공기업 내부의 회계전문 인력의 양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27개 공기업 중에서 회계부서의 인력이 증가한 기관은 8개이며, 증가 인원은 평균 1.88명에 불과함. 이러한 결과는 준정부기관에서도 IFRS 도입시 내부구성원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며, 회계전문 인력의 양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 한편, 당초 우려와는 달리 IFRS의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분법 손익을 반영한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2011년도에 대한 경영평가지 목표부여(편차)를 적용할 때의 기준치는 2010년도 IFRS 금액을 이용하고 편차는 K-GAAP에 의한 금액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기업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IFRS 도입이 국내외 해외 자금조달 시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IFRS의 도입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기관 내부구성원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하며, 기관 내부의 회계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공기업에 비해 인적자원이 부족한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내부구성원의 이해와 협조가 더욱 중요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야 함. 그러나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IFRS 관련 도움을 받거나 재무제표 작성의 일부를 의뢰하는 것은 독립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회계법인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IFRS를 도

- 입한 공기업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IFRS 도입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함
- IFRS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기관 고유의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미리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IFRS 도입 시 일반적으로는 감가상각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만 기관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본 설문조사는 공기업(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및 회계부서)과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이는 주로 공기업 IFRS의 생산자 관점에서의 조사임. 그러나 공기업 내에서 재무부서는 국내외 자금조달 시 주된 이용자라고 볼 수 있음. 그 외의 공기업 IFRS의 이용자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관련 공무원일 수 있으나, 그 수가 제한적이어서 설문 대상에서 제외함. 따라서 본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

Ⅶ.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2011년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았음
-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수치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전환일의 자산재평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퇴직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수익인식 기준의 변경 등임
 - 27개 공기업 중 13개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철도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기업은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 대부분의 공기업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음
 - 퇴직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는 고급여 임직원이 많은 공기업의 경우 부채와 비용이 증가하는 불리한 영향이 나타났음
 - 가스공사 등은 기존의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대폭 증가하였음
 - 토지주택공사와 JDC 등은 부동산 분양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변경으로 재무정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
- 공기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경영평가 상여금의 인식 변경,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변경 등이 있음
 - 종전에는 현금주의에 따라 경영평가 상여금의 비용인식 시점을 정하였으나 발생주의에 충실하여 종업원의 근무용역제공 시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영평가 상여금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유동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 종전에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던 공사부담금을 이연수익(부채)으로 처리함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동액으로 증가함

○ 요약하면, 기관이 스스로 선택 적용 혹은 추정하게 되는 자산재평가와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 반면, 기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드시 따라야 할 회계정책의 도입 효과는 일률적인 방향을 예견할 수 없음. 한편, 리스분류 변경,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계정 재분류 등은 자산과 부채항목에 동일한 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IFRS 도입으로 변경된 재무제표 금액에 따라 기관의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요금 산정기준임

- 사전적인 우려와 달리 IFRS 도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는 위의 분석들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재확인하여 주었음

- IFRS 도입의 장점(기대효과)으로 공공요금, 자금조달비용 등 구체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제시하기보다는 회계 투명성 제고,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정확한 평가 등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공기업 경영평가, 자본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위의 분석 결과와 일관된 결과임. 이익의 질 제고가 없었다는 응답은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와 모순되는 답변으로 보이지만, 이익의 질을 평가하기에는 IFRS에 의한 재무제표 정보의 누적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그리고 회계 투명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광범위한 기대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2. 연구의 결론

- IFRS라는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민간기업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회계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보다 짧은 준비기간에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서 공공기관 IFRS 도입의 1단계인 공기업 도입 과정은 큰 혼선 없이 무난히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모든 기관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감사의견도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음
 - 정부 주도로 도입자문단이 구성되어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였으며 회계법인은 조기 도입한 민간기업 컨설팅 경험을 적극 공유하였음
- 기관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적극적, 전략적 선택을 하였음
 - 재무제표 금액이 직접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IFRS 도입에 따라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면서 가급적 종전과의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기관의 동기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중심의 국제적 회계기준의 도입은 기관의 내부 회계역량 강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로 연결됨과 동시에 외부 회계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IFRS의 도입에 따라 기관은 스스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는 재무제표가 산출됨에 따라 기관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자본비용의 절감 등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임

○ 상기와 같이 IFRS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경영진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회계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것
-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부 회계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회사 내부의 회계전문 인력 확충을 도모할 것
- 경영평가, 공공요금, 배당, 중장기재무계획 등 재무제표 금액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완작업을 수행

○ 본 연구는 전체 공공기관 중 일부인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도입 전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자료 확보 및 준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특히, 공공기관들도 업종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해당 업종 고유의 회계 이슈를 심층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추후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IFRS 조기적용기업의 재무영향 분석」, 보도자료, 2010.4.26.
- _____,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보도자료, 2011.5.16.
- 송인만·양동훈·김인숙, 「IFRS 조기도입의 주요 특징 및 재무제표 영향」,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2010, pp.345~370.
- 안진회계법인, 『공공기관과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09.
- 이우재·오광욱·정석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비용과 기업특성」, 『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2010, pp.297~327.
- 이창우·정대길·배성규·전규안·이주현·김하균·강정구, 『IFRS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연구 용역 T/F, 2011.
- 장지인,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KIPF 공공기관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0, pp.4~21.
- 정성호, 「공공기관의 K-IFRS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재정네트워크』,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정운오, 「국제회계기준의 세계화에 따른 자본시장 연구동향」,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대한민국학술원, 2012, pp.196~294.
- 최성호·김인숙·최관, 「K-IFRS 조기도입기업의 이익특성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제36권 제2호, 2011, pp.1~30.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기업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부회계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2011.
- 황이석·남혜정, 「IFRS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검토」, 제111회 KAI Forum 발표자료, 2012.
- _____, 「IFRS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3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자료, 2012.

- Ahmed A. M. Neel, and D. Wang, "Does Mandatory Adoption of IFRS improve Accounting Quality? Preliminary Evidence," Working Paper, 2012.
- ANDRE, Paul, and Andrei FILIP, "Accounting Conservatism in Europe and the Impact of Mandatory IFRS Adoption: Do country, institutional and legal differences survive?," Working Paper.
- Armstrong, Christopher S., Mary E. Barth, Alan D. Jagolinzer, and Edward J. Riedl, "Market Reaction to the Adoption of IFRS in Europe," *The Accounting Review*, 2010, pp.21 ~ 51.
- Barth, Mary E., Wayne R. Landsman, and Mark H. La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008, pp.467 ~ 498.
- Barth, Mary E., Wayne R. Landsman, Danqing Young, and Zili Zhuang, "Relevance of Differences between Net Income based on IFRS and Domestic Standards for European Firms," Working Paper, 2012.
- Capkun, Vedran, Anne Cazavan-Jeny, Thomas Jeanjean and Lawrence A. Weiss, "Earnings Management and Value Relevance during the Mandatory Transition from Local GAAPs to IFRS in Europe," Working Paper, 2008.
- Covrig, V., M. Defond, and M. Hung, "Home Bias, Foreign Mutual Fund Holdings, and the Voluntary Adop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007, pp.41 ~ 70.
- Cuijpers, R., and W. Buijink, "Voluntary Adoption of Non-local GAAP in the European Union: A Study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European Accounting Review*, 2005, pp.487 ~ 524.
- Daske, H., "Economic Benefits of Adopting IFRS or US-GAAP – Have the Expected Cost of Equity Capital Really Decreased?,"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2006, pp.329 ~ 373.
- Daske, H. L. Hail, C. Leuz, and R. Verdi, "Mandatory IFRS Reporting around the World: Early Evidence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008, pp.1085~1142.

Gassen J. and T. Sellhorn, "Applying IFRS in Germany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Working Paper, 2006.

Hoeton, Joanne, George Serafeim, and Ioanna Serafeim, "DOES MANDATORY IFRS ADOPTION IMPROVE THE INFORMATION ENVIRONMENT?," Working Paper., 2008.

Ismail, Wan Adibah Wan, Tony van Zijl, and ha Dunstan, "EARNINGS QUALITY AND THE ADOPTION OF IFRS-BASED ACCOUNTING STANDARDS: EVIDENCE FROM AN EMERGING MARKET," Working Paper, 2011.

Jarva, Henry and Anna-Maija Lantto, "Information Content of IFRS versus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Evidence from Finland," Working Paper., 2012.

Leuz, C., "IAS Versus U.S. GAAP: Information Asymmetry-Based Evidence from Germany's New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003, pp.445~472.

Li, Siqu, "Does Mandatory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the European Union Reduce the Cost of Equity Capital," *The Accounting Review*, 2010, pp.607~636.

Tendeloo, B. V. and A. Vanstraelen, "Earnings Management under German GAAP versus IFRS," *European Accounting Review*, 2005, pp.155~180.

부록 1. 공공기관 IFRS 도입 상황

〈부표 1〉 공공기관 IFRS 도입 진행 상황 점검 제1차(2009년 9월)

[illegible]

〈부표 3〉 공공기관 IFRS 도입 진행 상황 점검 제3차(2010년 9월)

[illegible]

부록 2. 개별 공공기관별 IFRS 도입 이슈 분석

1. 한국광물자원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종전기준 (K-GAAP)	1,741	1,511	230	
(1) 지분법평가손익 재분류	△77	△77	-	지분법평가손실을 수익차감으 로 분류(계정과목체계 변경으 로 인한 사항임)
(2) 퇴직급여	△3	△3	-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퇴직 급여 조정
(3) 감가상각비	-	△17	17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4) 금융상품평가	283	257	26	금융상품 관련 현재가치평가
(5) 대손상각비	6	34	△28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에 의한 대손상각비 조정
(6) 광물(니켈)펀드	31	-	31	외화환산이익
(7) 경쟁능력상여금	-	12	△12	비용계상연도 변경
(8) 지분법손익제거	△135	-	△135	별도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지 분법 손익 제거
(9) 지분법적용	236	101	135	지분법 손익 계상
(10) 이연법인세	-	△26	26	전환효과관련 이연법인세 조정
(11) 기타	△39	-	△39	미수이자보정액 및 국고환산조 정계정 제거 등
조정사항 합계	302 (17.3%)	281 (18.6%)	21 (9.1%)	
국제회계기준 (K-IFRS) : 별도+지분법	2,043	1,792	251	

□ (총수익) 302억원 증가(17.3% 증가)

- 금융상품평가 관련 이자수익 등 증가
- 광물(니켈)펀드 외화환산이익 계상

□ (총비용) 281억원 증가(18.6% 증가)

- 금융상품평가 관련 이자비용 등 증가
- 대손상각비, 경쟁능력 상여금 등 증가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이연법인세 부채 감소

□ (당기순이익) 21억원 증가(9.1% 증가)

- 광물(니켈)펀드 외화환산이익 계상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23,963	14,830	9,133	
(1) 자산부채 분류변경	1,960	1,960	-	자산차감 국고보조금을 부채(이연수익)로 계상
(2) 유·무형자산	19	2	17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사항 반영
(3) 퇴직급여	1	4	△3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퇴직급여 조정
(4) 금융상품평가	55	30	25	금융상품 관련 현재가치평가
(5) 대손충당금	84	-	84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에 의한 대손충당금 조정
(6) 광물(니켈)펀드	-	224	△224	유동화채무의 외화환산
(7) 경쟁능력 상여금	-	59	△59	미지급비용 계상
(8) 부의 영업권 환입	14	-	14	암바토비 부의 영업권 환입
(9) 성공불용자 상계제거	△454	△454	-	성공불용자 관련 대여금 및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차입금의 상계 제거
(10) 이연법인세	-	△26	26	이연법인세부채 감소
(11) 기타	1	△8	7	미수이자보정액 및 국고환산조정계정 제거 등
조정사항 합계	1,680 (7.0%)	1,791 (12.1%)	△111 (△1.2%)	
국제회계기준 (K-IFRS) : 별도+지분법	25,643	16,621	9,022	

□ (자 산) 1,680억원 증가(7.0% 증가)

- 자산차감 국고보조금을 부채(이연수익)로 계상, 성공불용자 관련 대여금의 제거 등에 따른 자산 증감

□ (부 채) 1,791억원 증가(12.1% 증가)

- 자산차감 국고보조금을 부채(이연수익)로 계상, 성공불용자 관련 차입금의 제거, 유동화채무의 외화환산 등에 따른 부채 증감
-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감소

□ (자 본) 111억원 감소(1.2% 감소)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2. 대한석탄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222,966	299,139	△76,173	
① 유형자산처분이익	213	-	213	·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증가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증가
② 금융수익	△1,126	-	△1,126	· 퇴직연금운용자산 이자를 금융수익에서 퇴직급여로 변경
③ 경영평가성과급	-	675	△675	· 발생시점 기준으로산정
④ 연차수당	-	679	△679	· 발생시점 기준으로산정
⑤ 퇴직급여	-	△2,704	2,704	· 보험수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를 측정, 제상
⑥ 감가상각비		5,132	△5,132	· 광업소 자산 중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⑦ 대손상각비		△139	139	·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 취소분
⑧ 유형자산처분손실		△1,848	1,848	·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증가로 유형자산처분 손실 감소
⑨ 기타 잡손실		971	△971	· 1심 패소 소송건에 대한 소송충당부채를 기타잡손실 처리
⑩ 전기오류수정손실		△5	5	· K-GAAP의 감가상각 완료자산에 대한 손실처리 취소액
⑪ 재고차이		△104	104	· 매출원가 감소분 제품으로 대체
조정사항 합계	△913 (△0.41%)	2,657 (0.89%)	△3,570 (△4.69%)	
국제회계기준 (K-IFRS)	222,053	301,796	△79,743	

□ (총수익) 913백만원 감소(0.41% 감소)

-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증가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증가
- 퇴직연금운용자산 이자를 금융수익에서 퇴직급여로 변경에 따른 금융수익 감소

□ (총비용) 2,657백만원 감소(0.89% 감소)

- 경영평가성과급, 연차수당, 감가상각비, 기타 잡손실 증가
-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감소

□ (당기순이익) △79,743백만원 감소(4.69% 감소)

-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따른 당기손익 감소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713,340	1,305,832	△592,492	
① 감가상각방법 변경	△107,445	-	△107,445	○ 광업소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생산량 비례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② 대손충당금 환입	463	-	463	○ 매출채권 대손 미발생으로 기존 충당액 환입
③ 제품	104	-	104	○ 매출원가감소분 제품으로 대체
④ 종업원 급여 증가	-	10,716	△10,716	○ 연차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인식
⑤ 퇴직급여	-	△2,970	2,970	○ 보험수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확정급여 퇴직급여를 측정, 평가
⑥ 충당부채 계상	-	996	△996	○ 1심 패소 소송건에 대해서 충당부채 계상
조정사항 합계	△106,878 (△15%)	8,742 (0.7%)	△115,620 (△19.5%)	
국제회계기준 (K-IFRS)	606,462	1,314,574	△708,112	

□ (자 산) 106,878백만원 감소(△15% 감소)

○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손충당금 환입 및 매출감소분 제품 대체에 따른 자산 감소

□ (부 채) 8,742백만원 증가(0.7% 증가)

○ 연차수당·경영평가성과급 인식, 퇴직급여 및 충당부채 계상에 따른 부채 증가

□ (자 본) 115,620백만원 감소(19.5% 감소)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 조정

3. 대한주택보증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8,546	3,039	5,507	
①보증부채	△3,711	-	△3,711	◦ 보증손실충당부채(K-GAAP) 환입액 제거
	-	1,085	△1,085	◦ 책임준비금전입액(IFRS)
②구상가능채권평가		△3,782	3,782	◦ 구상채권대손상각비 제거(K-GAAP)
	-	6,997	△6,997	◦ 보증금비용(IFRS)
		△3,367	3,367	◦ 구상이익(IFRS)
③대손충당금	-	248	△248	◦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차이
④기 타	△453	809	△1,262	◦ 선수보증료 보정 제거(△911)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이자(388) ◦ 투자부동산관련손익 (59) ◦ 일시적 차이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 차이(△790) 등
조정사항 합계	△4,164 (△48.7%)	1,990 (65.5%)	△6,154 (△111.7%)	
국제회계기준 (K-IFRS)	4,382	5,029	△647	

□ (총수익) 4,164억원 감소(48.7% 감소)

○ 보증손실충당부채환입액 감소(제거)

□ (총비용) 1,990억원 증가(65.5% 증가)

○ 보증영업비용(책임준비금전입액, 보증금비용) 신규 발생

○ 대손상각비 감소(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구상가능채권 제외)

□ (당기순이익) 6,154억원 감소(111.7% 감소)

○ 보증부채, 보증금비용 등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당기순이익 감소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56,199	19,416	36,783	
① 보증부채	-	△7,253	7,253	◦ 보증부채 설정대상 및 설정 방법 변경
② 구상가능채권 평가	1,333	-	1,333	◦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변경 (자산건전성분류→개별/집 합평가)
③ 금융자산 대손충당금	1,492	-	1,492	
④ 금융자산 공정가액 평가	△2,228	-	△2,228	◦ 금융자산 현재가치 평가 등
⑤ 기 타	△765	72	△837	◦ 일시적차이 변동에 따른 이 연법인세 차이(△785) ◦ 감가상각방법 변경, 퇴직부 채 차이, 연차수당 인식 등
조정사항 합계	△168 (△0.3%)	△7,181 (△37.0%)	7,013 (19.1%)	
국제회계기준 (K-IFRS)	56,031	12,235	43,796	

□ (자 산) 168억원 감소(0.3% 감)

○ 금융자산 공정가액 평가,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변경 등에 따른 자산 증감

○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감소

□ (부 채) 7,181억원 감소(37.0% 감)

- 보증부채 설정대상 및 설정방법 변경에 따른 부채 감소
- 퇴직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측정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 본) 7,013억원 증가(19.1% 증)

- IFRS에 따른 자산, 부채 설정방법 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

4. 부산항만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3,112	2,343	769	
① 리스자산처분	△249	215		리스자산처분이익과 감가상각비 상계처리
② 금융수익	5			금융보증수익 환입
③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324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 률(4년)에서 정액(30년)으 로 변경
④ 자회사 지원금		△45		지급수수료 위탁비 조정
⑤ 법인세비용		△20		IFRS기준 세전이익 감소
조정사항 합계	△244	△174	△70	
국제회계기준 (K-IFRS)	2,868	2,169	699	

□ (총수익) 244억원 감소(7.84% 감)

- 리스자산처분이익이 감가상각비와 상계

□ (총비용) 174억원 감소(7.4% 감)

- 기계장치 등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정률 4년에서 정액 30년으로)
- IFRS기준 세전이익 감소 및 지급수수료 중 위탁비 조정

□ (당기순이익) 70억원 감소(9.1% 감)

- 2010년도의 리스자산처분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당기순이익 감소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47,686	14,273	33,413	
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등	380			기계장치의 상각방법, 내 용연수 변경(정률 4년에서 정액30년)
② 지급수수료 조정 등		64		지급수수료 위탁비 조정
③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증가			316	감가상각비 등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이익잉여 금 증가분
조정사항 합계	380(0.80%)	64(0.45%)	316(0.95%)	
국제회계기준 (K-IFRS)	48,066	14,337	33,729	

□ (자 산) 380억원 증가(0.8% 증)

-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감소

□ (부 채) 64억원 증가(0.45% 증)

- 지급수수료 조정 등에 따른 위탁비 조정

□ (자 본) 316억원 증가(0.95%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5. 인천국제공항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13,410	10,168	3,242	
① 장기임대보증금	386	386	-	◦ 장기임대보증금 기간수익 및 기간비용 인식
② 감가상각비		141	△141	◦ 유형자산 분류 및 내용연수 변경
③ 제수당		△26	26	◦ IFRS 기준 적용
④ 퇴직급여	△6	△41	35	◦ IFRS 기준 적용
⑤ 지분법평가주식	△12		△12	◦ 지분법평가이익 삭제 및 배당금수익 인식
⑥ 소송충당부채		81	△81	◦ IFRS 기준 적용
⑦ 기 타	△1	△38	37	◦ 지분법 이익의 제거 등
조정사항 합계	367 (2.7%)	503 (4.9%)	136 (△4.2%)	
국제회계기준 (K-IFRS)	13,777	10,671	3,106	

□ (총수익) 367억원 증가(2.7% 증)

○ 장기임대보증금 기간수익에 따른 임대수익 증가

□ (총비용) 503억원 증가(4.9% 증)

○ 장기임대보증금 기간비용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 유형자산 분류 및 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 (당기순이익) 136억원 감소(4.2% 감)

○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78,096	31,877	46,219	
① 대손충당금	13		13	◦ IFRS 기준 적용
② 이연법인세자산	492		492	◦ IFRS 기준 적용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		△15	◦ 지분법평가이익 삭제
④ 감가상각누계액	△1,859		△1,760	◦ 유형자산 분류 및 내용연수 변경
⑤ 금융보증충당부채		255	△255	◦ 금융보증충당부채 인식
⑥ 미지급비용		97	△97	◦ 연월차 및 상여충당부채 인식
⑦ 소송충당부채		26	△26	◦ IFRS 기준 적용
⑥ 기 타	47	△4	△45	◦ 퇴직급여부채 조정 등
조정사항 합계	△1,319 (△1.7%)	374 (1.2%)	△1,693 (△3.7%)	
국제회계기준 (K-IFRS)	76,777	32,251	44,526	

□ (자 산) 1,319억원 감소(1.7% 감)

○ 유형자산 분류 및 내용연수 변경, IFRS기준에 따른 세법과의 불일치 증가로 이연법인세자산 변동

□ (부 채) 374억원 증가(1.2% 증)

○ 금융보증충당부채, 연월차, 상여, 소송충당부채 인식으로 인한 부채 증가

□ (자 본) 1,693억원 감소(3.7% 감)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6. 인천항만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796	770	25	
① 감가상각비	0	△23	23	◦ 구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증가
② 급여	0	△1	1	◦ 연차수당
③ 대손상각비	0	△3	3	◦ 매출채권 및 미수금 대손 상각비 변경
④ 법인세비용	0	3	△3	◦ 이연법인세 회계
⑤ 지분법이익	0	13	△13	◦ 지분법효과 제거
⑥ 퇴직급여	0	1	△1	◦ 확정급여채무
조정사항 합계	0	△10	10	
국제회계기준 (K-IFRS)	796	760	36	

☐ (총수익)

○ 증가없음

☐ (총비용) 10억원 감소(1.2% 감)

○ 구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20→40년) 및 기계장치 등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감가 상각비 감소

○ 그 외 지분법이익 제거 및 연차수당 등으로 총비용 감소

☐ (당기순이익) 10억원 증가(40% 증)

○ 구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지분법, 확정급여채무 등으로 비용감소되어 당기순 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23,204	2,426	20,778	
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등	12			기계장치의 상각방법, 내 용연수 변경
② 퇴직급여 채무		1		◦ 보험수리적 가정
③ 회계정책변경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증가			11	◦ 감가상각비 등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이익잉여 금 증가분
조정사항 합계	12 (0.05%)	1 (0.04%)	11 (0.05%)	
국제회계기준 (K-IFRS)	23,218	2,428	20,789	

□ (자 산) 12억원 증가(0.05% 증)

○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감소

□ (부 채) 1억원 증가(0.04% 증)

○ 퇴직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측정 및 연차수당·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
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증감

□ (자 본) 11억원 증가(0.05%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3,201	2,736	465	
① 수익인식	151		151	◦ 진행기준→완성·인도기준 ◦ 첨단과기단지 부지조성공사 완공·인도로 매출인식
② 정부출연금	△70		△70	◦ 관련 자산에서 차감
③ 매출원가		125	△125	◦ 수익인식기준 변경에 따라 매출원가 증가
④ 경영평가 성과급		△4	4	◦ 비용계상연도 변경('10→'11)에 따른 실제 지급금 차이
⑤ 연차휴가수당		1	△1	
⑥ 퇴직급여	-	-	-	◦ 보험수리적 평가 후 확정
⑦ 유형자산 상각방법		△3	3	◦ 정률법→정액법
⑧ 금융상품 재평가		△1	1	◦ 금융상품 현재가치 인식
⑨ 위험회피 회계	5		5	◦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미적용
⑩ 법인세		△15	15	◦ 이연법인세 효과
조정사항 합계	86 (2.9%)	103 (2.2%)	△27 (△5.8%)	
국제회계기준 (K-IFRS)	3,287	2,839	448	

□ (총수익) 86억원 증가(2.9% 증)

○ 수익인식 기준 변경에 따른 수익 증가

□ (총비용) 100억원 증가(3.7% 증)

○ 수익인식 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원가 증가

○ 자산부채 평가방법 및 인식시기 변경에 따른 비용 감소 및 법인세 감소

□ (당기순이익) 4억원 감소(0.9% 감)

○ 수익인식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5,983	2,750	3,234	
① 수익인식	△11		2	◦ 진행기준→완성기준
② 유형자산 상각방법	10		8	◦ 정률법→정액법
③ 정평성과금 및 제수당		26	△30	◦ 평가대상연도 부채인식
④ 정부출연금	△162		△132	◦ 관련 자산에서 차감
⑤ 위험회피회계			△5	◦ 위험회피회계 미적용
⑥ 금융보증채무	92	92		◦ 지급보증 채무 계상
⑦ 이연법인세 등	49		59	◦ 이연법인세 등 조정
조정사항 합계	△21 (△0.4%)	118 (4.3%)	△97 (△3.0%)	
국제회계기준 (K-IFRS)	6,005	2,868	3,136	

□ (자 산) 22억원 증가(0.4% 증)

- 지급보증 채무 계상, 이연법인세 분류방법 변경 등으로 증가
- 정부출연금 수입의 분류방법의 변경 등으로 자산 감소

□ (부 채) 118억원 증가(4.3% 증)

- 연차수당·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지급보증에 대한 금융보증채무의 계상

□ (자 본) 97억원 감소(3.0% 감)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8. 한국가스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234,053	231,991	2,062	
① 리스	599	△572	1,171	
② 리스위험회피	△811		△811	
③ 종업원급여	△31	△104	73	
④ 지분법	△142	△109	△33	
⑤ 예특용자금	21		21	
⑥ 금융비용자본화	-	△31	31	
⑦ 대손충당금		△26	26	
⑧ 유형자산	2	△130	132	
⑨ 기타	7	175	△168	
조정사항 합계	△355	△797	442	
국제회계기준 (K-IFRS)	233,698	231,194	2,504	

□ (총수익) 355억원 감소

- LNG수송선 금융리스 전환으로 수송비 2,995억원 감소,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비 1,780억원 증가 등
- 금융리스부채 외화환산이익 811억원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대체

□ (총비용) 797억원 감소

-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및 법인세 효과

□ (당기순이익) 442억원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242,924	189,955	52,969	
① 유형자산	24,936	5,479	19,457	
② 금융리스	23,132	23,001	131	
③ 대손충당금	253		253	
④ 종업원급여		429	△429	
⑤ 지분법	173		173	
⑥ 기타	323	295	28	
조정사항 합계	48,817	29,204	19,613	
국제회계기준 (K-IFRS)	291,741	219,159	72,582	

□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및 자산재평가

○ 배관(22,648억원) 및 탱크(2,126억원)에 의한 증가 및 감가상각비 감소에 의한 증가

□ LNG수송선 금융리스 전환 영향

구 분	증감액	증 감 내 역
자 산	23,132	* 1~17호선, 용선5호선 금융리스전환 (2조3,985억원) * 18~21호선 선급금의 리스자산대체 (△853억원)
부 채	23,001	* 1~4호선 : 변동없음 (상환완료) * 5~21호선 및 용선5호선 (2조 3,001억원 증가)
자 본	131	* 이익잉여금 (1,041억원 감소) * 당기순이익 (1,172억원 증가)

9. 한국감정원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1,066	1,037	29	
① 공공사업수익 (공동주택조사업무)	2		2	◦ 진행 기준 수익 인식에 따른 증가
② 지가조사수익	△5		△5	◦ 진행 기준 수익 인식에 따른 감소
③ 금융수익	△7		△7	◦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퇴직급여에서 차감
④ 경영평가성과급		5	△5	◦ 비용계상연도 변경에 따른 증가
⑤ 퇴직급여		△14	14	◦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계상함에 따른 감소
⑥ 감가상각방법 변경		4	△4	◦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증가
⑦ 충당부채전입액		2	△2	◦ 충당부채인식방법 변경
⑧ 대손상각비		1	△1	◦ 연령분석에 의한 설정
⑨ 법인세비용		△6	6	◦ IFRS기준 세전이익 감소
조정사항 합계	△10 (△0.9%)	△8 (△0.8%)	△2 (△6.9%)	
국제회계기준 (K-IFRS)	1,056	1,029	27	

☐ (총수익) 10억원 감소(0.9% 감)

○ 공공사업 및 지가조사 수익인식 방법 변경 등에 의한 감소

☐ (총비용) 8억원 감소(0.8% 감)

○ 퇴직급여 설정 방법 및 감가상각 방법 변경에 따른 감소

☐ (당기순이익) 2억원 감소(6.9% 감)

○ 진행기준 수익인식에 따른 수익 감소 및 퇴직급여 감소 등에 따라 당기 순이익 감소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3,855	3,420	435	※ 보상수탁예수금 포함
① 대손충당금	△10		△10	◦ 연령분석에 의한 설정
② 경영평가성과급		105	△105	◦ 근로제공연도 부채인식
③ 감가상각방법 변경	9		9	◦ 감가상각방법 변경 (정률법→정액법)
④ 수익인식기준 변경	80		80	◦ 진행기준 수익인식
⑤ 퇴직급여채무	30		30	◦ 보험수리적 측정
⑥ 소송충당부채		△44	44	◦ 충당부채 인식방법 변경
⑦ 기타	△11	△1	△10	◦ 이연법인세 조정 등
조정사항 합계	98 (2.5%)	60 (1.8%)	38 (8.7%)	
국제회계기준 (K-IFRS)	3,953	3,480	473	

□ (자 산) 98억원 증가(2.5% 증)

○ 수익인식기준 변경에 따른 외상매출금 증가 등

□ (부 채) 60억원 증가(1.8% 증)

○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년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소송 패소로 유출 가능성 높은 금액만 부채로 인식 등

□ (자 본) 38억원 증가(8.7%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10. 한국공항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505,989	448,334	57,654	
① 기타임대료	3,121		3,121	임대보증금 상각후 원가적용
② 퇴직급여		△2,266	2,266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퇴직 급여충당부채설정
③ 제수당		2,991	△2,991	경영성과급 근로제공 시점 비 용인식
④ 감가상각비		△6,057	6,057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 연수 변경
⑤ 대손상각비		1,495	△1,495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변경
⑥ 유형자산처분이익	△58		△58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 연수 변경에 따른 처분손익
⑦ 대손충당금환입	389		389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변경
⑧ 유형자산처분손실		△51	5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 연수 변경
⑨ 이자수익	△874		△874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⑩ 이자비용		3,121	△3,121	임대보증금 상각후 원가적용
⑪ 법인세비용		1,225	△1,225	IFRS기준 세전이익 증가
조정사항 합계	2,578 (0.51%)	458 (0.10%)	2,121 (3.68%)	
국제회계기준 (K-IFRS)	508,567	448,792	59,775	

□ (총수익) 2,578백만원 증가(0.51% 증)

○ 임대보증금 공정가치 측정방법 변경,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적용 등

□ (총비용) 458백만원 증가(0.10% 증)

○ 감가상각비·퇴직급여 감소, 경영성과급·법인세비용 등 증가 등

□ (당기순이익) 2121백만원 증가(3.68% 증)

○ 퇴직급여 감소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2,630,179	232,503	2,397,676	
① 기계 감가상각누계액	10,127		10,127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변경
② 차량 감·누	3,633		3,633	"
③ 기타유형자산 감·누	4,344		4,344	"
④ 이연법인세자산	1,391		1,391	IFRS전환으로 인한 이연효과
⑤ 매출채권-대손충당금	2		2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변경
⑥ 미수금-대·충	△1,337		-1,337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변경
⑦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668		-668	IFRS전환으로 인한 이연효과
⑧ 이익잉여금 변동				보험수리적 변동 등
⑨ 확정급여채무		5,172	-5,172	보험수리적 가정 퇴충
⑩ 예수금 현재가치할인차금		△6,749	6,749	임대보증금 상각 후 원가적용
⑪ 기타비유동-장기선수수익		6,420	-6,420	임대보증금 상각 후 원가적용
⑫ 미지급비용		16,115	-16,115	정평성과급 근로제공 시점 비용인식
⑬ 유동성예수보증금현할차		△339	339	임대보증금 상각 후 원가적용
⑭ 기타유동- 선수수익		325	-325	임대보증금 상각 후 원가적용
조정사항 합계	17,492	20,944	△3,453	
국제회계기준 (K-IFRS)	2,647,671	253,447	2,394,223	

□ (자 산) 17,492백만원 증가(0.7% 증)

○ 자산내용연수 변경 및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변경, 퇴직급여·성과급 조정계상에 따른 자산 증감

○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증감

□ (부 채) 20,944백만원 증가(9.0% 증)

○ 퇴직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측정 및 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채(미지급 비용) 계상

□ (자 본) 3,453백만원 감소(0.1% 감)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11. 한국관광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6,487	4,712	1,775	
① 인건비(성과급,연차)		△17	17	연차 및 성과급
② 퇴직급여		△13	13	퇴직시점⇒보험수리적 계산
③ 유형자산감가상각변경		13	△13	정률⇒정액법
④ 종속기업주식	242		242	지분법인식 등⇒지분법 및 배 당금 수익 인식
⑤ 매도가능금융자산		72	△72	제주컨벤션(주) 주식
⑥ 법인세비용		58	△58	성과급 등에 따른 법인세 영향
조정사항 합계	242	113	129	
국제회계기준(K-IFRS)	6,729	4,825	1,904	

□ (총수익) 242억원 증가

○ 종속회사의 지분법 및 배당금 인식으로 인한 금융수익 증가

□ (총비용) 113억원 증가

○ 익년도 지급의무가 있는 연차수당 및 성과급 감소 (17억원)

○ 퇴직금 보험수리적 계산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13억원)

○ 유형자산의 계산방법의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증가 (13억원)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손실 등 발생 (72억원)

○ 감가상각비 등의 영향에 따른 법인세비용 증가(58억원)

□ (당기순이익) 129억원 증가

○ 종속회사의 배당금 인식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10,125	3,019	7,106	
① 비유동자산	119		93	감가상각의 변경
② 종속기업주식	△1,504		△1,491	
③ 이연법인세	76	△111	144	
④ 퇴충 및 대손설정		7	△7	
⑤ 연차휴가 및 성과급설정		98	△92	
⑥ 계정 재분류 등	76	126		
조정사항 합계	△1,233	120	△1,353	
국제회계기준 (K-IFRS)	8,892	3,139	5,753	

□ (자 산) 1,233억원 감소

○ 종속기업 주식 제거 등으로 인한 자산 감소

□ (부 채) 120억원 증가

○ 연차수당 및 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년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감소

□ (자 본) 1,353억원 감소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12. 한국남동발전(주)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42,567	39,819	2,748	양수 분할 후
① 매출원가	36,928	36,503	425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에 따른 수선유지비 변동
② 판매비와 관리비	361	355	6	급여회계 변경 등
③ 영업외 수익	1,275	1,260	△15	파생상품 신용위험 등
④ 법인세	895	984	△89	
조정사항 합계	△15	342	327	
국제회계기준 (K-IFRS)	42,552	39,477	3,075	양수 분할 후

□ (총수익) 15억원 감소 (0.03%감)

○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등의 반영으로 영업외 수익 감소

□ (총비용) 342억원 감소 (8.5%감)

○ 감가상각방법 및 수선유지비 회계처리 기준 변동으로 수선유지비 감소

○ 법인세비용 증가

□ (당기순이익) 327억원 증가 (11.2%증)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47,369	26,727	20,642	양수 분할 후
① 자산재평가			13,968	
② 미처분이익잉여금 차감			△3,216	양수분할 관련
③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3,099		자산재평가 차액 관련
④ 비유동자산 증가	13,702			자산재평가 차액 관련
조정사항 합계	13,752	3,067	10,685	
국제회계기준 (K-IFRS)	61,121	29,794	31,327	

□ (자 산) 13,752억원 증가 (29.0%증)

○ 토지 재평가, 자산내용년수 변경 등에 따른 자산 증감

□ (부 채) 3,067억원 증가 (11.5%증)

○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 (자 본) 10,685억원 증가 (51.7%증)

○ 자산재평가에 따른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

13. 한국도로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36,628	35,964	664	
① ABS 회계처리	1,449	1,449	-	◦ 매각거래→차입거래
② 민간투자사업	35,639	35,639	-	◦ 도로 건설·개량
③ 경영평가성과급	-	△60	60	◦ 발생주의 적용
④ 주택자금 등	52	52	-	◦ 공정가치 평가
⑤ 내용연수 변경	-	△270	270	◦ 기계장치 등
⑥ 퇴직급여 채무	△19	△213	194	◦ 보험수리적 측정
⑦ 장기종업원 급여	-	18	△18	◦ 보험수리적 측정
⑧ 영업보증금	142	146	△4	◦ 공정가치 평가
⑨ 연차수당	-	27	△27	◦ 발생주의 적용
⑩ 기 타	△247	217	△464	◦ 유료도로관리권 상각비 조정 등
조정사항 합계	37,016 (101.1%)	37,005 (102.9%)	11 (1.7%)	
국제회계기준 (K-IFRS)	73,644	72,969	675	

□ (총수익) 3조 7,016억원 증가(101.1% 증)

○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ABS 차입거래 적용에 따른 수익 증가

□ (총비용) 3조 7,005억원 증가(102.9% 증)

○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ABS 차입거래 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

○ 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 및 퇴직급여채무 감소 등

□ (당기순이익) 11억원 증가(1.7% 증)

○ 퇴직급여 감소, 지분법 미적용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471,725	228,547	243,178	
① ABS 회계처리	6,276	6,276	-	◦ 매각거래→차입거래
② 경영평가 성과급	532	665	△133	◦ 평가대상연도 부채인식
③ 내용연수 변경	270	-	270	◦ 기계장치 등
④ 퇴직급여 채무	△107	△206	99	◦ 보험수리적 측정
⑤ 장기종업원 급여	47	318	△271	◦ 보험수리적 측정
⑥ 연차수당	-	141	△141	◦ 근로제공년도 부채인식
⑦ 기 타	24	△19	33	◦ 유료도로관리권 상각비 조정 등
조정사항 합계	7,042 (1.5%)	7,175 (3.1%)	△143 (-0.1%)	
국제회계기준 (K-IFRS)	478,767	235,733	243,034	

□ (자 산) 7,042억원 증가(1.5% 증)

○ ABS 차입거래 적용, 경영평가 성과급, 자산내용연수 변경 및 건설자금이자 조정계
상에 따른 자산 증감

□ (부 채) 7,175억원 증가(3.1% 증)

○ ABS 차입거래 적용,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측정 등

□ (자 본) 143억원 감소(0.1% 감)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14. 한국마사회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76,721	73,620	3,101	
①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58	59	△1	- 임차 및 임대보증금 공정가치 평가
② 퇴직급여	-	△33	33	- 비용 계상연도 변경
③ 내용연수 변경	-	△128	128	- 비품 등 상각비 감소
④ 법인세비용	-	27	△27	- IFRS기준 법인세효과
⑤ 기타	2	△1	3	- 대손상각비 등 변경
조정사항 합계	60	△76	136	
국제회계기준 (K-IFRS)	76,781	73,544	3,237	

□ (총수익) 60억원 증가(0.08% 증)

○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회계상 수익 증가 등

□ (총비용) 76억원 감소(0.1% 감)

○ 퇴직급여 계상금액 및 유형자산 내용연수 연장효과에 따른 감소

○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관련 계상비용 및 법인세비용 증가

□ (당기순이익) 136억원 증가(4.4% 증)

○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23,739	3,136	20,603	
①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7	-	△7	- 공정가치평가관련 자산, 부채가액 변동
② 퇴직급여채무	47	-	47	- 보험수리적 측정
③ 내용연수 변경	60	-	60	- 구성요소회계처리 및 비품 등 내용연수 연장
④ 경영평가 성과급	-	90	△90	- 근로제공연도 부채인식
⑤ 무형자산 손상차손	△6	△6	-	- 확정급여자산, 이연법인세 무형자산 손상차손 등
조정사항 합계	94	84	10	
국제회계기준 (K-IFRS)	23,833	3,220	20,613	

□ (자 산) 94억원 증가(0.4% 증)

○ 자산내용연수 변경 및 퇴직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평가 등으로 증가

□ (부 채) 84억원 증가(2.7% 증)

○ 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 본) 10억원 증가(0.05%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15. 한국방송광고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3,271	3,097	174	
① 내용연수변경		3	△3	◦ 건물 내용연수 조정
② 웹사이트평가		△3	3	◦ 무형자산의 자산성 평가 등
③ 대손충당금	△1	-	△1	◦ 법인세기준→실질 대손 발생으로 변경
④ 성과급 반영		△11	11	◦ 경영평가 성과급 기초 및 기말 조정
⑤ 법인세 비용		2	△2	◦ 조정사항 법인세 효과
조정사항 합계	△1	△9	8 (4.6%)	
국제회계기준	3,270	3,088	182	

□ (총수익) 1억원 감소

- 법인세기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에서 실질대손으로 변경하여 기초에 잉여금 증가로 반영되었고, 기말에 조정 발생

□ (총비용) 9억원 감소

- 건물내용연수 조정에 따른 비용 증가
- 경영평가 성과급 당기 반영

□ (당기순이익) 8억원 증가(4.6% 증)

- 경영평가성과급 반영 감소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9,974	6,549	3,425	
① 내용년수 변경	△18	-	△18	◦ 건물 내용연수 변경
② 웹사이트평가	△4	-	△4	◦ 무형자산 제각 등
③ 대손충당금	61	-	61	◦ 설정기준 변경
④ 연차휴가수당		11	△11	◦ 근로제공연도 부채인식
⑤ 경영평가성과급		55	△55	◦ 평가대상연도 부채인식
⑥ 기 타	6		6	◦ 이연법인세 조정 등
조정사항 합계	45 (0.4%)	66 (1.0%)	▽21 (0.6%)	
국제회계기준 (K-IFRS)	10,019	6,615	3,404	

□ (자 산) 45억원 증가(0.4% 증)

- 건물 내용연수 변경,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 및 웹사이트 평가에 따른 자산 조정 등

□ (부 채) 66억원 증가(1.0% 증)

- 연차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년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등

□ (자 본) 21억원 감소(0.6% 감)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16. 한국서부발전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48,538	46,075	2,463	
① 퇴직급여채무 보험계리 평가		-36	36	퇴직급여
② 파생상품 신용위험 평가		+1	-1	평가손실
③ 인건비 발생주의 계상		+30	-30	평가손실
④ 자산재평가 및 재분류, 상각방법 변경		+368	-368	감가상각비 등
⑤ 대손충당금 설정액 감소	-1	-8	7	대손상각비, 환입액
⑥ 학자금, 임차보증금 공정가치 평가	+10	+1	9	이자수익, 복리후생비
⑦ 지분법 평가내역 취소	-20	-29	9	지분법이익, 손실
⑧ IFRS 이연법인세 재계산		-76	76	법인세비용
조정사항 합계	-11	251	-262	
국제회계기준 (K-IFRS)	48,527	46,326	2,201	

□ (총수익) 11억원 감소(0.02% 감)

○ 지분법 평가내역 취소에 따른 수익 감소

□ (총비용) 251억원 증가(0.5% 증)

○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증가

○ 이연법인세 재계산에 따른 감소

□ (당기순이익) 262억원 감소(6.1% 증)

○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감소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44,986	19,318	25,668	
① 대손충당금 설정액 감소	+46			매출채권, 미수금
② 공정가치 평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인식	-22			임차보증금 -4억, 학자금 -18억
③ 학자금, 임차보증금 공정가치 평가	+25			선급비용
④ 지분법 평가내역 취소	-8			관계기업, 종속기업 투자
⑤ 자산재평가 및 재분류, 상각방법 변경	+8,784			유형자산
⑥ 파생상품 신용위험 평가	-25		-44	통화스왑, 기타포괄손익
⑦ IFRS 이연법인세 재계산	-90	+1,900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⑧ 무형자산 손상차손 인식	-2			콘도회원권
⑨ 인건비 발생주의 계상		+114		성과연봉 등 미지급계상
⑩ 납세충당부채 인식		+2		납세충당부채
⑪ 퇴직급여채무 보험계리 평가		-26	-73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손익
⑫ IFRS 조정에 의한 자산부채 변동효과			+7,097	누적액 및 잉여금 조정 등
⑬ 기타			-262	당기순이익 감소
조정사항 합계	8,708	1,990	6,718	
국제회계기준(K-IFRS)	53,694	21,308	32,386	

□ (자 산) 8,708억원 증가(19.4% 증)

○ 자산 재평가 및 재분류,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자산 증가

□ (부 채) 1,990억원 증가(10.3% 증)

○ 퇴직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측정 및 연차수당·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 (자 본) 6,718억원 증가(26.2%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17. 한국석유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32,149	30,035	2,114	
① 매출인식범위변경	△8,120	△8,120	-	비례연결대상회사의 순손익이 지분법평가손익에 포함/예특회 계 금융손익의 순액인식
② 감가상각변경		491	△491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변경
③ 연차휴가수당		12	△12	당기 근로제공분 비용인식
④ 성공불용자이자인식	317	412	△95	성공불용자에 대한 유효이자 인식
⑤ 퇴직급여 채무		△24	24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산출
⑥ 법인세비용		△273	273	IFRS전환에 따른 세무효과
⑦ 기능통화변경 등	△3,636	△1,911	△1,725	기능통화 변경에 따른 환산차이
조정사항 합계	△11,439	△9,413	△2,026	
국제회계기준 (K-IFRS)	20,710	20,622	88	

□ (총수익) 1조 1,439억원 감소(35.6% 감)

○ 비례연결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의 손익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미인식

□ (총비용) 9,413억원 감소(31.3% 감)

○ 비례연결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의 손익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미인식

□ (당기순이익) 2,026억원 감소(96% 감)

○ 감가상각 방법 변경 및 기능통화 도입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감소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223,473	123,436	100,037	
① 토지재평가	5,029	1,106	3,922	토지에 대한 간주원가 적용
② 감가상각내용연수 및 상각 방법의 변경	4,951		4,951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생산량비례법 적용하는 광 구자산의 경우 상각률 기준을 2P에서 1P로 변경
③ 민간사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의 순액 표시	△24,287	△24,287		민간사 에특대여금 및 차입 금 상계하여 순액표시
④ 민간사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의 평가	△2,240	△605	△1,635	민간사 이자수익 및 이자비 용 상계 및 성공불용자에 대 한 유효이자 인식
⑤ 퇴직급여 채무		△27	27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산출
⑥ 미지급상여		225	△225	당기 근로제공분 미지급비용 및 상여인식
⑦ 종속기업투자	△4,817	△2,841	△1,976	비례연결대상회사가 연결대 상회사로 포함됨에 따라 별 도재무제표에서는 제외
⑧ 기능통화변경 등 환산	△6,010	△1,391	△4,618	기능통화를 USD로 채택함에 따른 기능통화 이외의 화폐성 자산부채 평가
조정사항 합계	△27,374	△27,820	446	
국제회계기준 (K-IFRS)	196,099	95,616	100,483	

□ (자 산) 2조 7,374억원 감소(12% 감)

○ 금융자산 및 부채의 순액표시로 자산 부채의 동시 감소

○ 기능통화 변경, 자산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변경 및 토지재평가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에 의한 자산의 증감

□ (부 채) 2조 7,820억원 감소(23% 감)

○ 금융자산 및 부채의 순액표시로 자산 부채의 동시 감소

○ 퇴직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측정 및 연차수당·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증감

□ (자 본) 466억원 증가(0.5%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18. 한국수자원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23,139	21,718	1,421	
① 민간투자사업	42,545	42,545	0	◦ 수도, 댐, 지방상수도, 4대강, 아라뱃길 등
② 경영평가성과급	-	24	△24	◦ 비용계상연도 변경('10→'11)에 따른 임금인상률 차이 증가
③ 연차휴가수당	-	4	△4	
④ 퇴직급여	-	△191	191	◦ IFRS기준은 일부 금액을 포괄손익으로 인식
⑤ 내용연수변경	-	8	△8	◦ 건물 감가상각비 증가
⑥ 유형자산처분	△32	-	△32	◦ 재평가토지 처분
⑦ 법인세비용	-	24	△24	◦ IFRS기준 세전이익 증가
조정사항 합계	42,513	42,414	99	
	(183.7%)	(195.3%)	(7.0%)	
국제회계기준 (K-IFRS)	65,652	64,132	1,520	

※ K-GAAP 지분법 손익 반영

□ (총수익) 4조2,513억원 증가(183.7% 증)

○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건설수익 증가

□ (총비용) 42,414억원 증가(195.3% 증)

-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건설원가 증가
- 연차수당, 경영성과급, 법인세비용 등 증가 및 퇴직급여 감소

□ (당기순이익) 99억원 증가(7.0% 증)

- 퇴직급여 감소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184,844	79,607	105,237	
① 토지재평가	1,613	-	1,613	
② 내용연수변경	△65	-	△65	◦ 건물내 기계장치
③ 퇴직급여 채무	△8	432	△440	◦ 보험수리적 측정
④ 연차수당	3	125	△122	◦ 근로제공연도 부채인식
⑤ 경영평가성과급	56	704	△648	◦ 평가대상연도 부채인식
⑥ 이연법인세	△76	△19	△57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조정
조정사항 합계	1,523	1,242	281	
	(0.8%)	(1.6%)	(0.3%)	
국제회계기준 (K-IFRS)	186,367	80,849	105,518	

주: K-GAAP 지분법 적용 관계회사 투자주식 반영

□ (자 산) 1,523억원 증가(0.8% 증)

- 토지 재평가, 자산내용연수 변경 및 건설중 자산의 연차수당·퇴직급여·성과급 조정계상에 따른 자산 증감

□ (부 채) 1,242억원 증가(1.6% 증)

- 퇴직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측정 및 연차수당·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증감

□ (자 본) 281억원 증가(0.3%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19. 한국전력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비 고
종전기준 (K-GAAP)	422,946	423,560	(614)	
① 자산재평가 등	(87)	(413)	327	'10.1.1 기준 재평가 실시
② PPA 리스회계	215	61	154	PPA(전력수급계약) 리스 처리
③ 연결 및 지분법 범위 변동	(17,889)	(3,570)	(14,319)	자회사 원가법 적용
④ 수익인식	1,014	37	977	검침기준→발생기준 변경
⑤ 퇴직급여채무 및 인건비	(50)	(499)	449	퇴직부채 보험수리적기법 적용
⑥ 공사부담금의 이연 인식	2,575	3,784	(1,209)	공사부담금 : 자산차감→부채
⑦ 기타	(48)	499	(547)	충당부채 등
조정사항 합계	(14,269)	(101)	(14,168)	
국제회계기준 (K-IFRS)	408,677	423,459	(14,782)	

□ (총수익) 1조 4,269억원 감소(3.4% 감)

○ 자회사 연결 및 지분법 미적용(원가법 적용)으로 지분법이익 감소 등

□ (총비용) 101억원 감소(0.02% 감)

○ 지분법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비용 감소 등

□ (당기순이익) 87억원 증가(6.1% 증)

○ 자회사 지분법이익 미적용에 따른 수익 감소 영향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비 고
종전기준 (K-GAAP)	743,982	333,511	410,471	
① 자산재평가 등	108,923	24,112	84,811	
② PPA 리스 회계	11,201	14,207	(3,006)	
③ 연결 및 지분법 범위 변동	(17,540)	(2,001)	(15,539)	
④ 수익인식	13,429	3,250	10,179	
⑤ 퇴직급여채무 및 인건비	(30)	3,629	(3,659)	
⑥ 공사부담금 이연인식	68,303	69,512	(1,209)	
⑦ 법인세	(4,777)	(3,583)	(1,194)	
⑧ 기타	(499)	(739)	240	
조정사항 합계	179,010	108,386	70,624	
국제회계기준 (K-IFRS)	922,992	441,897	481,095	

□ (자 산) 17조 9,010억원 증가(24.1% 증)

○ 자산재평가(10조 8,624억) 등으로 자산 증가

□ (부 채) 10조 8,386억원 증가(32.5% 증)

○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2조 3,897억) 및 공사부담금 계상(6조 8,303억원)에 따른 증가

□ (자 본) 7조 624억원 증가(17.2% 증)

○ 자산재평가에 따른 적립금(8조 4,727억원) 증가 등

20. 한국조폐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3,592	3,557	35	
① 매출액	3,553	3,553		
② 매출원가		23	△23	◦ 기말재고 감소
③ 경영평가성과급		△14	14	◦ 비용계상연도 변경('11→'10)에 따른 차이 조정 (정기상여금분 포함)
④ 연차휴가수당		△5	5	
⑤ 퇴직급여		△7	7	◦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퇴급충 차이 조정 ◦ 보험수리적 손실(14억원)은 당기순이익에서 감하여 총 포괄손익 산정
⑥ 감가상각비		△163	163	◦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내 용연수 증가에 따른 감가 상각비 감소
⑦ 법인세비용		33	△33	◦ 이연법인세자산 조정에 따른 법인세비용 증가
⑧ 기 타		△3	3	◦ 지분법손실 제거
조정사항 합계		△136 (△3.8%)	136 (388.6%)	
국제회계기준 (K-IFRS)	3,592	3,421	171	

□ (총비용) 136억원 감소(3.8% 감)

- 기계, 공기구, 비품 내용연수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
- 연차수당, 경영성과급, 퇴직급여 감소
- 제품, 반제품 감소에 따른 매출원가 부분 증가
- IFRS 적용 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감소에 따른 법인세비용 증가

□ (당기순이익) 136억원 증가(388.6% 증)

- 감가상각비 감소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3,560	550	3,010	
① 유형자산	163		163	◦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내용연수 증가에 따른 증가
② 재고자산	△23		△23	◦ K-IFRS 적용 비용조정에 따른 기말 재고 감소
③ 이연법인세자산	34		34	◦ K-IFRS 적용 조정사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4	◦ 자회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전환
⑤ 부의지분법자본변동	4		4	
⑥ 미지급비용		261	△261	◦ 비용계상연도 변경('11→'10)에 따른 연차, 경영성과급 등 차이 조정
⑦ 퇴직급여충당금		9	△9	◦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퇴급충 차이 조정
조정사항 합계	182 (5.1%)	270 (49.1%)	△88 (△2.9%)	
국제회계기준 (K-IFRS)	3,742	820	2,922	

□ (자 산) 182억원 증가(5.1% 증)

- 자산(기계, 공기구, 비품) 내용연수 증가로 유형자산 증가
- 감가상각비·연차수당·퇴직급여·성과급 조정계상에 따른 재고자산 감소 및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 자회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전환 적용

□ (부 채) 270억원 증가(49.1% 증)

- 퇴직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측정 및 연차수당·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 본) 88억원 감소(2.9% 감)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21. 한국중부발전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47,997	46,695	1,302	
① 관계기업범위변동	-129	-45	-84	◦ 관계기업의 범위 변동지분 법 취소에 따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도입 효과
② 유형자산 재평가	-	-162	162	◦ 간주원가로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액 적용 등의 전환효과
③ 리스적용		-40	40	◦ 약정상 리스요소가 포함된 송전접속설비용계약의 리스 적용
⑤ 종업원급여		-95	95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보험 수리적평가 및 종업원누적 유급휴가
⑥ 기타	8	10	-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 에 따른 이연법인세추가 설정 및 비유동 분류·상계
조정사항 합계	-121	-332	211	
국제회계기준 (K-IFRS)	47,876	46,363	1,513	

□ (총수익) 1,572억원 감소(3.1% 감)

○ 관계기업 범위 변동 및 지분법 취소로 수익 감소

□ (총비용) 1,783억원 감소(3.7% 감)

○ 관계기업 범위 변동 및 지분법 취소로 비용 감소

○ 유형자산 재평가 전환효과,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및 종업원누적
유급휴가 등으로 비용 감소

□ (당기순이익) 211억원 증가(16.2% 증)

○ 총수익보다 총비용이 감소하여 당기순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51,273	25,490	25,783	
① 관계기업범위변동	31	(23)	54	◦ 관계기업의 범위 변동과 지분법 취소
② 유형자산 재평가	8,987	2,017	6,970	◦ 간주원가로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액 적용 등의 전환효과
③ 리스적용	22	-	22	◦ 약정상 리스요소가 포함된 송전접속설비용계약의 리스 적용
⑤ 종업원급여	26	199	(173)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 수리적평가 및 종업원누적 유급휴가
⑥ 기타	(47)	39	(8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추가 설정 및 비유동 분류·상계
조정사항 합계	9,019	2,232	6,787	
국제회계기준 (K-IFRS)	60,292	27,722	32,570	

□ (자 산) 9,019억원 증가(17.59% 증)

- 토지배평가로 8,987억원 증가(총자산 17.53% 증)
- 관계기업 범위변동, 종업원누적유급휴가에 의한 자산 증가
- 법인세 효과로 자산 감소

□ (부 채) 2,232억원 증가(8.76% 증)

- 토지재평가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 2,017억원 증가(총부채 7.91% 증)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종업원누적유급휴가 등에 의한 부채 증가

□ (자 본) 6,787억원 증가(26.32%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22. 한국지역난방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14,770	13,812	958	
① 경영평가성과급		2	△2	◦ 비용계상연도 변경('10→'11)에 따른 임금인상을 차이증가
② 연차휴가수당		2	△2	
③ 퇴직급여		△4	4	◦ IFRS기준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퇴직급여의 조정
④ 내용연수변경		△30	30	◦ 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10~20년)의 비한정내용연수 적용
⑤ 법인세비용		4	△4	◦ IFRS기준 세전이익의 증가
조정사항 합계	-	△26	26	
국제회계기준 (K-IFRS)	14,770	13,786	984	

□ (총비용) 26억원 감소

○ 시설이용권의 비한정내용연수의 적용 및 퇴직급여의 감소

□ (당기순이익) 26억원 증가(0.3% 증)

○ 시설이용권의 비한정내용연수의 적용 및 퇴직급여의 감소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33,393	22,503	10,890	
① 토지재평가	4,012	-	4,012	◦ IFRS전환시점(2010.1.1)의 토지재평가
② 공사부담금	941	941	-	◦ 자산차감계정→이연수익 법으로 회계처리 변경
③ 퇴직급여	△8	-	△8	◦ 보험수리적 측정
④ 경영평가성과급	3	163	△160	◦ 평가대상연도 부채인식
⑤ 연차휴가수당	-	14	△14	◦ 근로제공연도 부채인식
⑥ 내용연수 변경	30	-	30	◦ 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10~20년)의 비한정내용연수 적용
⑦ 이연법인세부채	△224	618	△842	◦ 토지재평가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조정
조정사항 합계	4,754	1,736	3,018	
국제회계기준 (K-IFRS)	38,147	24,239	13,908	

□ (자 산) 4,754억원 증가(14.2% 증)

- 토지 재평가, 공사부담금회계처리 변경, 내용연수 변경 및 연차수당, 퇴직급여, 성과급 조정계상에 따른 자산 증감

□ (부 채) 1,736억원 증가(7.7% 증)

- 공사부담금회계처리 변경 및 연차수당, 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증감

□ (자 본) 3,018억원 증가(27.7%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23. 한국토지주택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127,191	123,458	3,733	
① 인도기준수익인식	5,995	9,128	-3,133	◦ 토지 수익인식기준 변경 (진행기준→인도기준)
② 공사손실충당금 삭제		433	-433	◦ 토지수익인식기준 변경 에 따른 충당금 전입액 취소
③ 해약충당부채 삭제	8,625	4,072	4,553	
④ 리스임대주택 폐지	284	-19	303	◦ 계정분류 변경으로 매출 차감하던 이자비용을 원 가로 계상
⑤ 경영평가 성과급		-245	245	◦ 비용계상연도 변경영향
⑥ 퇴직급여		-126	126	◦ IFRS기준에 따른 보험수 리적 손익
⑦ 임대토지계정 재분류		-305	305	◦ 평가손실충당금 취소
⑧ 기타	3,173	3,560	-387	◦ 법인세 효과 조정 ◦ 금융상품현재가치평가 (전세임대보증금등)
조정사항 합계	18,077	16,498	1,579	
국제회계기준 (K-IFRS)	145,268	139,956	5,312	

□ (총수익) 18,077억원 증가(14.2% 증)

- 토지에 대한 수익인식기준 변화(진행기준 → 인도기준)
- 리스자산계정 폐지로 매출액 차감하던 기금차입금이자를 원가에 계상
- 전세임대/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

□ (총비용) 16,498억원 증가(13.3% 증)

- 토지에 대한 수익인식기준 변화(진행기준 → 인도기준)
- 임대토지에 계정재분류로 인하여 평가손실충당금 취소
- 연차수당, 경영성과급, 법인세비용 등 증가 및 퇴직급여 감소

□ (당기순이익) 1,579억원 증가(42.3% 증)

○ 토지에 대한 수익인식기준 변화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1,479,031	1,254,692	224,339	
① 인도기준수익인식	-70,754	-51,696	-19,058	◦ 토지 수익인식기준 변경 (진행기준→인도기준)
② 공사손실충당금 삭제		-526	526	◦ 토지수익인식기준 변경에 따른 충당금 설정액 취소
③ 해약충당부채 삭제		-6,595	6,595	
④ 리스임대주택 폐지	16,160	16,894	-734	◦ 계정분류 변경으로 차감 표시하던 기금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부채로 변경
⑤ 자산 재평가	62,514		62,514	◦ IFRS변경에 따른 토지 및 임대주택 자산재평가
⑥ 경영평가 성과급		825	-825	◦ 평가대상연도 부채인식
⑦ 연차수당		209	-209	◦ 근로제공연도 부채인식
⑧ 공사부담금	748	748	0	◦ IFRS변경에 따라 자산차 감항목에서 부채로 표시 변경
⑨ 임대토지계정 재분류	315		315	◦ 평가손실충당금 취소
⑩ 기타	-9,619	-149	-9,470	◦ 법인세 효과 조정 등
조정사항 합계	-636	-40,290	39,654	
국제회계기준 (K-IFRS)	1,478,395	1,214,402	263,993	

□ (자 산) 636억원 감소(0.04% 감)

○ 토지에 대한 수익인식기준 변경에 따른 70,754억원 감소(총자산 4.8% 감). 매출채
권 및 재고자산 6.2조원 감소

○ 토지 및 임대주택 재평가로 6조 2,514억원 증가(총자산 4.3%증)

○ 리스임대주택계정이 폐지되고 자산차감항목인 기금차입금·임대보증금을 부채계
정으로 표시함에 따라 총자산 증가

○ 공사부담금이 자산의 차감항목에서 부채로 표시됨에 따라 자산과 부채 증가

○ 법인세 효과로 자산 감소

□ (부 채) 40,290억원 감소(3.2% 감)

○ 토지에 대한 수익인식기준 변경에 따른 58,817억원 감소, 선수금 5.9조원 감소(총 부채 4.7% 감)

○ 리스임대주택계정이 폐지되고 자산차감항목인 기금차입금·임대보증금을 부채계정으로 표시함에 따라 총부채증가

○ 공사부담금이 자산의 차감항목에서 부채로 표시됨에 따라 자산과 부채증가

○ 연차수당·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년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 본) 39,654억원 증가(17.7%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

24. 한국남부발전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52,244	50,363	1,881	
① 인건비	-	△9	9	· 제수당, 퇴직급여 금액 산정방식 변경
② 복리후생비	-	9	△9	· 보험료 등 계상금액 증가
③ 감가상각비 관련	-	△328	328	· 내용연수, 상각법 변경
④ 지분법 관련	△20	△4	△16	· 지분법 손익 제거
⑤ 법인세비용	-	71	△71	· 세전이익 증가분
⑥ 제각손	-	63	△63	· 자산교체시 기존자산 제각 처리
⑦ 기타	4	△5	9	· 이자수익 증가 대손상각비 감소 등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조정사항 합계	△16	△203	187	
국제회계기준 (K-IFRS)	52,228	50,160	2,068	

□ (총수익) 16억원 감소 (0.03%감)

○ 지분법 수익 제거 및 일부 이자수익 추가계상

□ (총비용) 203억원 감소 (0.4% 감)

○ 내용연수, 상각법 변경으로 감가상각비 감소, 법인세비용, 일반제각손, 복리후생비 증가, 퇴직급여 감소 등

□ (당기순이익) 187억원 증가 (9.9% 증)

○ 감가상각비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 증가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50,096	23,818	26,278	
① 자산재평가 관련	9,377	1,966	7,411	· 자산 증가 ·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 자산재평가잉여금증가
② 대손충당금 환입	51			· 미수채권에 대한 실제대손을 반영
③ 미지급급여 관련		114		· 연월차수당, 상여금, 장려금 등 추가계상
④ 당기순이익 증가			187	·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
⑤ 기타	103	△1	△146	· 지분법 자본변동, 보험수리적 손익, 통화스왑평가 등 감소
조정사항 합계	9,531	2,079	7,452	
국제회계기준 (K-IFRS)	59,627	25,897	33,730	

□ (자 산) 9,531억원 증가 (19.0% 증)

○ 자산재평가, 미수채권에 대한 실제대손율 적용 등

□ (부 채) 2,079억원 증가 (8.7% 증)

○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 연차수당·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년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자 본) 7,452억원 증가 (28.3% 증)

○ 자산재평가 잉여금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지분법 자본변동 등 감소, 기타미처분 이익잉여금 증가

25. 한국동서발전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고
종전기준 (K-GAAP)	46,263	43,847	2,416	
① 급여		17	-17	
② 퇴직급여		-36	36	
③ 복리후생비		8	-8	
④ 감가상각비		1,236	-1236	
⑤ 대손상각비		-5	5	
⑥ 이자수익	7		7	
⑦ 제각비		98	-98	
⑧ 유형자산처분이익	3		3	
⑨ 대손충당금	3		3	
⑩ 법인세 비용		-287	287	
조정사항 합계	13	1,031	-1,018	
국제회계기준 (K-IFRS)	46,276	44,878	1,398	

□ (총수익) 12억원 증가 (0.28% 증)

○ 이자수익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 증가

□ (총비용) 1,031억원 증가(2.34% 증)

○ 감가상각비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

□ (당기순이익) 1,018억원 감소(42.1% 감)

○ 감가상각비 증가로 당기순이익 감소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 (K-GAAP)	45,192	17,695	27,497	
① 매출채권, 미수금 대손충당금	-48			
② 선급비용(학자금 등)	31			
③ 자산재평가	13,377			
④ 유무형자산 상각	-1,236			
⑤ 임직원 대여금 평가	-22			
⑥ 이연법인세 자산	-432			
⑦ 미지급 비용		110		
⑧ 퇴직급여채무		127		
⑨ 연월차 장기선급비용		31		
⑩ 이연법인세 부채		2,442		
⑪ 자산재평가			10,402	
⑫ 전기이월잉여금			-330	
⑬ 보험수리적 손익			-94	
⑭ 당기순이익			-1,018	
조정사항 합계	11,670	2,710	8,960	
국제회계기준 (K-IFRS)	56,862	20,405	36,457	

□ (자 산) 1조 1,670억원 증가(25.8% 증)

○ 자산재평가, 유무형자산 상각, 이연법인세차 등 조정계상에 따른 자산 증감

□ (부 채) 2,710억원 증가(15.3% 증)

○ 미지급 비용, 퇴직급여채무,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증감

□ (자 본) 8,960억원 증가(32.6% 증)

○ IFRS 전환에 따른 회계기준 차이 금액조정(설비산업으로 비중이 큼)

26. 한국철도공사

① 손익계산서 ('10.1.1~12.31)

(단위: 억원)

구 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비 고
종전기준(K-GAAP)	54,914	51,106	3,808	
① 마일리지 보상	△166	△209	43	마일리지비용→ 마일리지수익 (차감) 변경
② 유형자산 처분	105	-	105	
③ 지분법	△326	△1,048	722	지분법평가 취소
④ 경영평가성과급	-	90	△90	평가대상년도 부채인식
⑤ 연차휴가수당	-	5	△5	근로제공년도 부채인식
⑥ 퇴직급여	-	218	△218	보험수리적 측정
⑦ 내용연수 변경	-	363	△363	상각단위 세분화 및 내용연수 연장
⑧ 법인세 비용	-	△23	23	
⑨ 기 타	△40	△333	293	각종 충당금 설정
조정사항 합계	△427	△937	510	
국제회계기준(K-IFRS)	54,487	50,169	4,318	

□ (총수익) 427억원 감소(0.8% 감)

○ 마일리지수익 차감 및 지분법 평가 감소

□ (총비용) 937억원 감소(1.8% 감)

- 마일리지비용 수익차감으로 변경 및 지분법평가손실 제거
- 연차수당, 경영성과급, 법인세비용 및 증가 및 퇴직급여 증가

□ (당기순이익) 510억원 증가(13.4% 증)

② 재무상태표 ('10.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비고
종전기준(K-GAAP)	198,123	96,580	101,543	
① 마일리지 보상		△87	87	선수수익
② 유형자산 처분	△17,588		△17,588	철도차량 재평가
③ 지분법주식	780		780	
④ 경영평가성과급		2,376	△2,376	평가대상연도 부채인식
⑤ 연차휴가수당		745	△745	근로제공연도 부채인식
⑥ 퇴직급여		1,640	△1,640	보험수리적 측정
⑦ 이연법인세	755		755	
⑧ 공정가치평가	81		81	비상장주식 공정가치평가
⑨ 기 타	△13	79	△92	
조정사항 합계	△15,985	4,753	20,738	
국제회계기준(K-IFRS)	182,138	101,333	80,805	

□ (자 산) 15,985억원 감소(8.1% 감)

- 철도차량 재평가로 인한 자산 감소

□ (부 채) 4,753억원 증가(4.9% 증)

- 퇴직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측정 및 연차수당·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제공연도에 부채(미지급비용) 계상
- 각종 충당부채 설정으로 인한 부채 감소

□ (자 본) 20,738억원 증가(20.4% 증)

- 철도차량 재평가로 인한 이익잉여금 감소

부록 3. 설문지(공기업 경영평가부서 대상)

공기업 IFRS 도입에 관한 설문지

〈공기업 경영평가부서 대상〉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공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고자료와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공기업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귀사의 경영평가부서(경영평가팀)에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820-0581 (kajeon@ssu.ac.kr, 전규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장지인(중앙대)

연구원: 김완희(가천대), 정대길(삼정회계법인), 전규안(숭실대)

* 아래 물음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표 하시오.

1.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기업 관련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 ()
- ② 자본조달 시 유리(해외자본조달비용의 감소 포함) ()
- ③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여 ()
- ④ 공공요금, 배당 등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에 기여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2.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도한 초기도입 비용 ()
- ②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 ()
- ③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저하 ()
- ④ 공기업 상호간 비교가능성 저하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3. IFRS의 도입 시 귀사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① IFRS 도입에 대한 귀사 내부의 이해 부족 ()
- ② IFRS 도입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IFRS 자문용역비 부담 등) ()
- ③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 ()
- ④ IFRS 도입 자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담당 회계법인의 의견 불일치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4. IFRS 도입 준비 시 정부 또는 경영평가단에 아쉬웠던 점은?

- ① IFRS에 대한 준비 부족(재무제표 양식의 늦은 확정 등) ()
- ②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불확실성(평가 관련 방침 확정의 지연 등) ()
- ③ 공공요금, 배당정책 등에 대한 정부정책 불확실성 ()
- ④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의 미비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5. 귀사에서 IFRS 도입시 여러 회계처리방법의 대안이 있을 때,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요?

- ① IFRS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
- ② 경영평가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다. ()
- ③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
- ④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다.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6. 귀사에서는 IFRS 도입 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는지요?

- ① 예 () → 6-1로 가시오.
- ② 아니오 () → 7로 가시오.

6-1. 자산 재평가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
- ② 경영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
- ③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
- ④ IFRS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7. 귀사에서 IFRS 도입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 ① 감가상각 관련(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이슈 ()
- ② 수익인식 관련 이슈 ()
- ③ 자산재평가 관련 이슈 ()
- ④ 귀사 관련 법률과 IFRS의 불일치 문제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8. 공기업 IFRS 도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기업 내부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경영진의 의지 포함) ()
- ② IFRS 관련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확보 ()
- ③ IFRS 도입 자문 회계법인과의 긴밀한 협조 ()
- ④ 정부의 지원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9. 귀사의 경우에는 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 ②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 ③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
- ④ 잘 모르겠다.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10.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관만 해당) 2011년에 대한 평가 시 연결재무제표 대신에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이 적절하였다. ()
- ② 적절하지 않았다(연결재무제표의 이용이 적절하였다). ()
- ③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11. 2011년에 대한 평가 시 목표부여(편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치는 전년도 IFRS 금액을 이용하고 편차는 K-GAAP에 의한 금액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적절하였다. ()
- ② 적절하지 않았다. ()
- ③ 기타(적절한 대안을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12. 2012년도에 대한 평가시 목표부여(편차)를 이용하는 경우, IFRS에 의한 편차가 없으므로 2011년도 평가 시 이용하였던 K-GAAP에 의한 편차(2006년부터 2010년의 자료 이용)를 다시 한 번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적절하다. ()
- ② 적절하지 않다. ()
- ③ 기타(적절한 대안을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13.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준정부기관 등을 위하여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설문지(공기업 재무부서 대상)

공기업 IFRS 도입에 관한 설문지

〈공기업 재무부서 대상〉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공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고자료와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공기업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귀사의 재무부서(재무팀)에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820-0581 (kajeon@ssu.ac.kr, 전규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장지인(중앙대)

연구원: 김완희(가천대), 정대길(삼정회계법인), 전규안(송실대)

* 아래 물음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표 하시오.

1.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기업 관련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 ()
- ② 자본조달시 유리(해외자본조달비용의 감소 포함) ()
- ③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여 ()
- ④ 공공요금, 배당 등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에 기여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2.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도한 초기도입 비용 ()
- ②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 ()
- ③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저하 ()
- ④ 공기업 상호간 비교가능성 저하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3. IFRS의 도입시 귀사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① IFRS 도입에 대한 귀사 내부의 이해 부족 ()
- ② IFRS 도입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IFRS 자문용역비 부담 등) ()
- ③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 ()
- ④ IFRS 도입 자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담당 회계법인의 의견 불일치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4. IFRS 도입 준비 시 정부 또는 경영평가단에 아쉬웠던 점은?

- ① IFRS에 대한 준비 부족(재무제표 양식의 늦은 확정 등) ()
- ②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불확실성(평가 관련 방침 확정의 지연 등) ()
- ③ 공공요금, 배당정책 등에 대한 정부정책 불확실성 ()
- ④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의 미비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5. 귀사에서 IFRS 도입 시 여러 회계처리방법의 대안이 있을 때,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요?

- ① IFRS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
- ② 경영평가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다. ()
- ③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
- ④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다.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6. 귀사에서는 IFRS 도입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는지요?

- ① 예 () → 6-1로 가시오.
- ② 아니오 () → 7로 가시오.

6-1. 자산 재평가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
- ② 경영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
- ③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
- ④ IFRS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7. 귀사에서 IFRS 도입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 ① 감가상각 관련(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이슈 ()
- ② 수익인식 관련 이슈 ()
- ③ 자산재평가 관련 이슈 ()
- ④ 귀사 관련 법률과 IFRS의 불일치 문제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8. 공기업 IFRS 도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기업 내부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경영진의 의지 포함) ()
- ② IFRS 관련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확보 ()
- ③ IFRS 도입 자문 회계법인과의 긴밀한 협조 ()
- ④ 정부의 지원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9. 귀사의 경우에는 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 ②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 ③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
- ④ 잘 모르겠다.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10. IFRS 도입 후 귀사에서는 국내 자금조달 시(부채차입, 유상증자 등) 영향이 있었는지요?

- ① 국내 자금조달 시 유리하였다.(자본비용의 감소 등) ()
- ② 국내 자금조달 시 불리하였다.(자본비용의 증가 등) ()
- ③ 국내 자금조달 시 영향이 없었다. ()
- ④ IFRS 도입 후에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다.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11. IFRS 도입 후 귀사에서는 해외 자금조달 시(부채차입, 유상증자 등) 영향이 있었는지요?

- ① 해외 자금조달 시 유리하였다.(자본비용의 감소 등) ()
- ② 해외 자금조달 시 불리하였다.(자본비용의 증가 등) ()
- ③ 해외 자금조달 시 영향이 없었다. ()
- ④ IFRS 도입 후에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다.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12.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준정부기관 등을 위하여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설문지(공기업 회계부서 대상)

공기업 IFRS 도입에 관한 설문지

〈공기업 회계부서 대상〉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공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고자료와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공기업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귀사의 회계부서(회계팀)에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820-0581 (kajeon@ssu.ac.kr, 전규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장지인(중앙대)

연 구 원: 김완희(가천대), 정대길(삼정회계법인), 전규안(송실대)

* 아래 물음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표 하시오.

1.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기업 관련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 ()
- ② 자본조달시 유리(해외자본조달비용의 감소 포함) ()
- ③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여 ()
- ④ 공공요금, 배당 등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에 기여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2.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도한 초기도입 비용 ()
- ②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 ()
- ③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저하 ()
- ④ 공기업 상호간 비교가능성 저하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3. IFRS의 도입시 귀사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① IFRS 도입에 대한 귀사 내부의 이해 부족 ()
- ② IFRS 도입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IFRS 자문용역비 부담 등) ()
- ③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 ()
- ④ IFRS 도입 자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담당 회계법인의 의견 불일치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4. IFRS 도입 준비 시 정부 또는 경영평가단에 아쉬웠던 점은?

- ① IFRS에 대한 준비 부족(재무제표 양식의 늦은 확정 등) ()
- ②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불확실성(평가 관련 방침 확정의 지연 등) ()
- ③ 공공요금, 배당정책 등에 대한 정부정책 불확실성 ()
- ④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의 미비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5. 귀사에서 IFRS 도입 시 여러 회계처리방법의 대안이 있을 때,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요?

- ① IFRS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
- ② 경영평가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다. ()
- ③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
- ④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다.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6. 귀사에서는 IFRS 도입 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는지요?

- ① 예 () → 6-1로 가시오.
- ② 아니오 () → 7로 가시오.

6-1. 자산 재평가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
- ② 경영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
- ③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
- ④ IFRS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7. 귀사에서 IFRS 도입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 ① 감가상각 관련(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이슈 ()
- ② 수익인식 관련 이슈 ()
- ③ 자산재평가 관련 이슈 ()
- ④ 귀사 관련 법률과 IFRS의 불일치 문제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9. 공기업 IFRS 도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기업 내부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경영진의 의지 포함) ()
- ② IFRS 관련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확보 ()
- ③ IFRS 도입 자문 회계법인과의 긴밀한 협조 ()
- ④ 정부의 지원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9. 귀사의 경우에는 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 ②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 ③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
- ④ 잘 모르겠다.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10. IFRS 도입으로 귀사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부분은?

- ① 수익(매출액 등) ()
- ② 감가상각비 ()
- ③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
- ④ 부채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11. IFRS 도입으로 귀사의 회계부서(회계팀)의 임직원 수에 변동이 있었는지요?

(증가 또는 감소의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된 인원 수를 적어주세요.)

- ① 변동 없음 ()
- ② 증가 () 과거 (명)에서 현재 (명)으로 증가
- ③ 감소 () 과거 (명)에서 현재 (명)으로 감소

12. IFRS 도입으로 귀사의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참고] IFRS의 도입으로 이익조정이 감소하고 이익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이 높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면 이익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봄)

- ①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다. ()
- ② 이익의 질이 하락하였다. ()
- ③ 이익의 질에 변화가 없었다. ()
- ④ 잘 모르겠다.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13.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준정부기관 등을 위하여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설문지(회계법인 대상)

공기업 IFRS 도입에 관한 설문지

〈회계법인 대상〉

안녕하십니까? 귀 회계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공기업의 IFRS 도입자문을 맡았던 회계법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고자료와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 회계법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공기업의 IFRS 도입 자문을 담당했던 공인회계사께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820-0581 (kajeon@ssu.ac.kr, 전규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장지인(중앙대)

연 구 원: 김완희(가천대), 정대길(삼정회계법인), 전규안(송실대)

* 아래 물음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표 하시오.

1.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기업 관련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 ()
- ② 자본조달시 유리(해외자본조달비용의 감소 포함) ()
- ③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여 ()
- ④ 공공요금, 배당 등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에 기여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2. 공기업에서 IFRS 도입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도한 초기도입 비용 ()
- ②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 ()
- ③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저하 ()
- ④ 공기업 상호간 비교가능성 저하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3.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공기업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① IFRS 도입에 대한 공기업 구성원의 이해 부족 ()
- ② 공기업 내부의 회계전문인력 부족 ()
- ③ IFRS 도입이 경영평가, 공공요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기업의 우려 ()
- ④ 원칙중심인 IFRS 기준 자체의 모호성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4.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여러 회계처리방법의 대안이 있을 때, 공기업의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요?

- ① IFRS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의 선택 ()
- ② 경영평가에 유리한 방법의 선택 ()
- ③ 과거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의 선택 ()
- ④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유리한 방법의 선택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5. IFRS 도입용역 수행 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 ① 감가상각 관련(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이슈 ()
- ② 수익인식 관련 이슈 ()
- ③ 자산재평가 관련 이슈 ()
- ④ 해당 공기업 관련 법률과 IFRS의 불일치 문제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6. 공기업에 대한 IFRS 도입용역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공기업의 IFRS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기업 내부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경영진의 의지 포함) ()
- ② IFRS 관련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확보 ()
- ③ IFRS 도입 자문 회계법인과의 긴밀한 협조 ()
- ④ 정부의 지원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7. 2012년 초,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민간기업에 대한 감사를 포함) 시 감사 시간을 증가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IFRS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
- ② IFRS 기준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경험 부족 ()
- ③ 공시할 주석 양의 증가 ()
- ④ 원칙중심인 IFRS의 모호성으로 인한 회계감사 대상 기업과의 의견 불일치 해소 문제 ()
- ⑤ 기타(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8.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준정부기관 등을 위하여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문요약〉

공공기관 IFRS 도입 영향 및 기대 효과

장지인·김완희·전규안·정대길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준정부기관의 예상되는 쟁점사항,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재무제표가 경영평가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기업 재무정보의 생산주체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의 분야별 분석과 결과를 통해 향후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의 생산과 이러한 재무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 향후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공공기관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즉, 질적인 요소는 기존에 적용하였던 기업회계기준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간에 중요한 차이에 대하여 공공기관 공통사항과 기관별 개별 사항으로 구분하고, 양적인 차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변화를 주요 재무비율(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부채의 변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추가로 민간기업에서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주식공시의 확대에 의한 영향과 기관별로 추가된 주요 주식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2013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 예정인 준정부기관의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공통영향 항목과 기관별 고유 특성에 기인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항목에 대하여는 금액적 차이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중요한 분야로, 새로운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정보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그리고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공기업의 담당자(재무, 회계부서, 경영평가 부서)와 해당 공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컨설팅을 제공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면서 공기업은 회계기준 선택 과정에서 자산재평가의 선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연수도 경제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연장하는 등 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제표 작성, 제출 관련 기준 준수 및 감사의견도 모두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는데, 이는 정부 주도로 도입자문단이 조기에 구성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변경된 재무정보의 영향을 받는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실질 차이에 의한 영향 이외에 단순한 회계기준 차이 영향을 배제하는 원칙’으로 공통원칙과 기관별 개별 쟁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제도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사전 우려와 달리 큰 영향은 없었으며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Abstract〉

Implications and Expected Effects of Adoption of IFRS by the State-Owned Enterprise

Jang, Jee In·Kim, Wan Hee·Jeon, Kyu An·Jung, Dae G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1) the study results to reform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 sector's accounting transparency and 2) future implications and directions to provide highly reliable financial information and to utilize this inform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n the accounting standard and financial statements, issues anticipated for quasi-government agencies and the effects of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price models for public utilities due to the adoption of IFRS by the state-owned enterprise. The study also conducted a survey of the public sector organizations which is the principal agents responsible for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The study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result of this survey and implications and conclusion from the analysi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ffects of adopting IFRS on the public sector's financial statements. The qualitative components sugges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tatements of Korea Accounting Standards, formal accounting standards, and IFRS by common issues among the public sector organization and individual issues specific to each organization. The quantitative components include analysis of the primary financial ratios (liquidity ratio, debt to equity ratio and net profit to net sales ratio) and details analysis of changes in assets and liabilities by the area of public sector. In addition, the study also analyzed and provided the effects of more extensive requirements for disclosure and what the major disclosure requirements are.

Second, the study analyzed major issues for quasi-government agencies which will be adopting IFRS from 2013. Issues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1) common issues among organizations and 2) individual issues specific to each organization considering inherent characteristics for each organization. Differences in the amounts, due to the adoption of IFRS, for the primary items have been provided in this study.

Third,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IFRS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ce models for public utilities, which is one of significant areas highlighted due to the adoption of IFRS, and suggested the primary issues related to the adoption of IFRS.

Fourth, the survey had been conducted targeting personnel of the government-owned corporation (financial, accounting, and financial performance department) in connection with the adoption of IFR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o provided IFRS consulting service to the government-owned corporation. The study suggested the implications from the survey's resul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government-owned corporation had made its decisions for accounting policy, in connection with the first adoption of IFRS, to improve financial integrity such as by electing asset revaluation model, changing the depreciation method from declining balance at specified rate to straight line method, extending assets' useful lives considering economic useful lives and others. In addition, the advisory for the adoption of IFRS, which was formed by the Government, had performed its role successfully as the public organization prepared and submitted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IFRS by the due date and unqualified audit opinion had been issued for all the government-owned corporation which had been audited.

Furthermore, there were no significant impacts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is influenced by financial information under IFRS due to the design of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excluding the effect of differences in accounting standards as well economic substance differences' by analyzing common issues among the organization and individual issues specific to each organization in advance. It also had not affected much on the price models for public utilities, which corresponds to the survey's result.

■ 저자 약력 ■

장지인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도입자문단장
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김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도입자문위원
현,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규안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도입자문위원
현,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대길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도입자문위원
현, 삼정회계법인 전문

공공기관 IFRS 도입 영향 및 기대 효과

2013년 12월 24일 인쇄

2013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장 지 인 외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경성문화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701-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